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 제 [] 선택

윤리와 사상

1. 다음 가상 편지를 쓴 고대 동양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자들에게

제자들이여! 식(識)이 탐욕을 떠나면 색(色)·수(受)·상(想)·행(行)에 대한 집착과 마음에서 생긴 얽매임이 끊어지게 되어 다시는 성장하거나 뺏어나가지 못하게 된단다. 그리하여 식은 행동하지 않고, 그 뒤에는 머무르며, 그 뒤에는 만족할 줄 안단다. 이처럼 해탈하게 되면, 모든 세간에 대해서 전혀 취할 것도 집착할 것도 없게 되며, 열반을 자각하여 '나의 생은 다하였고 범행(梵行)은 섰으며 할 일은 이미 마쳐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고 스스로 알게 된단다. ... (후략) ...

- ① 탐욕, 성냄, 어리석음[三毒]을 제거하여 해탈에 이르러야 한다.
- ② 나와 세계의 관계성을 부정하고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 ③ 여덟 가지 바른 수행[八正道]을 통해 불변의 자아를 형성해야 한다.
- ④ 내세에 다시 태어나기 위해 몸과 입으로 많은 업(業)을 쌓아야 한다.
- ⑤ 열반의 결과인 무명(無明)에 도달하기 위해 바른 생각에 힘써야 한다.

2.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정치적 의사 결정과 제도의 정당성은 단순 다수결 절차를 통해 확보될 수 없다. 그 정당성은 시민들이 상호 간의 대화와 논증을 통해 자신의 선호를 바꿀 수 있어야 확보된다. 따라서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개방적이고 폭넓은 참여와 참여자들의 반성적이고 자기 성찰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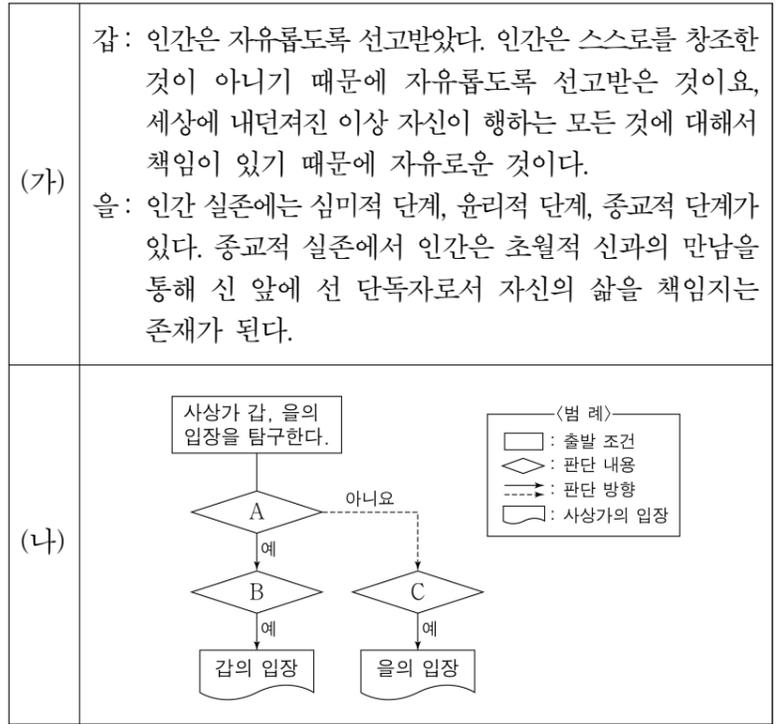
을: 선출된 의원들은 유권자를 수동적으로 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량권을 갖고 능동적으로 국가를 대표한다. 민주주의는 정치 엘리트들의 권력에 대한 경쟁일 뿐이며, 시민의 역할은 선거에서 대표를 택하는 일에 머무른다. 시민은 정치적 영역에서 무책임하고 충동에 빠지기가 쉽다.

<보 기>

ㄱ. 갑: 대화 참가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ㄴ. 갑: 모든 정책 결정의 과정에 시민이 모두 직접 참여해야 한다.
 ㄷ. 을: 민주주의는 실제로 인민의 지배가 아니라 정치인의 지배이다.
 ㄹ. 갑, 을: 시민은 항상 합리적으로 정치적 의사 결정을 하는 존재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3. (가)의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A: 보편적 진리는 실존적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가?
 ㄴ. B: 주체적 결단을 통한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하는가?
 ㄷ. C: 절망을 윤리적 실존 단계에서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가?
 ㄹ. C: 인간은 선택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갑, 을은 고대 동양 사상가들이다. 갑은 부정,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갑: 입이 맛을 좇고 눈이 색을 좇음은 본성[性]이지만 그것을 실현함은 명(命)에 달려 있으니 군자는 본성이라 하지 않는다. 부자 사이에 인(仁)이 있고 군신 사이에 의(義)가 있음은 모두 명이지만 그것을 실현함은 본성에 달려 있으니 군자는 그것을 명이라 하지 않는다.

을: 사람에게 스승[師]과 법도[法]가 있다면 큰 보배를 가진 것과 같고 그것이 없다면 큰 재앙과 같다. 사람에게 스승과 법도가 없다면 본성을 존중하게 되고 그것이 있다면 노력을 쌓는 것[積]을 존중하게 된다. 스승과 법도는 노력을 쌓는 데서 얻는 것이지 본성에서 얻는 것이 아니다.

- ① 군자와 소인은 모두 태어날 때부터 동일한 본성을 가지는가?
- ② 인간은 인식 능력 및 실천 능력을 통해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 ③ 인간은 하늘의 명령에 따라 인과 의의 덕성을 실현해야 하는가?
- ④ 인간은 누구나 마음의 수양을 통해 성인(聖人)이 될 수 있는가?
- ⑤ 소인은 지극히 크고 곧은 도덕적 기운[浩然之氣]을 길러야 하는가?

2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5.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중세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인간의 행위들이 추구하는 목적들은 점점 상위의 목적으로 올라가다 보면 궁극적인 목적에 이른다. 이 목적은 최고선이다. 그렇다면 최고선은 무엇일까? 그것은 행복이다. 행복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다.
 을: 인간은 자신의 자연적 원리에 의해, 인간의 범위 안에 있는 행복을 향해 전진한다. 그런데 완전한 행복은 인간적 본성의 범위를 넘어선다. 그러므로 다른 원리가 신에 의해 인간에게 추가되어야 하고, 이 원리를 신학적 덕이라 한다.

- ① 갑: 행복이란 자연적 경향성에 대한 만족을 의미한다.
- ② 갑: 덕은 건강과 명예처럼 행복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 ③ 을: 완전한 행복에 도달하게 되면 삶의 목적이 실현된다.
- ④ 을: 인간은 스스로 성취한 덕에 의해 최고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
- ⑤ 갑, 을: 덕은 지식과 일치하고 지식으로서의 덕은 행복과 일치한다.

6. 그림은 고대 동양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성인(聖人)은 무위(無爲)의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말없는 가르침을 행합니다. 만물이 흥성하게 일어나지만 자랑으로 여기지 않으며 공(功)을 이루고도 자기 것으로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인은 마음을 자유롭게 노니므로[遊], 지식을 재앙의 근원으로, 인의(仁義)를 교제 수단 정도로 여깁니다. 성인은 꾀하지 않으며 지식이 어찌 필요하며, 잃음이 없으니 얻음이 어찌 필요하겠습니까!



갑



을

- ① 갑: 시비를 명확하게 분별하여 남과 다투지 말아야[不爭] 한다.
- ② 갑: 경(敬)의 실천을 통해 흐르는 물처럼 소박하게 살아야 한다.
- ③ 을: 만물의 귀천을 구별하지 말고 평등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 ④ 을: 나라의 규모를 크게 하고 백성의 수를 많게 하여야 한다.
- ⑤ 갑, 을: 무위의 덕으로 다스리기 위해 예법[禮]을 제정해야 한다.

7. 갑, 을은 근대 서양 사상가들이고, 병은 고대 서양 사상가이다. 갑, 을, 병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 진리는 아주 확고부동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내가 찾고 있던 철학의 제1 원리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을: 우리가 자연에 관한 지식을 얻는 데 방해가 되는 네 가지 편견이 있다. 그것은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이다.
 병: 인간은 모든 것의 척도이다.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척도이다.

- ① 갑: 철학의 제1 원리는 방법적 회의의 출발점이다.
- ② 을: 유용한 지식보다는 지식 자체를 위한 지식이 더 중요하다.
- ③ 병: 사회가 아니라 자연을 탐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 ④ 갑, 을: 진리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이성의 역할이 필요하다.
- ⑤ 을, 병: 객관적 지식을 얻기 위해 경험을 원천으로 삼아야 한다.

8.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사회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국가의 구성원들은 각자 타고난 성향에 따라 한 가지 일에 배치되어야만 한다. 국가가 정의로운 것은 실상 그 안에 있는 세 부류가 저마다 자신의 일을 함에 의해서이다.
 을: 사상 체계의 제1 덕목이 진리라고 한다면 사회 제도의 제1 덕목은 정의이다. 타인들이 가지게 될 더 큰 선을 위하여 소수의 자유를 빼앗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 ① 갑: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
- ② 갑: 정의로운 국가에서는 철학과 통치 권력이 결합되어 있다.
- ③ 을: 기본적 자유는 사회적 약자에게 차등적으로 분배되어야 한다.
- ④ 을: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⑤ 갑, 을: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정의로운 사회에 도달한다.

9. 중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격물(格物)은 마음의 바르지 못함을 제거하여 그 본체의 바름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다. 의념[意]이 머무는 곳의 바르지 못함을 없애서 그 바름을 온전히 회복해야 한다.
 을: 격물은 치지(致知)하는 방법이다. 한 사물에서 한 개의 이치[理]를 궁구하면 나의 지식도 한 개를 얻게 되고, 두 사물에서 두 개의 이치를 궁구하면 나의 지식도 두 개를 얻게 된다. 따라서 사물의 이치를 궁구할수록 나의 지식도 넓어진다.

- ① 갑: 모든 이치는 내 마음과 독립하여 바깥에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 ② 갑: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탐구하여 앎을 극진히 해야 한다.
- ③ 을: 도덕적 앎과 실천은 서로 의존적 관계[相須]임을 자각해야 한다.
- ④ 을: 치지는 내 마음의 양지를 각각의 사물에서 실현하는 것이다.
- ⑤ 갑, 을: 격물이란 의념이 머무는 곳[事]을 바로잡는 것[正]이다.

10. 갑, 을은 한국 유교 사상가들이다.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정(情)에 사단과 칠정의 구분이 있다고 여기는 것은, 성(性)에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차이가 있는 것과 같다. 성에 대해서는 이(理)와 기(氣)로 나누어 말할 수 있는데, 유독 정에 대해서는 이와 기로 나누어 말할 수 없는 것인가?
 을: 사단과 칠정의 관계는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관계와 같다. 본연지성은 기질을 포함하고[兼] 있지 않은 것이지만 기질지성은 본연지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단은 칠정을 포함할 수 없지만 칠정은 사단을 포함한다.

<보 기>

ㄱ. 발하는 것은 기(氣)이고 발하는 근거[所以]는 이(理)인가?
 ㄴ. 사단과 칠정은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는 도덕 감정인가?
 ㄷ. 사단과 칠정은 연원[所從來]이 서로 다르므로 구분해야 하는가?
 ㄹ. 시비지심(是非之心)은 이(理)가 발하고 기(氣)가 따르는 것인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고대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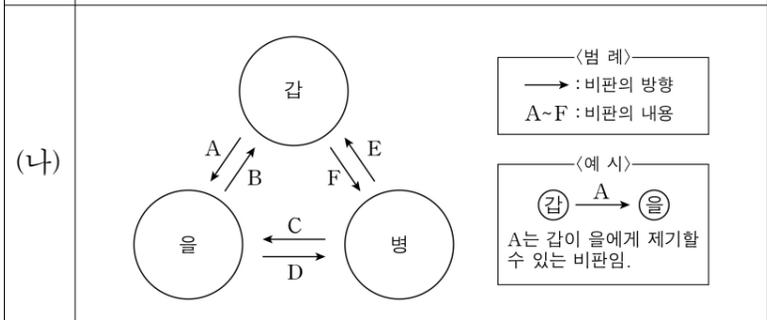
갑: 인간은 인상(印象)을 이성적으로 사용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다. '이성적으로'라는 말은 '자연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완전하게'라는 뜻이다. 당신이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당신에게 고유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성적 능력이다.
 을: 삼각형의 본성으로부터 그것의 세 각의 합은 두 직각의 합과 동일하다는 사실이 - 영원에서 그리고 영원으로 - 필연적으로 따라 나온다. 이 필연과 동일한 필연으로, 신의 최고의 힘으로부터 무한하게 많은 양태(樣態)의 무한하게 많은 것들이 항상 따라 나올 것이다.

<보기>
 ㄱ. 갑: 행복은 신에 대한 직관적 인식에서 나오는 만족일 뿐이다.
 ㄴ. 을: 자연은 인과적 필연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이다.
 ㄷ. 갑, 을: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 자연에서 벗어날 수 없다.
 ㄹ. 갑, 을: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 정념의 속박을 극복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2. (가)의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갑: 공통 권력이 존재하지 않으면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된다. 각자는 자연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사적 폭력을 포기하고 평화 규약에 합의하게 된다.
 을: 자연 상태는 각자가 자연법에 따라 생활하므로 대체로 평화로운 상태이다. 누군가 자연의 공유물을 노동을 통해 취하면 그것은 그의 소유가 된다.
 병: 인간은 자유인으로 태어났지만 곳곳에서 사슬에 매여 있다. 우리 각자는 신체와 힘을 모두 일반 의지에 맡긴 후 다시 각자를 전체의 불가분의 부분으로 받아들인다.



- ① A: 자연 상태는 부정의가 난무하는 전쟁 상태임을 간과한다.
 ② B, D: 소유권은 사회 계약을 통해 획득된 산물임을 간과한다.
 ③ C: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소유물을 잘 보전해야 함을 간과한다.
 ④ E: 자연 상태는 평화롭다는 점에서 사회 상태와 구분됨을 간과한다.
 ⑤ F: 주권은 양도될 수 없고 분할될 수도 없음을 간과한다.

13. 한국 불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왜 일심(一心)이라 부르는가? 진여(眞如)와 생멸(生滅)은 두 가지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일(一)이라 하며, 허공처럼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본성이 스스로를 신령스럽게 알아차리므로 심(心)이라 한다.
 을: 이치[理]에 들어가는 방법은 수없이 많지만 그것은 선정[定]과 지혜[慧]가 아닌 것이 없다. 선정은 자성(自性)의 본체이며 지혜는 자성의 작용으로서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 ① 갑: 다양한 현상은 마음과 별개로 고정적 실체로서 존재한다.
 ② 갑: 모든 종파의 이론들은 하나의 근원에 의해 회통되어야 한다.
 ③ 을: 돈오(頓悟)는 습기(習氣)가 쌓여 있는 상태에서도 가능하다.
 ④ 을: 정혜를 함께 닦는 것을 점수(漸修)의 요체로 삼아야 한다.
 ⑤ 갑, 을: 무아(無我)를 철저히 깨달아야 중생의 구제가 가능하다.

14.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자유는 시민적 자유 내지 사회적 자유를 의미한다. 국가는 선에 대해 중립적이어야 하며, 타인에게 미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권력이 개인의 자유에 간섭할 수 있다.
 을: 자유는 자의적 지배 권력의 부재를 의미한다.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법치 국가가 되어야 하며, 이 국가와 동료 시민에 대한 자발적이고 대승적인 사랑이 진정한 애국이다.

<보기>
 ㄱ. 갑: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않는다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ㄴ. 을: 시민의 정치 참여는 자유를 지키는 필수 요소이다.
 ㄷ. 을: 자신이 소속된 민족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이 애국이다.
 ㄹ. 갑, 을: 자유를 실현하려면 국가의 어떤 간섭도 배제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5.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서양 물건은 기괴한 기술과 교묘함으로 마음을 타락시키므로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양인(洋人)으로 인해 백성들이 곤궁해지고 재물이 고갈되어 나라꼴이 아니고, 예의를 지키던 자들이 재물에만 몰려 금수로 타락해 간다.
 을: 마음이란 내게 있는 본연의 한울[天]이니 본래 한마음이다. 마음은 선천과 후천의 마음이 있고, 기운 또한 선천과 후천의 기운이 있다. 천지의 마음은 신령하고, 천지의 기운은 천지에 가득 차 있으며 우주에 뻗어 있다.

- ① 갑: 성리학적 질서와 서양의 기술[西器]을 모두 배척해야 한다.
 ② 갑: 서양과의 활발한 교역을 통해 부족한 재화를 충족해야 한다.
 ③ 을: 새 세상이 현세에 도래할 것[後天開闢]이니 준비해야 한다.
 ④ 을: 무궁한 한울의 마음과 유한한 사람의 마음은 본래 다르다.
 ⑤ 갑, 을: 유교의 인륜을 바탕으로 불교와 도교를 통합해야 한다.

4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16. 다음을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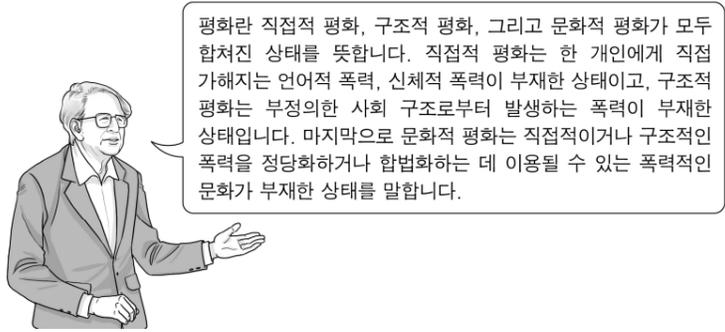
- 사람이 태아로 있을 때 하늘이 그에게 영명(靈明)하며 무형(無形)한 체(體)를 부여하였다. 이것은 선을 즐거워하고 악을 미워하며 덕을 좋아하고 욕됨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니 이것을 성(性)이라 말한다.
- 하늘이 나에게 성을 부여할 때 덕을 좋아하는 감정과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었다. 이 성은 비록 나에게 주어졌지만 그 근본은 하늘의 명령[天命]이다.

<보 기>

- ㄱ. 인간은 사덕(四德)을 실천함으로써 사단을 이룰 수 있다.
- ㄴ. 인간은 악을 싫어하는 기호(嗜好)의 본성도 지니고 있다.
- ㄷ. 인간은 도덕적 선택을 통해 자유 의지[自主之權]를 형성한다.
- ㄹ. 인간의 선행은 자신의 공적이 되고, 악행은 자신의 죄가 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7.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접적 폭력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적극적 평화가 실현된다.
- ② 권위주의에서 비롯된 문화적 폭력은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한다.
- ③ 평화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인간 안보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 ④ 테러나 범죄와 같은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가 소극적 평화이다.
- ⑤ 직접적 · 구조적 · 문화적 폭력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18.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갑: 의지의 자율은 모든 도덕법칙들과 그에 따르는 의무들의 유일한 원리이다. 이에 반해 자의(恣意)의 모든 타율은 전혀 책무를 정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책무 및 의지의 도덕성 원리에 맞서 있다.
- 을: 어떤 두 가지 쾌락을 모두 경험해 본 사람들 전체 또는 대다수가 도덕적 의무와 관계없이 그중 어떤 하나를 뚜렷이 선호한다면 그것은 더욱 바람직한 쾌락일 것이다.

<보 기>

- ㄱ. 갑: 경향성이 아니라 의무로부터 선행을 실천해야 한다.
- ㄴ. 을: 행위의 도덕성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의지에 근거한다.
- ㄷ. 을: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더 바람직한 쾌락을 선호한다.
- ㄹ. 갑, 을: 누구나 따라야 할 보편적인 도덕 원리가 존재한다.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9.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어떤 살인 행위를 모든 면에서 검토하고 당신이 악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지 보라. 이때 당신은 어떤 정념, 동기, 의욕, 생각만을 발견할 뿐, 다른 사실은 없다. 당신이 그 대상을 고찰하는 동안, 그 악덕은 당신을 피해 달아난다. 당신이 고찰의 방향을 자신의 마음으로 돌려서,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그 행위에 대한 부인(否認)의 감정을 발견할 때까지는 당신은 그것을 결코 발견할 수 없다.

- ① 덕은 모든 관찰자마다 다르게 느껴진다.
- ② 덕은 직접 경험될 수 있고 이성으로도 발견될 수 있다.
- ③ 덕에 대한 식별은 이성애, 덕의 실천은 감정에 의존한다.
- ④ 덕은 성품에 관한 특성이 아니라 사물에 내재하는 속성이다.
- ⑤ 덕은 특별한 종류의 쾌락이 느껴진다는 점에서 악덕과 구별된다.

20.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갑: 정부는 경제에 대한 개입을 철회하고 자본의 자유로운 국제적 이동을 보장해야 한다.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꽃 피울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경제 전반의 체질이 개선되어 성장 잠재력이 커질 수 있다.
- 을: 정부는 조세 체계와 이자율의 결정에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불황이나 실업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며, 특히 정부는 완전 고용을 위해 투자의 사회화를 실현해야 한다.

<보 기>

- ㄱ. 갑: 정부는 자유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 ㄴ. 을: 정부는 시장의 조절 기능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
- ㄷ. 을: 경제적 불황을 극복하려면 재정의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
- ㄹ. 갑, 을: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이윤 추구는 인정되어야 한다.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제 [] 선택

윤리와 사상

1. 다음 가상 편지를 쓴 현대 서양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님께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도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도덕은 행위의 일람표도 아니고 약국의 처방전처럼 적용해야 할 하나의 규칙도 아닙니다. 도덕은 지성적 탐구를 통해 현재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정적인 성과보다는 개선의 과정이 의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한 사람이란 지금까지 선했다 하더라도 현재 선을 상실해 가고 있는 사람이며, 선한 사람이란 지금까지 도덕적으로 무가치했다 하더라도 현재 더 선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① 삶을 결정하는 절대적 운명에 자신을 맡겨야 한다.
- ② 변하지 않는 자연법에만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 ③ 공동체의 전통적인 가치와 관행을 변함없이 지켜야 한다.
- ④ 삶의 현실과 무관하게 초월적 도덕 법칙을 준수해야 한다.
- ⑤ 지성적 탐구로 삶을 개선하는 능동적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

2. 다음을 주장한 고대 중국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이것은 저것이고, 저것 또한 이것이다. 그렇다면 세상에 과연 이것과 저것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것과 저것이 짝을 얻지 못함을 일러 도(道)의 중심축(樞)이라고 한다. 문의 중심축만이 고리의 가운데 걸려 무궁한 변화에 응대한다. 그러므로 옳게 여기는 것도, 그르게 여기는 것도 무궁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구별하지 않는 지혜로 살피는 것이 가장 좋다.

- ① 감각과 마음으로 참된 지식을 얻어야만 한다.
- ② 무위의 덕으로 다스리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③ 인간은 만물과 하나이므로 절대적 자유는 불가능하다.
- ④ 도에 따르지 않아도 자신의 덕은 자연스럽게 함양된다.
- ⑤ 모든 사물을 도의 관점에서 보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3.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색(色)·수(受)·상(想)·행(行)·식(識)의 다섯 가지는 무상하다고 관찰하라. 이렇게 관찰하면 그것이 바른 관찰이다. 바르게 관찰하면 곧 싫어하여 떠날 마음이 생기고, 싫어하여 떠날 마음이 생기면 기뻐하고 탐하는 마음이 없어지며, 기뻐하고 탐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이것을 괴로움이 사라진 해탈(解脫)이라고 한다.

- ① 올바른 수행을 위해 계율, 선정, 지혜를 모두 없애야 한다.
- ② 중생의 삶이 고통은 아님을 분별적 인식으로 깨달아야 한다.
- ③ 오온(五蘊)이 무상함을 깨달아 번뇌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
- ④ 깨달음을 얻기 위해 변치 않는 실체가 존재함을 관찰해야 한다.
- ⑤ 연기의 원리에 따라 만물은 독립적으로 존재함을 알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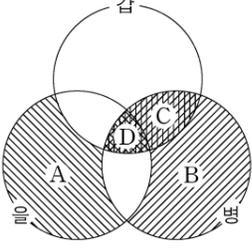
4.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순임금은 직접 나서지 않고 다스린 분이다. 자신을 공손히 하고, 현능(賢能)한 이들에게 국정을 맡겼을 뿐이다. 덕으로 다스림은 마치 북극성은 제자리에 있지만 못별들이 그것을 향하는 것과 같다.
을: 임금이 무위(無爲)하면 만물은 스스로 성장할 것이다. 성인(聖人)은 고정적인 마음이 없고, 오직 세상을 위해 마음을 비우기에 백성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아 백성을 아이처럼 되게 한다.

- ① 갑: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분별없이 사랑해야 한다.
- ② 갑: 백성이 악행을 부끄러워하도록 덕으로 다스려야 한다.
- ③ 을: 백성의 세속적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④ 을: 백성이 공적을 쌓아 널리 이름을 떨치도록 가르쳐야 한다.
- ⑤ 갑, 을: 백성의 생명을 중시하고 국가를 부강하게 이끌어야 한다.

5. (가)의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진술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양이(洋夷)의 재앙이 오늘날 홍수나 맹수의 재앙보다 심합니다. 안으로는 사학(邪學)의 무리를 벌하고, 밖으로는 바다를 건너온 도적을 물리쳐야 합니다.
을: 동양인은 형이상에 밝아 도(道)가 뛰어나고, 서양인은 형이하에 밝아 기(器)가 최고이다. 동양의 도로써 서양의 기를 행한다면 세계를 평정하는 것도 쉬운 일이다.
병: 시(侍)는 세상 사람들이 안으로 한울님의 신령한 마음을 보존하고 밖으로 한울님의 기운과 하나 되어 변치 않는 것이요, 주(主)는 한울님을 받들어 섬기는 것이다.

(나) 
 <범례>
A: 을만의 입장
B: 병만의 입장
C: 갑과 병만의 공통 입장
D: 갑, 을, 병의 공통 입장

<보기>
ㄱ. A: 유교적 가치와 질서를 지키며 서양 과학기술을 수용해야 한다.
ㄴ. B: 사람을 한울님처럼 섬기며 후천 개벽을 지향해야 한다.
ㄷ. C: 인본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서양 종교를 포용해야 한다.
ㄹ. D: 보국안민(輔國安民)을 위해 신분 질서를 폐지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6.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각자의 쾌락 또는 고통의 가치가 고려되는 일정 수의 사람들에게 대하여 쾌락 또는 고통의 가치는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다산성, 순수성, 범위의 일곱 가지 조건에 따라 커지거나 작아질 것이다.
 을: 인간은 동물적인 욕망보다 훨씬 더 상위의 능력을 지니고 있다. 상위 형태의 쾌락은 지성의 쾌락, 상상력의 쾌락, 도덕적 정서의 쾌락으로 단순 감각 작용에서 생기는 쾌락보다 더 우월한 것이다.

- ① 갑: 도덕 원리는 인간이 쾌락을 추구한다는 사실과 관련이 없다.
- ② 갑: 이해당사자들의 쾌락의 총량을 최대화할 원칙을 따라야 한다.
- ③ 을: 자신의 존엄을 유지하며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④ 을: 쾌락의 질적 차이는 경험이 아니라 이성적 사유로 알 수 있다.
- ⑤ 갑, 을: 타인의 행복을 원하는 이타심은 질적으로 높은 쾌락에 속한다.

7.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어떤 정념의 충동에 맞서는 것은 그 반대의 또 다른 정념일 뿐 이성이 될 수 없다. 이성은 정념의 노예이며 또한 노예로 남아 있어야 하고, 정념에 봉사하고 복종하는 일 말고 그 어떤 다른 일도 맡을 수 없다.
 을: 선의지는 자신의 최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채 오직 그 자신 혼자만이 남는다 하더라도, 보석과 같이 그 자체만으로도 빛날 것이다. 이성의 진정한 사명은 그 자체로 선한 의지를 산출하는 것이어야 한다.

- ① 갑: 경험과 관찰의 방법은 도덕의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다.
- ② 갑: 선악을 구별하는 원천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 판단이다.
- ③ 을: 도덕 법칙은 필연적 명령이므로 인간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④ 을: 그 어떤 준칙도 법칙으로 보편화하려고 의욕해서는 안 된다.
- ⑤ 갑, 을: 행위의 도덕성은 타인의 정서적 반응에 따라 결정된다.

8. 중국 불교 사상가 갑, 한국 불교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비록 근기[根]가 낮은 중생이라도 단박에 깨닫는 가르침[頓教]을 듣고 밖에서 닦는 것을 믿지 않으며, 오직 마음에서 자기의 본성으로 하여금 항상 바른 견해를 일으키게 하면 모두 다 당장에 깨닫게 된다.
 을: 비록 본래의 성품이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습기[習氣]는 갑자기 버리기 어려우므로, 깨달음에 따라 수양하여 차츰 공[功]이 이루어지면 오랜 동안을 거쳐 성인[聖人]이 되는 것이다.

- ① 갑: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는 단박에 깨우쳐야 한다.
- ② 갑: 참선을 통해 내 마음에 불성이 없음을 깨우쳐야 한다.
- ③ 을: 누구나 깨닫는 찰나에 습기와 번뇌는 일시에 제거된다.
- ④ 을: 마음의 작용[慧]을 마음의 본체[定]보다 항상 먼저 닦아야 한다.
- ⑤ 갑, 을: 중생의 구제가 아니라 개인의 수행에만 정진해야 한다.

9. 중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공통된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치지(致知)와 역행(力行) 중 어느 한쪽에만 힘을 써서는 안 된다. 그러나 선후와 경중을 구분해야 한다면 선후를 논할 때는 치지를, 경중을 논할 때는 역행을 중시해야 한다.
 을: 누군가 효도와 공경을 안다고 말하려면, 반드시 효도와 공경을 실천한 적이 있어야 한다. 단지 말만 한다고 그것을 안다고 할 수 없다. 지(知)와 행(行)은 본래 하나이다.

<보기>

- ㄱ. 도덕 원리로서의 마음을 실현하는 것이 격물(格物)이다.
- ㄴ. 사물에 내재한 이치를 탐구해야 마음 속의 앎[知]이 확충된다.
- ㄷ. 격물과 치지 모두 천리(天理)를 보존하기 위한 공부법이다.
- ㄹ. 군자와 소인의 구별 없이 인간은 모두 선한 본성을 지닌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가)의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사려 깊고 고귀하고 정의롭게 살지 않고서 즐겁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덕들은 즐거운 삶의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며, 즐거운 삶은 덕들과 분리될 수 없다. 을: 전 우주를 주재하는 자의 의지에 정신을 일치시키면서 모든 각각의 일을 행한다면, 바로 이것이 유덕한 삶이자 강물같이 순조롭게 흐르는 행복한 삶이다.</p>
(나)	

<보기>

- ㄱ. A: 모든 자연적 욕구를 충족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가?
- ㄴ. B: 최고선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성적 숙고가 필요한가?
- ㄷ. C: 외부 사건에 대한 생각과 판단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가?
- ㄹ. C: 자연의 필연성을 따르는 인간의 삶이 덕 있는 삶인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1. 고대 중국 사상가 갑, 한국 유교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사람의 성(性)이란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는 것이다. 이를 그대로 두면 서로 싸우고 빼앗고 하여 양보란 것이 없게 된다. 또 사람은 나면서부터 미워하고 시기함이 있다. 이를 그대로 두면 폭력과 잔혹함이 생겨난다.
 을: 사람의 본성을 논하건대, 사람은 선을 즐거워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한 가지 선을 행하면 그 마음은 뿌듯하게 기쁘고, 한 가지 악을 행하면 그 마음은 위축되어 풀이 죽는다.

- ① 갑: 예(禮)는 내면의 선한 본성을 함양하는 외적 규범이다.
- ② 갑: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본성에는 인(仁)과 의(義)가 있다.
- ③ 을: 자주지권(自主之權)은 인간의 타고난 사덕(四德)에 기초한다.
- ④ 을: 형구(形軀)의 기호에 따라 행하면 선하기 어렵고 악하기 쉽다.
- ⑤ 갑, 을: 금욕적 수양을 통해 인간의 모든 욕구를 제거해야 한다.

12.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인간은 먼저 세계 속에 존재하고 나타난다. 인간이 정의 되는 것은 그 이후의 일이다. 인간 본성이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 본성을 구상하기 위한 신이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다만 스스로가 생각하는 그대로일 뿐이다.
 을: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오직 혼자 힘으로 절망을 제거하려 하면, 더 깊은 절망 속에 빠질 뿐이다. 자신이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주체적 결단을 내릴 때,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 ① 갑: 인간은 자유 그 자체를 선택하여 책임을 지는 존재이다.
- ② 갑: 인간이 아닌 사물도 정해진 목적이 없이 먼저 실존한다.
- ③ 을: 인간은 윤리적 단계에서도 참된 실존에 이르지 못하는 못한다.
- ④ 을: 실존적 상황에서 인간의 주체성은 결코 진리가 될 수 없다.
- ⑤ 갑, 을: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신을 요청해야 한다.

13. 갑, 을은 한국 유교 사상가들이다.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말을 타고 문을 나갈 때, 말이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은 도덕적 마음이 지도하는 것과 같고, 사람이 말에게 행로를 믿고 말기는 것은 욕구를 따르는 것과 같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오직 기가 발하여 이가 탈 뿐이다.
 을: 사람은 말이 아니면 출입하지 못하고, 말은 사람이 아니면 길을 잃는다. 사람이 다닌다고 말할 수도 있고, 말이 다닌다고 말할 수도 있다. 사단과 칠정의 구분은 각각 사람과 말을 위주[主]로 말한 것과 같다.

- ① 도덕 감정은 일반 감정의 일부가 아님을 간과한다.
- ② 어떤 감정도 이가 직접 발한 것일 수 없음을 간과한다.
- ③ 도덕 실천은 경건한 마음을 바탕으로 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④ 천지 만물의 성(性)은 이가 기에 들어와 형성됨을 간과한다.
- ⑤ 이와 기는 서로 떨어지지 않지만 섞이지도 않음을 간과한다.

14. 그림의 강연자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두려워하는 일이나 화를 내는 일은 너무 많이 할 수도 있고 너무 적게 할 수도 있지만, 둘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땅히 그래야 할 때, 마땅히 그래야 할 일에 대해, 마땅히 그래야 할 사람들에 대해, 마땅히 그래야 할 목적을 위해, 또 마땅히 그래야 할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용입니다.



- ① 중용은 시기, 질투 등의 감정이 적절히 완화된 품성적 덕이다.
- ② 중용은 어떤 상황에서도 분노하지 않도록 하는 품성적 덕이다.
- ③ 중용은 실천적 지혜가 형성되기 전에 갖춰야 할 품성적 덕이다.
- ④ 중용은 이성의 도움 없이도 실천으로 습관화되는 품성적 덕이다.
- ⑤ 중용은 영혼에서 감정과 욕구를 맡은 부분이 계발된 품성적 덕이다.

15. 중세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신 존재를 증명하는 첫 번째 논증은 다음과 같다. 어떤 것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감각적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움직이는 모든 것 각각은 다른 것에 의해 움직인다. 그러나 운동의 원인 소급은 무한할 수 없다. 따라서 운동하지 않는 제1원동자, 즉 신은 존재해야 한다.
 을: 실체는 자신 안에 존재하고 자신을 통해 파악되는 것이다. 신은 절대적으로 무한한 존재, 즉 무한하게 많은 속성들로 이루어진 실체다. 신을 제외한 다른 실체는 존재할 수도, 파악될 수도 없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 안에 존재하고, 그 어떤 것도 신 없이는 존재할 수도, 파악될 수도 없다.

- ① 갑: 신의 존재는 이성적으로 입증 가능하다.
- ② 갑: 이성이 발견하는 진리는 신앙과 조화될 수 없다.
- ③ 을: 신은 세계의 필연적 원인으로 세계의 바깥에 있다.
- ④ 을: 신은 의지를 가지고 세계를 창조한 인격적 존재이다.
- ⑤ 갑, 을: 신에 대한 지적 추론만으로 완전한 행복이 실현된다.

4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16.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경쟁은 의식적인 사회적 통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정부가 정책을 통해 실업이나 공황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치명적 자만이며, 사람들을 노예의 길로 이끌게 될 것이다.
 을: 자본주의에서 노동은 노동자에게는 가난을 제공할 뿐이다. 낡은 부르주아 사회를 전복하여 각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두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보 기>—
 가. 갑: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나. 을: 자본주의에서 노동에 의한 모든 생산물은 노동자가 소유한다.
 다. 을: 공산 사회 실현을 위해 모든 계급은 소멸되어야 한다.
 르. 갑, 을: 인간의 자유 실현을 위해 사유재산제를 폐지해야 한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르 ⑤ 다, 르

17.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민주주의는 의사소통의 합리성에 기초한 공론장에서 서로의 입장과 정책을 토의할 절차를 필요로 한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서로 자유롭고 평등해야 하고, 속고와 심의를 통해 각자의 선호를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을: 민주주의는 실제로는 시민의 지배가 아니라, 시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경쟁하는 정치가의 지배를 의미한다. 시민의 역할은 단지 그들을 지배할 대표들을 승인하거나 부인할 기회를 갖는 것에 머무른다.

- ① 갑: 정책 결정의 정당성은 심의가 아닌 다수결로 보장된다.
 ② 갑: 공정한 토론을 위해 관련 공직자와 전문가는 배제해야 한다.
 ③ 을: 유권자는 선거 이외에도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④ 을: 민주주의는 정치가들의 권력 획득 경쟁을 위한 장치일 뿐이다.
 ⑤ 갑, 을: 정치가와 일반 시민의 정치적 판단 능력은 차이가 없다.

18. 중세 서양 사상가 갑, 고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플라톤에 대한 독서가 진리를 찾도록 나를 고무시켰을 때, 천상의 나라에 계신 당신에 관한 비가시적 사실들을 나는 보았습니다. 당신은 결코 어떤 변화도 겪지 않습니다. 당신은 영원히 자신과 동일한 자로서 존재합니다.
 을: 우리는 사슬에 묶여 앞 벽면만 바라보는 동굴 속 죄수와 같다. 죄수들 뒤에 담장이 있고, 담장 위에는 동물 모형들이 지나가고 있으며, 모형들 뒤에는 불이 타오르고 있다. 죄수들은 벽면에 비친 그림자를 진짜 사물로 간주한다.

- ① 갑: 신은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이성적 인식의 대상이다.
 ② 갑: 인간이 쌓은 덕만으로 완전한 행복을 성취할 수 있다.
 ③ 을: 보이지 않아도 각각의 사물에 각각의 이데아가 내재한다.
 ④ 을: 개인의 영혼을 지배해야 할 덕과 국가를 지배해야 할 덕은 같다.
 ⑤ 갑, 을: 모든 존재의 궁극적 원인이 오직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19.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p>갑: 사람들은 자연 상태에서 자기 보존의 욕구에 따르는 무제한의 자연권을 행사함으로써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를 초래한다.</p> <p>을: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신체와 모든 능력을 일반 의지의 최고 감독 하에 둔다. 일반 의지는 대표될 수 없으며, 시민이 직접 인정하지 않는 법은 무효이다.</p> <p>병: 사람들은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입법부가 제정한 법에 의해 지배를 받겠다는 신탁을 한다. 시민은 신탁을 위반한 권력을 제거할 권리가 있다.</p>
(나)	

- ① A, F: 자연 상태의 인간이 이기적 존재는 아님을 간과한다.
 ② B: 시민이 양도할 수 없는 주권을 보유해야 함을 간과한다.
 ③ C: 모든 인간은 본래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음을 간과한다.
 ④ D: 시민이 직접 선출한 입법부가 법을 제정해야 함을 간과한다.
 ⑤ E: 국가의 입법권과 집행권이 분리되지 않아야 함을 간과한다.

20.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애국심은 동료 시민을 향한 자발적이고 대승적인 사랑이다. 이는 법과 자유를 공유하는 시민들 사이에서 나타난다. 그리하여 애국심은 보편적 사랑이 아닌 특정 공화국과 시민들에 대한 애착과 태도이다.
 을: 애국심이 동일한 과거와 문화를 함께 기억하는 민족적 전통에 근거한다면, 상이한 소수집단을 배척하는 억압 기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애국심의 근거는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대한 국민적 동의에서 찾아야 한다.

- ① 갑: 애국심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갖는 국민적 감정이다.
 ② 갑: 애국심은 법치와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의 열정이다.
 ③ 을: 애국심은 개인의 자유보다 우선해야 할 시민적 책무이다.
 ④ 을: 애국심은 민족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⑤ 갑, 을: 애국심은 국가의 역사를 공유하는 연대감에서 비롯된 덕성이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제 [] 선택

윤리와 사상

1. 다음 가상 편지를 쓴 고대 동양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학생 여러분, 호연지기(浩然之氣)를 잘 길러 나가야 합니다. 호연지기란 지극히 크고 강한 기개인데, 울곧음으로써 기른다면 하늘과 땅 사이를 가득 채우게 되지요. 그 기개의 됴됨이는 의(義)와 도(道)가 없으면 위축되고 맙니다. 그러니 호연기기를 함양하려면 의와 도에 맞는 일을 실천해야 합니다. 부귀를 누려도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빈천(貧賤)에 시달려도 의지가 변함이 없으며, 위세와 무력 앞에서도 지조를 굽히지 않는 사람, 여러분 모두 그런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 ① 교육을 통해 자신의 선천적 본성을 변화시켜야[化性起僞] 한다.
- ②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 계(戒), 정(定), 혜(慧)를 습관화해야 한다.
- ③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절대적 경지[逍遙]에 도달해야 한다.
- ④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옳은 행위를 꾸준히 실천해야[集義] 한다.
- ⑤ 친소(親疏)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사랑해야[兼愛] 한다.

2. 다음은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공감 원리는 우리의 모든 소감들로 하여금 강한 승인과 불승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소감을 안으로 아주 깊게 들어오고 또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공감 원리는 쾌락을 증가시킨다는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승인하려는 성향을 가진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행동을 승인합니다. 반면, 나의 공리 원리는 강도, 지속성 등에 의해 계산되는 쾌락을 증가시키는 경향에 근거하여 승인합니다.



- ① 갑: 선악 구별은 행위에 적용될 뿐 성품에 적용될 수 없다.
- ② 갑: 이성(理性)은 정념(情念)이 기초하고 있는 믿음의 진위를 가려낼 수 있다.
- ③ 을: 쾌락은 행위의 목적일 뿐 행위의 원인이 될 수 없다.
- ④ 을: 쾌락의 증가는 선이지만 고통의 감소는 선이 아니다.
- ⑤ 갑, 을: 공감 원리는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보편적 원리이다.

3. 고대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쾌락은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끝으로,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없는 상태이다. 삶이 즐거우려면 우리의 정신에서 신과 죽음에 대한 잘못된 믿음들을 몰아내야 한다.

을: 행복은 고통의 부재이며, 불행은 쾌락의 결핍이다. 최대 행복 원리는 사람들이 가능한 한 고통이 없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최대한의 쾌락을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① 갑: 즐거운 삶을 위해 이성적인 숙고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 ② 갑: 신은 악행을 저지른 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징벌을 내린다.
- ③ 을: 고상한 쾌락을 얻기 위해서는 감각 이외의 능력도 필요하다.
- ④ 을: 행복을 바라는 인간의 본성은 도덕 원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 ⑤ 갑, 을: 사회 전체의 쾌락을 증진시키는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가 있다.

4.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열반이란 탐욕(貪), 성냄(瞋), 어리석음(癡)이 멀어져 모든 번뇌가 영원히 멸한 것이다. 열반을 얻는 도(道)가 곧 팔정도(八正道)이니 닦고 익히며 또 닦고 익혀야 한다.

을: 지인(至人)은 천지 본연의 모습을 따르고 자연의 변화에 순응하여 무한의 세계에 노니는[遊] 자이다. 그러므로 세상 일을 따라 허둥지둥하지 않는다.

- ① 갑: 만물이 불변함을 깨닫지 못한 데서 고통이 발생한다.
- ② 갑: 열반에 이르러도 무명(無明)에서 비롯된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 ③ 을: 도는 만물의 근원일 뿐 만물에 내재하지 않는다.
- ④ 을: 만물은 본성의 차이로 말미암아 서로 우열이 있다.
- ⑤ 갑, 을: 자기중심적 집착에서 벗어나려는 수양이 필요하다.

5. 다음을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인간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은 영명(靈明)뿐이다. 사랑할 수 있고 의로울 수 있으며 예의 바를 수 있고 지혜로울 수 있는 능력이라면 인간이 타고난 것이다. 하지만 하늘이 인의예지(仁義禮智)라는 네 가지 알맹이를 인간의 본성 속에 부여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인의예지라는 명칭은 반드시 일을 행한[行事] 이후에 성립한다.

- ① 사덕(四德)은 하늘이 인간에게만 부여한 도덕 법칙이다.
- ② 자주지권(自主之權)은 스스로 선(善)을 실천해야 생기는 권능이다.
- ③ 사덕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영지(靈知)의 기호이다.
- ④ 인간은 선한 기호의 본성과 악한 기호의 본성을 함께 타고난다.
- ⑤ 사비지심(是非之心)은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는 선한 마음이다.

2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6. 한국 불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도(道)에 들어가는 방법은 많지만 요약해서 말하면 돈오(頓悟)와 점수(漸修)뿐이다. 돈오돈수(頓悟頓修)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도 과거 여러 생애에 걸쳐 돈오한 이후에 점수했기 때문에 그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을: 수행 방법이 많지만 처음 수행에 들어갈 때에는 일심(一心)의 진여문(眞如門)에 의하여 지행(止行)을 닦고 생멸문(生滅門)에 의하여 관행(觀行)을 일으킨다. 둘을 함께 운용하면 모든 실천 수행이 여기에 갖추어지게 된다.

- ① 갑: 자신의 불성을 단번에 깨달은 후에도 점진적 수행이 필요하다.
- ② 갑: 정(定)을 닦고 혜(慧)를 나중에 닦아야 습기(習氣)가 사라진다.
- ③ 을: 일심에서 보면 진여(眞如)와 생멸(生滅)은 그 근본이 다르다.
- ④ 을: 중생과 부처의 마음이 본래 다르지만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 ⑤ 갑, 을: 마음 밖의 진리를 찾아 깨우치고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7.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 모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무엇을 하고자 하는 사람[爲者]은 실패하고, 움켜잡는 사람은 잃는다. 그런 까닭에 성인(聖人)은 아무것도 함이 없으므로 [無爲] 실패함이 없고, 움켜잡음이 없으니 잃음이 없다.
 을: 그릇은 용기장이의 작위[僞]로 생기는 것이지 그 사람의 본성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예의(禮義)는 성인의 작위로 생기는 것이지 그 사람의 본성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 ① 인격 수양을 위해 후천적 노력이 필요한가?
- ② 하늘[天]이 부여한 도덕적 본성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가?
- ③ 사람의 귀천과 상하를 구분하여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가?
- ④ 성인은 예의를 제정하여 사회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인가?
- ⑤ 이상적인 통치는 백성의 무지(無知)와 무욕(無欲)을 지향하는가?

8.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에 따라 제시된 논증은, 세계를 인간의 사유에 예측시키고, 인간의 사유를 언어에 예측시킬 뿐이다. 그릇된 논증은 우상을 보호하는 방책에 불과하다.
 을: 모든 것이 의심스럽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의심스럽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아는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제시하고자 하는 철학의 제1원리이다.

- ① 갑: 자연에 대한 지식은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 데 필수적이다.
- ② 갑: 우상 타파를 위해 채택해야 할 학문의 방법은 연역법이다.
- ③ 을: 철학의 제1원리로부터 지식을 추론하려 해서는 안 된다.
- ④ 을: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자명한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 ⑤ 갑, 을: 진리 탐구를 위해 전통적인 권위를 의심할 필요는 없다.

9.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피리 연주자 같은 기술자의 좋음은 그가 행하는 기능에 있다. 손, 발, 눈 같은 자연적 기관들의 좋음도, 동식물 같은 자연적 존재들의 좋음도 각각의 기능에 있다. 한 사물이 자신의 기능을 잘 수행하도록 해 주는 탁월성을 갖추는 것, 그리고 실제로 잘 수행하는 것이 그 사물의 목적이다. 각 기술적 행위나 자연적 기관들에 목적이 있듯, 인간이든 국가든 각각의 존재에는 고유한 목적이 깃들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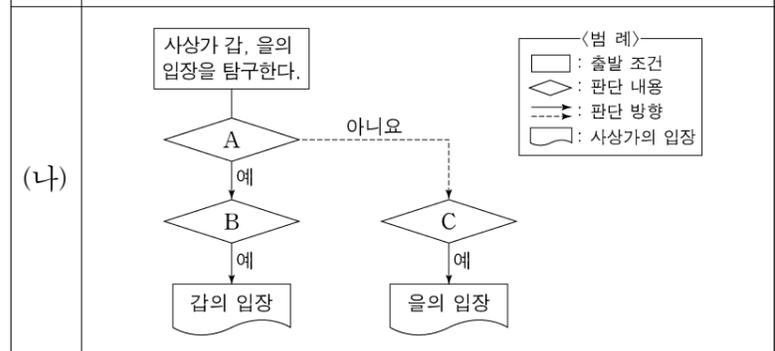
<보 기>

- ㄱ. 좋은 삶은 개인과 국가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 ㄴ. 행복은 영혼의 탁월한 품성 상태라고 정의된다.
- ㄷ. 좋음은 항상 그 자체를 위해 선택될 뿐 다른 것을 위해 선택되지 않는다.
- ㄹ. 사물의 좋음과 목적을 알려면 그 사물의 고유한 기능을 알아야 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0. (가)의 중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마음은 몸을 주재하는 것으로서 그 본체가 되는 것이 성(性)이고 그 작용이 되는 것이 정(情)이다. 마음은 성과 정을 통괄한다.
 을: 마음에는 모든 이치[理]가 갖추어져 있어서 만사(萬事)가 여기에서 나온다. 마음 밖에 이치는 없고, 마음 밖에 사(事)는 없다.



<보 기>

- ㄱ. A: 마음의 바르지 못함을 바로잡는 일이 격물(格物)인가?
- ㄴ. B: 인간 모두가 지닌 천리로서의 본성[本然之性]은 선한가?
- ㄷ. B: 마음 밖에도 있고 마음 속에도 있는 이(理)를 궁구해야 하는가?
- ㄹ. C: 치지(致知)를 위해서는 사욕(私欲)을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1. 중세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신은 모든 선한 것의 이데아이자, 인간의 최고선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이 따라 나온다. 즉, 최고선을 추구하는 것이 좋은 삶이기 때문에, 좋은 삶은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정신으로 신을 사랑하는 것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을: 신의 본질을 직관하는 것이 인간의 최종 목적인 궁극적 행복이다. 자연적 욕구가 안식에 도달하기 전까지 그 사람은 최종 목적에 아직 도달한 것이 아니다. 최종 목적을 위해서는 자연적 욕구를 잠재우는 신의 본질을 인식해야 하며, 그 외의 지적 인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 ① 갑: 도덕적 선과 악이 발생하는 원인은 신에게 있다.
- ② 갑: 신에 대한 사랑이 없는 지혜는 결코 진정한 덕이 될 수 없다.
- ③ 을: 철학적 사고와 신에 대한 믿음은 서로 모순된다.
- ④ 을: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인간의 최종 목적이다.
- ⑤ 갑, 을: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의 결합으로 지복(至福)이 완성된다.

12. 갑, 을은 한국 유교 사상가들이다.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정(情)에는 희(喜), 노(怒), 애(哀), 구(懼), 애(愛), 오(惡), 욕(欲) 일곱 가지가 있을 뿐이다. 사단이란 선(善)한 정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니, 칠정을 말하면 사단은 그 안에 들어 있다.
 을: 칠정과 기(氣)와의 관계는 사단과 이(理)와의 관계와 같다. 칠정과 사단이 발현하는 데 각각 혈맥이 있고 그 이름에는 각각 가리키는 바가 있으므로 기와 이로 분류하여 소속시킬 수 있다.

- ① 사단과 칠정의 발생 근원이 각각 따로 있음을 간과한다.
- ② 사단과 칠정은 모두 성(性)이 발현한 정(情)임을 간과한다.
- ③ 사단은 순선하지만 칠정은 악으로 흐를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④ 이와 기는 개념적으로 서로 구분될 수 없는 관계임을 간과한다.
- ⑤ 이는 스스로 작용할 수 없으며 기만 스스로 작용함을 간과한다.

13.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는 철학자, 즉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다스려야만 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현재 국가를 다스리는 자, 즉 최고 권력자가 진실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지혜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에게 나쁜 것들을 중식시키고자 한다면, 이와 같이 정치 권력과 지혜에 대한 사랑은 한데 합쳐져야만 한다.

- ① 각 계층이 각자 해야 할 일에 충실한 것이 정의이다.
- ② 정의로운 국가에서는 사유 재산이 허용되는 계층이 있다.
- ③ 이상 국가를 구성하는 세 계층 모두에게 공통된 덕이 있다.
- ④ 국가 전체의 좋음은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
- ⑤ 절제의 덕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이상 국가의 통치자가 될 수 없다.

14.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p>갑: 인간이 국가 속에서의 구속을 스스로 부과하는 원인과 목적은 자기 보존과 그로 인한 만족된 삶을 위해 전쟁 상태로부터 벗어나려는 데 있다.</p> <p>을: 인간은 모든 분쟁의 옳고 그름을 가려 판단할 권위를 가진 입법부를 지상에 설정함으로써,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국가의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p>
(나)	

- ① A: 사회 계약의 주체가 국가의 주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 ② A: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권력은 분할되어야 한다.
- ③ B: 국가 성립의 유일한 목적은 개인들의 생명권 보장이다.
- ④ C: 입법부가 지닌 권력은 제한될 수 있어도 철회될 수는 없다.
- ⑤ C: 사회 계약 이후에는 개인이 아닌 국가만이 처벌권을 지닌다.

15.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의복·식용(食用)·기용(器用)에 양물(洋物)이 하나라도 있으면 모두 찾아내어 궁궐의 뜰에 모아 태워 버려야 한다. 그리고 지극히 올바른 우리의 도(道)를 밝혀 백성을 교화시키고 인애와 윤리를 넓혀 나가야 한다.
 을: 오랑캐 땅에서도 효제충신의 도는 해와 별처럼 빛나서 버릴 수 없는 것이다. 바뀔 수 없는 도와 바뀔 수 있는 기(器)는 서로 떨어지지 않으므로 우리의 도를 잘 시행한다면 서양의 기를 행하는 것도 매우 쉬울 것이다.

—<보 기>—

ㄱ. 갑: 화친의 이익을 도모하지 말고 충효의 도의를 지켜야 한다.
 ㄴ. 을: 서양의 정치 체제를 수용하고 외국과 화합해야 한다.
 ㄷ. 갑, 을: 서양의 종교와 도덕으로 유학 정신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ㄹ. 갑, 을: 만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신분 질서를 폐지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16.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내 위의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안의 도덕 법칙, 나는 이 둘을 마치 어둠 속에 감춰져 있는 것처럼 찾거나 추측하지 않는다. 나는 이 둘을 눈앞에서 보고 나의 존재 의식과 직접 연결시킨다. 도덕 법칙은 나의 인격성에서 출발하고, 참된 무한성을 갖는, 그러나 지성에 의해서만 감지되는 세계, 즉 예지계 속에서 나를 나타낸다. 예지계와 나의 연결은 결코 우연적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필연적임을 나는 인식한다.

- ① 보편적 도덕 법칙만이 명령의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 ② 신과 인간 모두에게 도덕 법칙이 의무로 부과될 수 있다.
- ③ 의무로부터 비롯된 모든 행위는 의무에 맞는 행위에 속한다.
- ④ 개인의 주관적 행위 규칙은 보편적 도덕 법칙이 될 수 없다.
- ⑤ 인간은 자연법칙의 지배하에 있지 않으며 도덕 법칙에만 지배받는다.

17. 근대 서양 사상가 갑, 현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인간의 정신은 어떤 것을 의지하도록 이미 어떤 원인에 의해 결정되고, 이 원인 역시 다른 원인에 의해 결정되며, 이렇게 무한히 진행된다. 신, 즉 자연만이 자기 원인이다.
 을: 결정론으로 자신의 자유를 숨기려는 자는 비겁한 자이며, 자신의 실존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필연적이었다고 증명하려는 자는 불순하다.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

- ① 갑: 모든 일의 결과에 반드시 원인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 ② 갑: 신은 모든 것의 내재적 원인이 아니라 초월적 원인이다.
- ③ 을: 실존이 자신의 본질에 앞서는 유일한 존재는 인간이다.
- ④ 을: 인간에게 자신의 선택에 따른 책임까지 요구해서는 안 된다.
- ⑤ 갑, 을: 인간은 필연성에서 벗어나 행위할 수 있는 자유 의지가 있다.

18. 현대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지배 없는 상태로서의 자유와 간섭 없는 상태로서의 자유가 충돌할 때, 전자를 후자보다 우선해야 한다. 그것이 공화국의 핵심이다. 공화국의 공공선은 지배 없는 상태로서의 자유를 추구하는 시민들에게 좋은 것을 의미한다.
 을: 자유라는 것은 한 사람 또는 일군의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간섭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방임되어야 할 영역은 무엇인가에 관한 물음과 관련된다. 이것은 통제나 간섭의 근원을 묻는 적극적 의미의 자유와 구분된다.

<보 기>

ㄱ. 갑: 비지배의 자유를 실현하는 데 법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ㄴ. 갑: 자유는 천부의 자연권이 아니라 시민이 만들어 가는 것이다.
 ㄷ. 을: 선한 의도를 가진 간섭도 소극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ㄹ. 갑, 을: 국가의 모든 간섭이 사라져야 시민의 자유가 보장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p>갑: 경쟁은 우리의 행위들이 서로 조정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계획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우리를 노예의 길로 안내할 뿐이다.</p> <p>을: 경쟁에 내맡기면 최선의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는 믿음은 지나친 낙관이다. 이것은 유효 수요의 부족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p> <p>병: 경쟁 대신 연합이 필요하다.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두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연합체가 들어서는 공산 사회에서는 계급 대립이 존재하지 않는다.</p>
(나)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font-size: small;"> <p><법 레> →: 비판의 방향 A~F: 비판의 내용</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font-size: small;"> <p><예 시> (갑) → (을) 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p> </div> </div>

- ① A: 시장에서 개인의 경제 활동의 자유는 인정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 ② B: 빈부 격차 완화를 위한 복지 정책을 축소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③ C: 시장의 역할만으로는 실업 해소에 한계가 있음을 간과한다.
- ④ D, F: 자본주의에서도 인간의 자유 실현이 가능함을 간과한다.
- ⑤ E: 사회주의 계획 경제로 인해 인간은 노예로 전락함을 간과한다.

20.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사회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우리 아테네의 통치 체제는 이웃의 제도들을 모방하지 않았다. 우리가 다른 누구를 흉내 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이웃에게 모범이 되었다. 우리의 정치 체제는 민주주의라고 불리는데, 권력이 전체 인민의 손에 있기 때문이다.
 을: 시민들이 정치적 문제들과 관련된 심의를 할 때, 그들은 의견을 교환하고 자신의 지지 근거들을 논의한다. 여기서 필요한 공적 이성인 기본적 정의에 관련된 시민들의 숙고와 심의를 특징짓는 능력이다.

- ① 갑: 시민은 주권자이지만 공직을 직접 담당할 권한은 없다.
- ② 갑: 시민의 재산 규모에 비례하여 정치적 발언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③ 을: 심의 과정에서 개인의 정치적 의견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 ④ 을: 의사 결정의 정당성은 심의의 절차보다 결론의 내용에 달려 있다.
- ⑤ 갑, 을: 정치 참여 권한이 모든 시민에게 동등하게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 (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 제 [] 선택

윤리와 사상

1. 다음 가상 편지를 쓴 고대 서양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님께

어떤 상황에도 동요하지 않는 마음의 평화로운 상태, 즉 부동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당신이 바라는 대로 일어나기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일어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기를 원해야 합니다.

... (중략) ...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신과 인간이 공통으로 지니고 있는 본성, 즉 이성(logos)을 따르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 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
- ② 만물을 창조한 인격적 존재인 신과의 합일을 지향해야 한다.
- ③ 공리의 원리에 기초하여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해야 한다.
- ④ 자연을 지배하는 보편적 이성의 명령에 따라 운명에 순응해야 한다.
- ⑤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므로 객관적 진리가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2.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덕은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상태이다. 덕 가운데 어떤 것은 지적인 덕이라 부르며, 다른 어떤 것은 도덕적인 덕이라고 부른다. 철학적 지혜나 이해력, 실천적 지혜는 지적인 덕이요, 온화라든가 절제는 도덕적인 덕이다.

을: 쾌락은 마음의 혼란과 육체의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쾌락은 모든 가치를 평가하는 최고선이자 행복한 삶의 시작이고 끝이다. 아름다움과 탁월함도 우리에게 쾌락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면 버려야 한다.

<보 기>

ㄱ. 갑: 실천적 지혜는 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 감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ㄴ. 갑: 도덕적인 덕은 영혼의 이성적인 부분에만 관계되고 습관에 의해 형성된다.

ㄷ. 을: 명예욕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고통은 유발되지 않는다.

ㄹ. 갑, 을: 행복한 삶을 위해 이성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3. 그림은 중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갑: 사욕을 제거하여 행위 주체의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
- ② 갑: 성인(聖人)은 백성과 달리 불변하는 본성인 양지를 지닌다.
- ③ 을: 격물(格物)은 이치를 궁구하여 본연지성을 바로잡는 일이다.
- ④ 을: 먼저 알아야 실천할 수 있기에 앎[知]이 실천[行]보다 중요하다.
- ⑤ 갑, 을: 마음 바깥에 이치가 없고 마음 바깥에 사물이 없다.

4.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 즉 무명(無明)을 조건[緣]으로 행(行)이 있고 행을 조건으로 식(識)이 있으며 식을 조건으로 정신과 물질[名色]이 있고 ... (중략) ... 생(生)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 근심, 슬픔, 고통, 번뇌가 있다. 이와 같이 큰 괴로움의 무더기가 모인다.

- ① 영원한 본성을 가진 자아만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 ② 무상(無常)한 것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 ③ 인연(因緣)에 의해 생성된 모든 현상은 더 이상 변화하지 않는다.
- ④ 오온(五蘊)으로 구성된 존재만이 고정되어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 ⑤ 인간은 현상 세계의 모든 존재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5. 다음을 주장한 중세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이성적 피조물은 영원한 이성 안에 참여함으로써 적절한 행동과 목적에 대한 자연적 성향을 지닌다. 이성적 피조물 안에서 영원법의 참여가 바로 자연법이다. 자연법의 제1 원리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라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는 성향, 종족을 보존하려는 성향, 신에 대해 알고자 하는 성향, 사회적 삶을 영위하려는 성향에 의해 구체화된다.

- ① 자연법은 인간의 성향에 근거한다는 이유에서 가변적이다.
- ② 실정법과 자연법은 영원불변의 질서인 영원법에 근거해야 한다.
- ③ 신앙과 이성의 영역은 서로 구분되기 때문에 양립할 수 없다.
- ④ 인간의 궁극적 목적으로서 최고의 행복은 현세에서만 가능하다.
- ⑤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자연법은 이성으로 인식할 수 없다.

2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6~7] 갑, 을은 한국 유교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이(理)는 기(氣)를 주재하는 장수와 같으며, 기는 이의 주재를 받는 줄병과 같다. 사단(四端)은 이가 발하고 기가 따른 것이며, 칠정(七情)은 기가 발하고 이가 탄 것이다.
 을: 사단이다 칠정이다 말하는 것은 오로지 이만을 말하는 것과 이와 기를 아울러 말하는 것의 차이에 기인한다. 사단은 칠정을 겸할 수 없으나 칠정은 사단을 겸할 수 있다.

6.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갑: 이는 순선하기에 기가 따르지 않아도 사단으로 드러난다.
 ㄴ. 갑: 사단은 선한 이치[理]이고 칠정은 선악이 섞인 감정이다.
 ㄷ. 을: 도덕 감정과 일반 감정은 동일한 연원에서 유래한다.
 ㄹ. 갑, 을: 마음과 몸을 주재하는 공부로서 경(敬)을 실천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7.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가 갑, 을 모두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늘[天]이 나에게 성(性)을 부여할 때 선(善)을 좋아하는 감정과 함께 선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사람의 성이 선을 행하기를 좋아함은 마치 물의 성이 아래로 흘러가기를 좋아하는 것과 같다. 하늘이 이 성을 부여하였으니, 온갖 탐욕과 음란과 학살을 행하더라도 이 성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 ① 사덕(四德)은 성에 내재한 사단을 파악하는 단서임을 간과한다.
 ② 사덕이 형성되기 이전에는 사단이 존재하지 않음을 간과한다.
 ③ 형구(形龜)의 기호가 천부적으로 사단에 포함되어 있음을 간과한다.
 ④ 사덕은 선을 좋아하는 기호를 실천하여 형성되는 것임을 간과한다.
 ⑤ 영지(靈知)의 기호를 지닌 인간은 선을 행할 수밖에 없음을 간과한다.

8. 중국 불교 사상가 갑, 한국 불교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아는 것이 본래의 성품을 보는 것이니, 깨달으면 원래 차별이 없고 바로 최상의 지혜를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법(法)에는 단박에 깨달음만 있을 뿐 점차로 깨달음이 있을 수 없다.
 을: 자기의 본래 성품이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습기(習氣)는 갑자기 버리기 어렵다. 얼음 연못이 전부 물인 것을 알지만 별의 기운을 빌려야 녹여지는 것처럼 깨달음을 바탕으로 훈습(薰習)하고 닦아야 한다.

- ① 갑: 경전 공부를 거치지 않고서는 본성의 자각에 이를 수 없다.
 ② 갑: 마음의 직관을 통해 중생에게 불성(佛性)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을: 마음이 아닌 오직 말과 글로만 가르침을 전달할 수 있다.
 ④ 을: 오랫동안 쌓아 온 습기를 제거한 후에만 단박에 깨칠 수 있다.
 ⑤ 갑, 을: 선정(定)과 지혜(慧)를 통해 부처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9. 근대 서양 사상가 갑, 현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의무에 맞는 행위와 의무로부터 나온 행위 사이의 구별은 다음과 같은 점에 의거한다. 의무에 맞는 행위는 그 행위의 동기가 순전히 경향성일 때에도 가능하지만, 의무로부터 나온 행위는 오로지 도덕 법칙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을: 조건부 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가 있다. 예를 들면, 약속한 자와 약속받은 자, 부모와 자식, 친구와 친구의 관계가 조건부 의무를 부여한다. 그러나 조건부 의무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면 더 강한 의무가 우리의 실제 의무가 된다.

- ① 갑: 의무로부터 나온 행위는 결코 행복 증진에 기여하지 못한다.
 ② 갑: 의무로부터 나온 행위와 의무에 맞는 행위는 모두 자율적이다.
 ③ 을: 조건부 의무들은 서로 충돌하기 전까지는 실제 의무가 된다.
 ④ 을: 조건부 의무들이 충돌하는 상황이 달라지더라도 조건부 의무들 간의 우선순위는 불변한다.
 ⑤ 갑, 을: 인간이 따라야 할 절대적이고 단일한 옳은 의무가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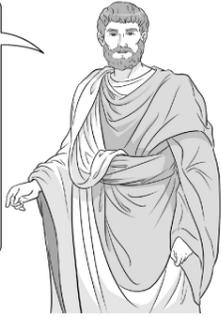
10. (가)의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p>갑: 강화(講和)가 이루어지면 사학(邪學)의 서적과 종교가 들어올 것이고, 사학이 온 나라에 퍼질 것이다. 이를 내버려 둔다면 예의는 시궁창에 빠지고 인간들은 금수가 될 것이니 사학을 배척해야[斥邪] 한다.</p> <p>을: 우리의 도는 무위이화(無爲而化)이다.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하고[守心正氣] 한울님의 성품을 거느리고 한울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자연스러운 가운데 조화가 나온다.</p> <p>병: 동양의 삼강과 오상, 효제충신은 오랑캐의 땅에서도 버릴 수 없는 도(道)이다. 예악과 형정, 복식과 기용은 수시로 변하는 기(器)이므로 서양의 것이라도 백성에게 이롭다면 사용할 수 있다.</p>
(나)	<p>〈범례〉 → : 비판의 방향 A~F : 비판의 내용</p> <p>〈예시〉 (갑) → (을) 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p>

- ① A: 만민 평등사상을 고취하여 외세에 대응해야 함을 간과한다.
 ② B, D: 고유 사상을 중심으로 모든 유교적 가치를 배척해야 함을 간과한다.
 ③ C: 사람이 곧 하늘임을 깨닫고 새 세상을 열어야 함을 간과한다.
 ④ E: 서양의 정신과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함을 간과한다.
 ⑤ F: 성리학적 가치와 서양의 기술은 조화될 수 없음을 간과한다.

11.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벌 같은 동물도 군집 생활을 합니다. 이에 비해 우리 인간은 고유한 언어 능력에 기초하여, 더 높은 차원의 공동체인 국가를 형성해 생활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에서 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 공동체는 어떤 목적을 추구합니다. 국가는 인간의 생존을 위해 존재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최고선을 위해 존속합니다. 누군가 국가를 떠나 홀로 자족하며 살 수 있다면 그는 신 혹은 야수일 것입니다.



- ① 인간 공동체들 중 국가만이 좋음을 추구할 수 있다.
- ② 인간의 물질적 자족을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 경우는 없다.
- ③ 국가가 형성된 후에만 인간은 언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 ④ 국가는 인간 공동체의 최선의 단계로서 최고의 좋음을 추구한다.
- ⑤ 인간은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본성이 없지만 행복의 실현을 위해 국가를 결성한다.

12. 고대 동양 사상이자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왕자(王者)가 되려면 예(禮)를 높이고 현자(賢者)를 존중해야 한다. 신뢰를 받으면 패자(覇者)가 되며, 이익을 좋아하고 거짓을 일삼으면 위태로워진다. 성왕이 제정한 예로써 백성을 다스리면[禮治] 조화롭게 살 수 있다.

을: 왕도(王道)는 모든 사람이 산 사람을 봉양하고 죽은 사람을 장사 지냄에 유감이 없도록 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교육에 힘써 효제의 도리를 가르친다면 반백의 노인들이 거리에서 짐을 지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 ① 인간은 사사로운 이익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가?
- ②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 인간을 선하게 만들어야 하는가?
- ③ 통치자는 하늘이 부여한 예로써 백성을 교화시켜야 하는가?
- ④ 통치자는 백성을 위해 도덕적인 공동체를 지향해야 하는가?
- ⑤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타고난 성(性)에 부합하는가?

13. 고대 동양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세상에 규제가 많을수록 백성은 가난해지고, 백성에게 세련된 도구가 많을수록 나라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머문다.

을: 자기의 신체나 손발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눈이나 귀의 움직임을 멈추고 형체가 있는 육체를 떠나 분별 작용을 버린다면 도(道)와 한 몸을 이루어 두루 통하게 된다. 이것이 좌망(坐忘)이다. 도는 오로지 텅 빈 곳에 모이는 법이다.

- ① 갑은 하늘과 땅이 자연의 도를 따르기에 어질다고[仁] 본다.
- ② 갑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도가 영원한 도[常道]라고 본다.
- ③ 을은 사람은 타고난 능력과 본성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본다.
- ④ 을은 절대 자유에 도달하기 위해 분별적 지식을 쌓아야 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인위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 하늘이 정해 준 예법을 따라야 한다고 본다.

14. 근대 서양 사상이자 갑, 을이 공통으로 지지할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쾌락의 총량과 고통의 총량을 합산해 보라. 차감한 값이 쾌락 쪽에 기운다면, 그것은 각 개인의 이익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행위의 좋은 경향을 제시하는 것이 될 것이다. 차감한 값이 고통 쪽에 기운다면, 전반적으로 행위의 나쁜 경향을 제시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을: 쾌락의 양과 질에 대해 똑같이 잘 알고, 그 둘을 똑같이 즐기고 음미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보다 높은 능력이 동원되어야 하는 특정한 삶의 방식을 훨씬 더 선호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짐승이 누리는 쾌락을 마음껏 즐기게 해 준다고 해서 짐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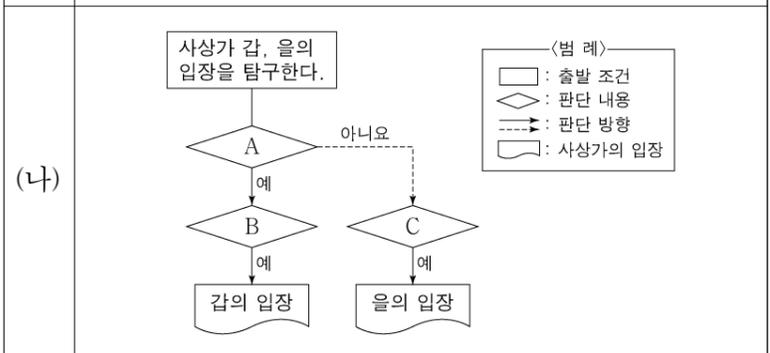
<보 기>

- ㄱ. 인간의 도덕적 의무는 유용성의 원리로부터 도출된다.
- ㄴ. 동기는 행위의 도덕적 가치를 평가하는 핵심 근거가 아니다.
- ㄷ. 교양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질적으로 고상한 쾌락을 선호한다.
- ㄹ.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은 모순될 수밖에 없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5. (가)의 사회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갑: 어떤 개념이나 원칙을 근거로 삼아 불가침의 영역을 확보하든지 간에 자유는 언제나 ‘~로부터의 자유’이다. 내 활동이 간섭받지 않는 상태가 자유의 핵심이다.
을: 노예의 주인이 관대한 사람이라도 주인은 여전히 노예를 지배한다. 자유와 노예 상태를 대조하는 것은 자유가 불가침이 아닌 비지배에 있다고 보는 근거가 된다.



<보 기>

- ㄱ. A: 간섭받지 않을 영역과 자유의 영역은 비례하는가?
- ㄴ. A: 자의적 지배에 의한 간섭은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 ㄷ. B: ‘~로부터의 자유’는 ‘~할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가?
- ㄹ. C: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법치(法治)가 필요한가?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16. 고대 서양 사사가 갑, 사회사사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이상 국가의 세 계층은 역할에 적합한 덕을 가지며, 선의 이데아에 대한 지혜를 갖춘 철인의 다스림을 받는다. 이 세 계층은 각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서로 조화를 이룬다.
 을: 이상 국가인 유토피아에서는 일하지 못하는 사람도 생계를 걱정할 일이 없다. 유토피아는 사치, 허영, 타락이 없으며 시민들은 덕과 정신적 쾌락을 추구한다.

- ① 갑: 방위자와 생산자는 모두 통치자의 지혜를 따라야 한다.
- ② 갑: 통치자는 후천적 교육이 아닌 선천적 소질에 따라 선발된다.
- ③ 을: 이상 국가는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지만 평등을 보장한다.
- ④ 을: 이상 국가의 시민은 노동하지 않고 교육과 학문에 집중한다.
- ⑤ 갑, 을: 이상 국가에서는 일부 구성원의 사유 재산이 허용된다.

17. 근대 서양 사사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이성으로 감정을 인식하는 것은 감정을 다스리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다. 모든 것은 신, 즉 자연의 본성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산출되며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감정은 없다.
 을: 이성은 인간이 야수보다 우월하다는 주된 근거이지만, 어떤 행동이나 감정을 직접 유발하지 않는다. 이성은 감정의 노예이고 노예여야 하며, 감정에게 봉사하고 복종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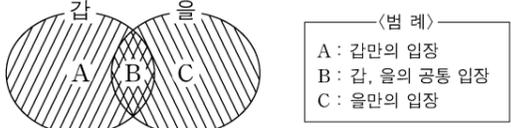
- ① 갑: 인간은 자유 의지가 없지만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 ② 갑: 신과 달리 인간은 필연적인 자연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 ③ 을: 선악은 쾌와 불쾌의 감정으로 느껴지는 객관적 실재이다.
- ④ 을: 이성은 선악 구별의 원천일 뿐 행위의 동기가 될 수 없다.
- ⑤ 갑, 을: 도덕적 판단과 행동의 근거는 이성이라기보다 감정이다.

18. 사회사사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인간의 고유한 삶의 방식인 노동은 본래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이어야 한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노동을 한낱 생존 수단으로 격하시킨다. 노동자는 상품만 생산하지 않고 노동자 자신을 일종의 상품으로 생산하는 것이다.
 을: 인간은 협력하지 않고 살 수 없다. 타인의 자비심이 아니라 자기에(self-love)에 대한 설득이 협력을 이끌어 내는 데 더 효과적이다.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것은 푸줏간과 빵집 주인의 자비심이 아니라 그들의 자기에 때문이다.

- ① 갑: 노동자의 해방이 인류 보편의 해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 ② 갑: 인간이 자유롭게 노동할 수 있는 이상 사회는 실현될 수 없다.
- ③ 을: 개인이 추구하는 이익들은 서로 자연스럽게 조화되지 않는다.
- ④ 을: 시장 경제 원리의 실현을 위해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해야 한다.
- ⑤ 갑, 을: 사적 소유제로 인간 사회의 공동 이익을 증진해야 한다.

19. (가)의 사회사사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진술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사회 계약으로 모든 사람은 각자 신체와 힘을 일반 의지의 지도 아래에 맡긴다. 주권을 지도할 수 있는 것 또한 일반 의지뿐이다. 을: 사회 계약의 목적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를 극복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사회 계약으로 성립된 리바이어던에게 복종해야 한다.
(나)	

<보 기>

ㄱ. A: 국가는 계약 주체들의 의지가 하나로 결합된 산물이다.
 ㄴ. B: 주권자는 법을 제정할 권한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
 ㄷ. B: 인민의 동의가 국가 형성의 근거이자 주권의 근거이다.
 ㄹ. C: 자연 상태의 인간은 사회 계약을 통해 생명권을 보장받는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20. 현대 서양 사사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자기에 대해 절망하고, 절망한 자신으로부터 탈피하려고 하는 것이 절망의 공식이다. 이러한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한 주체적 결단을 통해 무한한 실재성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을: 인간은 자유로우며 자유 그 자체이다. 바로 이것이 내가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는 말을 통해 표현하려는 것이다. 세상에 내던져진 이상 자신이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롭다.

<보 기>

ㄱ. 갑: 인간은 신의 존재 없이도 진정한 실존을 찾을 수 있다.
 ㄴ. 을: 인간의 본질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다.
 ㄷ. 을: 인간은 자유를 선택할 때에만 비로소 자유를 부여받게 된다.
 ㄹ. 갑, 을: 인간의 불안은 참된 실존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 (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 제 [] 선택

윤리와 사상

1. 다음은 고대 중국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무위자연(無爲自然)의 도(道)가 행해질 때는 모두 순수하고 소박하게 살아갑니다. 인위적인 덕 따위는 쓸 곳이 없습니다. 인(仁)과 의(義)는 자연의 도가 버려지면서 생겨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의(仁義)란 사람의 참된 본성이 아닙니다. 물오리의 짧은 다리를 길게 이어 주면 괴로워하듯이 인(仁)과 의(義)는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줄 뿐입니다.



- ①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의로움[義]을 쌓아야 한다.
- ② 인위적인 덕을 추구하지 않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야 한다.
- ③ 인(仁)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규범인 예(禮)를 실천해야 한다.
- ④ 연기(緣起)의 원리를 깨달아 못 생명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 ⑤ 악한 본성을 인위적으로 선하게 교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중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앎[知]과 실천[行] 공부는 모두 어느 한쪽을 없앨 수 없다. 이는 사람의 두 발이 서로 앞뒤로 번갈아 내디디야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것과 같다. 만일 한쪽 발이라도 온전하지 못하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것과 같다.
 을: 앎과 실천은 본래 하나의 공부일 뿐이다. 앎과 실천에 대한 옛사람의 말은 모두 앎 또는 실천 중 어느 한쪽의 공부에 치우침을 보충하고 그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다. 요즘 사람들이 두 가지 공부로 분명하게 나누는 것과는 다르다.

- ① 갑: 성인(聖人)이 되기 위해서 기질(氣質)을 바로잡아야 한다.
- ② 갑: 앎과 실천은 함께 나아가야 하되 선후와 경중(輕重)은 가려야 한다.
- ③ 을: 내 마음의 양지(良知)를 각 사물에서 온전히 실현해야 한다.
- ④ 을: 부모를 섬길 때 효의 이치[理]를 부모에게서 구해야 한다.
- ⑤ 갑과 을: 도덕적 본성[天理]을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해야 한다.

3. 고대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많은 아름다운 것은 가시적(可視的)이지만 가지적(可知的)이지는 않다. 그러나 아름다움 자체와 같은 이데아는 가지적이지만 가시적이지는 않다.
 을: 이성을 최대한 완성시키는 것에 인간의 최고 행복, 즉 지복(至福)이 놓여 있다. 지복은 신에 대한 직관적 인식에서 생기는 정신의 만족 외의 다른 어떤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 ① 갑: 욕망의 작용을 제거하는 것이 이성이 해야 할 역할이다.
- ② 갑: 사물과 이데아의 존재 방식은 같지만 인식 방법은 다르다.
- ③ 을: 자기 보존 욕망을 약화시키는 것이 이성이 해야 할 역할이다.
- ④ 을: 자연은 무한한 실체이고 자연 안의 사물들은 유한한 실체이다.
- ⑤ 갑과 을: 모든 존재의 근거가 되는 하나의 궁극적 원인이 있다.

4.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우리의 도(道)는 지금도 듣지 못하고 옛적에도 듣지 못하던 가르침이다. 수도(修道)하는 사람은 수심정기(守心正氣)하여 인의예지(仁義禮智)를 지켜야 한다.
 을: 우리는 일원상(一圓相)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있다. 공부하는 사람은 마땅히 일원의 참된 성품을 지키고 일원의 원만한 마음을 실행해야 한다.

<보 기>

- ㄱ. 갑: 모든 사람은 자신의 마음 안에 천주(天主)를 모시고 있다.
- ㄴ. 갑: 개혁(開闢)을 앞당기려면 서양 문물을 수용해야 한다.
- ㄷ. 을: 생활 속에서 평등과 자비의 정신을 실천해야 한다.
- ㄹ. 갑과 을: 인간 존중의 윤리가 실현되는 새로운 세상을 준비해야 한다.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5. (가)의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중세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자연을 따라가는 삶이 목적이고, 이것은 보편적인 법이 금지하는 그 어떤 행위도 행하지 않는 삶이다. 보편적인 법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성이고, 이성은 신과 동일한 것이다. 을: 이성적 피조물은 영원한 이성을 통해 그가 행해야 할 행위와 목적에 대한 자연적 경향성을 가지게 된다. 이성적 피조물이 영원법에 참여하는 것을 자연법이라고 부른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법 레> 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 </div>

<보 기>

- ㄱ. A: 인간의 도덕적 덕을 따르는 행위는 자연법을 따르는 행위이기도 하다.
- ㄴ. B: 자연법을 이해한다면 신이 정한 질서를 이해할 수 있다.
- ㄷ. B: 인간의 이성적 능력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행복이 인간 삶의 목적으로서 주어진다.
- ㄹ. C: 인간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신적 계시를 통해 주어진 법도 있다.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2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6. 다음을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귀한 손님이 대문 앞에 왔을 때 공경하면서도 마중을 나가지 않는다면, 그 공경하는 마음만으로는 예(禮)라 할 수 없다. 착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을 보고 부당하다고 여기면서도 시비(是非)에 대한 태도가 분명하지 못하다면, 그 부당하다고 여기는 마음만으로는 지(智)라 할 수 없다.

- ① 영지(靈知)의 기호(嗜好)는 인간과 동물 모두에 부여된 본성이다.
- ② 인간의 본성을 이치가 아닌 기호(嗜好)의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
- ③ 불의를 부끄러워하는 마음의 기호(嗜好)를 교정하여 의(義)를 형성해야 한다.
- ④ 사양지심과 시비지심을 실천하여 선천적인 성(性)으로서의 예(禮)와 지(智)를 회복해야 한다.
- ⑤ 인간은 자주지권(自主之權)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선행의 공적은 그 행위자에게 주어질 수 없다.

7. 고대 중국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제도[政]로 인도하고 형벌[刑]로 다스리면 백성은 형벌을 피하려고만 하고 부끄러움도 모르게 될 것이다. 덕(德)으로 인도하고 예(禮)로 다스리면 백성은 부끄러움도 알고 스스로 바르게 될 것이다.

을: 사람에게는 누구나 남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不忍人之心]이 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하면 천하를 마치 손바닥 위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쉽게 다스릴 수 있다.

병: 예의(禮義)는 다스림의 시작이다. 예는 본성을 바로잡고, 나라를 다스리는 규범이며, 강하고 굳세지는 근본이며, 위세를 펴는 길이며, 공적과 명성을 올리는 요체이다.

- ① 갑: 군주는 덕에 의한 통치보다 형벌에 의한 통치를 중시해야 한다.
- ② 을: 왕도 정치를 하려면 사직(社稷)을 백성보다 중시해야 한다.
- ③ 병: 외면적 규범인 예(禮)를 통해 인간 본성을 교화해야 한다.
- ④ 갑과 을: 군주가 백성을 근본으로 삼는 정치를 저버려도 군주를 교체할 수 없다.
- ⑤ 을과 병: 백성의 선한 본성을 확충하려면 사회 제도가 갖춰져야 한다.

8. 다음을 주장한 한국 불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돈오(頓悟)와 점수(漸修)는 모든 성인(聖人)이 밟아온 길이다. 과거의 모든 성인은 먼저 깨치고[先悟] 뒤에 닦아 나아갔고[後修], 그 닦음에 의해 깨달음을 얻었다[證].

○ 비록 뒤에 닦는다고는 하지만 이미 망념(妄念)은 본래 없고 심성(心性)은 본래 청정한 것임을 먼저 돈오했기 때문에, 악을 끊되 끊었다는 생각이 없고 선을 닦되 선을 닦는다는 생각이 없으니, 이러한 닦음이 참다운 닦음[眞修]이다.

- ① 마음의 본체가 정(定)이고 마음의 작용이 혜(慧)이다.
- ② 정혜쌍수(定慧雙修)는 돈오에 이르기 위한 수행 방법이다.
- ③ 참다운 닦음이 되기 위해서는 돈오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 ④ 돈오 이후에도 습기(習氣)를 제거하기 위해 점진적 수행이 필요하다.
- ⑤ 돈오란 자신의 마음이 본래 부처의 마음임을 단박에 깨치는 것이다.

9. 고대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있다고, 있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있지 않다고 하는 척도이다. 각각의 것들은 내게 나타나는 그대로 내게 있고, 당신에게는 당신에게 나타나는 그대로 있다.

을: 사람들이 정념과 이성의 싸움을 말할 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엄밀하지도 않고 철학적이지도 않다. 이성(理性)은 정념(情念)의 노예이고 또 노예일 뿐이어야 하며, 정념에 봉사하고 복종하는 것 외에 결코 어떤 직무도 탐낼 수 없다.

—<보 기>—

- ㄱ. 갑: 인간의 감각적 경험을 초월한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 ㄴ. 을: 사회적 지인(是認)의 감정은 인간의 공감 능력에 근거한다.
- ㄷ. 을: 감정뿐만 아니라 이성도 단독으로 도덕적 실천의 동기를 유발한다.
- ㄹ. 갑과 을: 덕과 악덕의 구별은 주관적이지 않고 보편적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p>갑: 인간은 자연 상태를 보존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것을 방해하는 힘이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개인은 사회 계약을 맺음으로써 일반 의지의 지배하에 이전과 다름없이 자유를 잃지 않게 된다.</p> <p>을: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 그런데 각자가 자연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력을 포기하여 그것을 공동체에 양도하는 곳에서만 시민 사회가 존재하게 된다.</p> <p>병: 경쟁심, 불신, 영광에 대한 욕구가 인간들 사이의 분쟁 원인이 된다. 따라서 모든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공통의 힘이 없는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 놓이게 된다.</p>
(나)	<p>〈범례〉 → : 비판의 방향 A~F : 비판의 내용</p> <p>〈예시〉 ⊙갑 → A → ⊙을 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p>

- ① A: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 집행권은 모두에게 있음을 간과한다.
- ② B, D: 불법은 공통 권력이 존재할 때만 성립 가능함을 간과한다.
- ③ C: 자연 상태에서 분쟁하는 인간에게도 자연권이 있음을 간과한다.
- ④ E: 자기 보존을 위한 적극적 권리가 사회 계약에 의해 제한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 ⑤ F: 자유를 억압하는 제도가 사회 계약의 계기가 됨을 간과한다.

11.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육체에 고통이 없고 영혼에 불안이 없는 평온함이 삶의 목적입니다. 쾌락은 축복받은 삶의 시작이고 목적입니다. 쾌락은 우리의 본성에 박힌 일차적인 좋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각의 쾌락을 모두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쾌락으로부터 오히려 더 많은 불편함이 뒤따를 때 우리는 그런 쾌락을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견뎌낼 때 장기적으로 더 큰 쾌락이 뒤따른다면, 우리는 그 고통이 지금 당장의 쾌락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보 기>

- ㄱ. 어떤 욕구가 자연적이라면 그 욕구의 충족은 필수적이다.
- ㄴ. 정치 공동체에 참여할 필요는 없지만 정의로운 인간관계는 필요하다.
- ㄷ. 인간의 본성과 상관없는 믿음으로부터 파생된 욕구를 경계해야 한다.
- ㄹ. 어떤 것이 좋음의 가치를 지닌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2. (가)의 한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칠정과 사단을 이(理)와 기(氣)에 대응시키면 칠정과 기(氣)의 관계는 사단과 이(理)의 관계와 같다. 칠정과 사단은 발현함에 각각 혈맥이 있고 그 명칭에 각각 가리키는 바가 있다.</p> <p>을: 사단을 칠정에 대응시키면 측은지심은 애(愛)에 속하고 수오지심은 오(惡)에 속하니, 칠정 이외에 사단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p> <pre> graph TD A{A} -- 아니오 --> C{C} A -- 예 --> B{B} B -- 예 --> G[갑의 입장] C -- 예 --> E[을의 입장] </pre> <p style="text-align: right;"> <범례> : 출발 조건 : 판단 내용 : 판단 방향 : 사상가의 입장 </p> </div>

<보 기>

- ㄱ. A: 사단과 칠정은 모두 성(性)에서 발현한 정(情)인가?
- ㄴ. A: 사단은 칠정 중에서 선하게 드러난 감정보다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는가?
- ㄷ. B: 칠정 중에서 선하게 드러난 감정은 사덕의 단서[端]로 볼 수 있는가?
- ㄹ. C: 이와 기는 각각 주재성과 운동성 중에서 어느 하나만 가지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무릇 어떤 것이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라면, 그것이 도덕 법칙에 알맞은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것은 또한 도덕 법칙을 위하여 일어난 것이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저 알맞음은 매우 우연적이고 불안정한 것일 뿐이다. 왜냐하면 도덕과 무관한 근거는 때로는 법칙에 들어맞는 행위들을 불러일으키지만, 더 자주 법칙에 위배되는 행위들을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보 기>

- ㄱ. 이성적인 존재는 자연 법칙의 지배를 거부하고 도덕 법칙에만 스스로 복종해야 한다.
- ㄴ. 선의지에서 비롯되지 않은 도덕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 ㄷ. 행위가 도덕 법칙에 들어맞으려면 그 행위는 도덕적이어야만 한다.
- ㄹ. 보편화 가능한 준칙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공리의 원리는 이해 당사자의 행복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경향에 따라서 각각의 행동을 승인하거나 불승인하는 원리를 의미한다. 쾌락 총량의 최대화를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삼아야 한다.

을: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더 바람직하고 더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공리의 원리와 양립할 수 있다. 쾌락을 평가할 때에는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해야 한다.

- ① 갑: 인간은 쾌락과 고통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한다.
- ② 갑: 쾌락과 고통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
- ③ 을: 인간은 쾌락의 질적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
- ④ 을: 쾌락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가치의 차이가 있다.
- ⑤ 갑과 을: 사회 전체의 이익은 개인들의 이익의 총합을 의미한다.

15. 근대 서양 사상가 갑, 현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인간의 지식이 곧 인간의 힘이다. 인간은 자연의 행위자 및 자연의 해석자로서 자연의 질서에 대해 실제로 관찰한 만큼만을 행위할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다.

을: 하나의 목적은 결과가 올바른 것으로 확정되기까지는 단지 가설로서만 여겨져야 한다. 실수를 통해 얻은 교훈으로 목적은 성장한다. 도덕적 삶은 유연하고 생생하며 성장하는 것이다.

- ① 갑: 삼단 논법이 아니라 참된 귀납법으로 자연을 탐구해야 한다.
- ② 갑: 자연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기 위해 선입견을 없애야 한다.
- ③ 을: 이론은 문제 해결 도구로서 유용할 때 가치를 지닌다.
- ④ 을: 한 번 문제를 해결한 가설은 문제 상황이 변해도 언제나 참된 가치를 지닌다.
- ⑤ 갑과 을: 기존 이론에 안주하지 않고 탐구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4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16.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비구들이여, 괴로움[苦] · 괴로움의 원인[集] · 괴로움의 소멸[滅] ·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道]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가 있느니라.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는 과거에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법이니 마땅히 바르게 사유하라. 그러면 그때 지혜[慧], 밝음[明], 깨달음[覺]이 생길 것이다.

<보 기>

- ㄱ. 무명(無明)이 소멸하더라도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
- ㄴ. 색(色)은 무상하지만 행(行)과 식(識)은 항상 불변한다.
- ㄷ. 팔정도(八正道)를 닦으면 누구나 열반에 이를 수 있다.
- ㄹ. 자아에 대한 집착을 끊고, 탐·진·치(貪瞋癡)를 없애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현대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세상에서 최악의 주인을 섬기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좋고 친절한 주인을 섬기는 사람 또한 노예이다. 어떤 간섭도 받지 않는 노예조차 자유를 누리지 못하므로 자유는 단지 간섭의 부재가 아니라 지배의 부재를 의미한다.
 을: 우리의 본성을 타락시키거나 부인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닌 한, 개인적 자유의 최소한은 지켜져야 한다. 이러한 최소한의 자유의 영역을 구획할 때 옹호되는 자유는 언제나 ‘~로부터의 자유’이다.

- ① 갑: 간섭이 없는 지배는 시민의 진정한 자유를 보장할 수 없다.
- ② 갑: 합당한 법의 간섭은 비지배로서의 자유 실현을 막지 않는다.
- ③ 을: ‘~을 향한 자유의 실현 노력은 개인적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
- ④ 을: 좋은 의도의 합리적인 간섭은 항상 소극적 자유를 실현시킨다.
- ⑤ 갑과 을: 자유의 실현을 위해 자의적 간섭이 배제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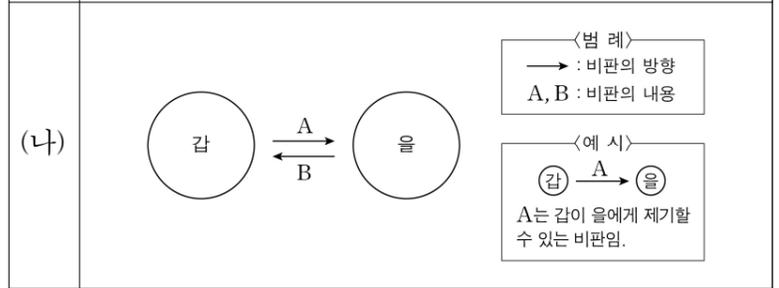
18. 갑, 을은 고대 서양 사상가들이고, 병은 중세 서양 사상가이다. 갑, 을, 병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다른 사람들은 본인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나는 그들보다 조금 더 지혜롭다고 추론한다.
 을: 인간의 고유한 기능이 영양 섭취를 통한 성장이나 감각 활동이 아니라 이성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라고 상정할 수 있다면, 행복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일 것이다.
 병: 신은 인간의 최고선이고, 최고선을 추구하는 것이 좋은 삶이다. 따라서 좋은 삶은 온 가슴과 온 영혼과 온 정신으로 신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니다.

- ① 갑: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덕의 개념은 없다.
- ② 을: 행복해지기 위해 최고선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 ③ 병: 신은 인간이 악을 행할 가능성을 차단하지 않는다.
- ④ 갑과 을: 자신한테 해로운 행위인 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은 없다.
- ⑤ 을과 병: 궁극적으로 좋은 삶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 실현될 수 없다.

19.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갑: 정부가 낡은 병에 지폐를 채워 폐광에 묻고 자유방임의 원리에 입각해 기업들로 하여금 그 지폐를 다시 파내게 한다면 실업은 사라질 것이다. 또한 그 파급 효과로 실질 소득과 부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을: 경제적 자유주의는 경쟁보다 더 열등한 방법들이 경쟁을 대체하는 것을 반대한다. 경쟁은 권력의 강제적이고도 자의적인 간섭 없이도 우리의 행위들이 서로 조정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월하다.



- ① A: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경제적 자율성을 보장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② A: 자유 경쟁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원리가 될 수 없음을 간과한다.
- ③ A: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완전 고용을 추구하고 함을 간과한다.
- ④ B: 법에는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돕는 기능이 있음을 간과한다.
- ⑤ B: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모든 역할은 경쟁의 유익한 작동을 저해함을 간과한다.

20. 사회사상 (가), (나)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가) ‘인민’과 ‘지배’라는 용어의 분명한 의미가 무엇이건 간에, 민주주의는 인민이 실제로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또한 의미할 수도 없다. 민주주의는 다만 인민이 그들을 지배할 사람들을 승인하거나 또는 부인할 기회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할 따름이다.
 (나) 사려 깊은 선호란 시민들이 성찰을 통해 다양한 관점들과 자신의 관점을 의식적으로 대면시켜 변화시킨 결과물로서의 선호를 뜻한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개방적이고 공적인 대화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이러한 사려 깊음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 ① (가): 민주주의에서 엘리트의 정치적 의사 결정은 대중의 의견을 대표하므로 충동적이지 않다.
- ② (가): 민주주의에서 통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은 국민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 ③ (나): 민주주의에서 정책 심의는 선출된 권력의 독점 영역이다.
- ④ (나): 민주주의에서 공공선은 개인의 고정된 선호의 총합이다.
- ⑤ (가)와 (나): 민주주의에서 정치 참여는 엘리트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과정에 불과하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 (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제 [] 선택

윤리와 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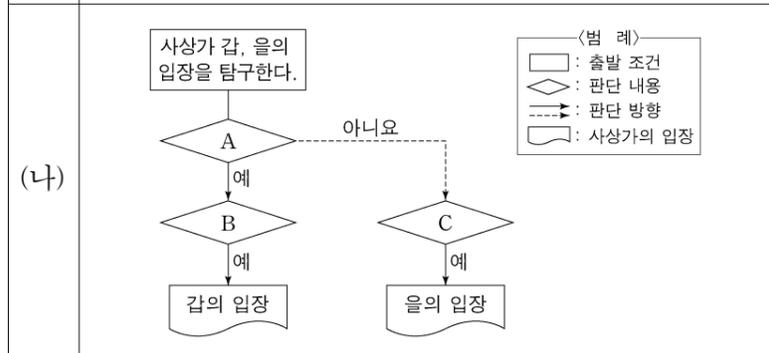
1. 다음 가상 편지를 쓴 고대 동양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랑스러운 제자 ○○님께
 지난 번 편지에서 질문한 인간다움의 본질인 인(仁)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는 서(恕)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토대로 타인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방법과 자신이 이루고자 하면 타인도 이루게 해 주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 ①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서 사회 공동체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 ② 모든 분별적 인식에서 벗어나 만물을 차별 없이 응대해야 한다.
- ③ 겸허와 부쟁(不爭)의 덕을 지니고 무위자연의 삶을 지향해야 한다.
- ④ 사성제(四聖諦)를 깨달아 열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⑤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私欲)을 극복하여 예(禮)를 회복해야 한다.

2. (가)의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쾌락에 탐닉하여 쾌락에 굴복하는 것이 가장 큰 무지이다. 어느 누구도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행하지 않는다. 덕은 일종의 삶이다.
 을: 부나 군중으로부터의 명예를 소유함에 의해서도, 한없는 욕구로부터 생기는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몸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은 끝나지 않는다.



<보 기>
 가. A: 덕은 그 자체가 목적으로서 본래적 가치를 지니는가?
 나. B: 정의로운 사람은 행복하지만 부의덕없는 사람은 불행한가?
 다. C: 자연적인 욕구의 충족이 쾌락의 증대를 보장하는가?
 라. C: 이성(이성)은 운명이 주는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게 하는가?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3. 중세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세상 모든 것은 영원법에 의해 지배되는데, 인간은 다른 피조물보다 신의 섭리에 더 뛰어난 방식으로 순종한다. 이성적 피조물이 영원법에 참여하는 것이 자연법이다.
 을: 실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실체의 본성에서 나오지만, 삼각형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것의 본성이 아니라 자연 질서에서 나온다. 따라서 양태는 실체가 없다면 존재할 수 없다.

- ① 갑: 실정법이 자연법에 위배되어도 다수의 이익을 위하여 정당하다.
- ② 갑: 이성이 선으로 인식한 자기 보존의 성향을 따르는 행위는 옳다.
- ③ 을: 하나의 실체는 다른 실체에서 필연적으로 산출될 수밖에 없다.
- ④ 을: 존재하기 위해 다른 것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것은 없다.
- ⑤ 갑과 을: 세상의 모든 존재는 신이 계획한 목적을 위하여 움직인다.

4.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도(道)는 두루 통(通)하여 만물과 하나를 이룬다. 따라서 흠어짐은 곧 이룸이며 이룸은 곧 어그러짐이다. 진인(真人)은 만물이 통하여 하나임을 알아 그 자연스런 쓰임에 맡겨 둔다.
 을: 도는 낱고 덕(德)은 기르니, 만물이 나타나서 형세(勢)로써 완성된다. 따라서 도를 높이고 덕을 귀하게 여김은 명령하지 않아도 늘 스스로 그러하다[自然].

<보 기>
 가. 갑: 타고난 본성을 극복하지 못하면 물아일체에 도달할 수 없다.
 나. 을: 제물(齊物)을 통하여 정신의 절대적 자유에 도달한다.
 다. 을: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으며 성인(聖人)도 어질지 않다.
 라. 갑과 을: 도는 만물을 생성하는 근원이면서 만물에 내재한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5.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이 진리는 명석판명한 것이다. 나는 이것을 내가 찾고 있던 철학의 제1원리로 거리낌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을: 이성은 정념의 노예이다. 도덕성이 오직 이성의 영역을 통해서만 발견된다고 우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러므로 도덕적 구별은 이성의 산물이 아니다.

- ① 갑: 더 이상의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명한 진리는 없다.
- ② 갑: 방법적 회의는 사유하는 '나'라는 존재의 확실성에서 출발한다.
- ③ 을: 유용성은 도덕감의 근원으로 타인과 관련해서만 고려된다.
- ④ 을: 이성은 도덕적 구별의 원천이 아니지만 정념을 좌우해야 한다.
- ⑤ 갑과 을: 인간의 이성은 추론적 사유와 진위 판단 능력을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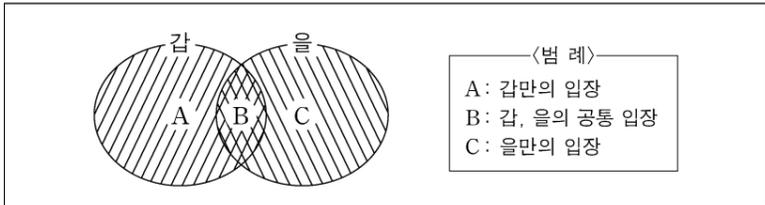
2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6~7] 갑, 을은 한국 유교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이(理)의 본연의 본체[體]는 감정이나 의지[情意]도 없고 조작도 없다. 이의 지극히 신묘한 작용[用]은 발(發)하여 이르지 아니함이 없다.
 을: 이는 무형하고 기(氣)는 유형하므로 이는 통하고 기는 국한된다. 이는 무위(無爲)하고 기는 유위(有爲)하므로 기가 발하면 이가 탄다.

6. 갑, 을의 입장을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기>
 ㄱ. A: 이와 기 중에서 주재성을 지니면서 발할 수 있는 것이 있다.
 ㄴ. B: 칠정 중에서 선함과 사단 사이에 도덕적 우열을 가릴 수 있다.
 ㄷ. B: 이는 본래 하나의 태극(太極)이지만 만물도 각각 동일한 하나의 태극을 지니고 있다.
 ㄹ. C: 주된 배(所主)가 이에 있는가, 기에 있는가에 따라 사단과 칠정을 구별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다음을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가 갑, 을 모두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린 아이가 우물로 기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측은해 하면서도 가서 구하지 않는다면 그 측은해 하는 마음만으로는 인(仁)이라 할 수 없다. 욕을 하거나 발로 차면서 밥을 줄 때, 이를 수오(羞惡)하면서도 거절하지 않는다면 그 수오하는 마음만으로는 의(義)라 할 수 없다.

- ① 모든 인간은 측은지심과 수오지심을 가지고 태어남을 간과한다.
 ② 시비지심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지(智)가 형성됨을 간과한다.
 ③ 인간의 선천적인 본성은 하늘이 부여한 명령(天命)임을 간과한다.
 ④ 인간과 동물의 본성은 영지의 기호라는 점에서 동일함을 간과한다.
 ⑤ 선을 지향하는 본성을 통해 자유 의지가 형성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8. 다음은 현대 사회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법은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고 오히려 지켜 줍니다. 법이 모든 시민을 똑같이 구속한다면 시민들을 타인들의 자의적 의지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법의 지배는 시민들을 자의적 의지에 예속되지 않도록 합니다.

아닙니다. 법은 언제나 일종의 사술입니다. 설령 자의적 독재의 사술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것이 법이라 하더라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유의 경계선은 국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경계선이 침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자유의 핵심입니다.



- ① 갑: 자유는 누군가에게 간섭받지 않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② 갑: 비지배의 자유는 비자의적 지배가 부재할 경우에도 성립한다.
 ③ 을: 자유의 경계선이 침범되지 않도록 ‘~을 향한 자유’가 실현되어야 한다.
 ④ 을: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의로운 제도도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⑤ 갑과 을: 공동체가 외부의 압제에서 벗어나면 개인의 자유도 보장된다.

9. 갑, 을은 근대 서양 사상가들이다. 을의 입장에서 갑의 입장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쾌락의 추구하고 고통의 회피는 입법자가 살펴보아야 할 목적이다. 그러므로 쾌락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무이다. 쾌락과 고통은 입법자가 지니고 작업해야 하는 도구이다.
 을: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것보다 더 바람직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공리주의 원리와 어긋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만족해 하는 돼지보다 불만족스러워하는 인간이 되는 것이 더 낫다.

- ① 이해 당사자들의 행복을 공평하게 고려해야 함을 간과한다.
 ② 유용성이 행위의 도덕적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임을 간과한다.
 ③ 보편적 도덕 원리에 근거한 입법의 원칙을 세워야 함을 간과한다.
 ④ 쾌락을 평가하는 기준이 양으로만 한정될 수 없음을 간과한다.
 ⑤ 도덕적 평가의 근거는 규칙이 아니라 행위의 결과임을 간과한다.

10.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사회계약은 시민들 사이에 평등을 수립함으로써 그들을 동일한 계약 조건하에 놓이게 하며 동일한 권리를 향유하게 한다. 이 계약의 특성에 의해 일반 의지의 정당한 모든 행위는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의무와 권리를 부여한다.
 을: 사람들은 사회에 들어갈 때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평등, 자유 및 집행권을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의 수중에 양도한다. 그것은 오직 그 자신, 그의 자유 및 재산을 더욱 잘 보존하려는 의도에서 행하는 것이다.

- ① 갑: 주권은 일반 의지에 의해 성립하며 정부를 통해 대표된다.
 ② 갑: 일반 의지가 강요하는 복종은 시민의 자유와 양립할 수 없다.
 ③ 을: 국가의 기본이 되는 최초의 실정법은 입법권을 확립하는 것이다.
 ④ 을: 자연 상태에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복은 자연법에 의해 불가하다.
 ⑤ 갑과 을: 개인은 사회계약을 통하지 않고서는 자유나 권리를 가질 수 없다.

11. 고대 서양 사상이자 갑, 중세 서양 사상이자 을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갑: 우주의 본성을 따라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수동적으로 인내하라. 또한 너의 본성이 네 자신에게 행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능동적으로 행하라.
 을: 신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가 있는 것은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과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신을 따르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따른다.

- ① 갑: 자연의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일은 인간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 ② 갑: 사건 자체는 바꿀 수 없지만 사건에 대한 생각은 바꿀 수 있다.
- ③ 을: 악이 선보다 먼저 실재하지 않았다면 선은 없었을 것이다.
- ④ 을: 인류의 역사는 신이 주는 선과 인간이 만든 악의 투쟁이다.
- ⑤ 갑과 을: 세상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궁극적인 원인이 있다.

12. 고대 서양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선(善) 자체는 인식의 원인으로 인식되는 것들에 진리를 제공하고 인식하는 자에게 그 힘을 제공한다. 통치자는 선 자체를 본보기로 삼고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을: 모든 선에 공통되는 하나의 선 자체란 있을 수 없다. 건축가가 선 자체를 안다고 자신의 기술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실 세계에서 실현 가능한 선이 중요하다.

- ① 갑: 선 자체는 인식의 원인이므로 인식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 ② 갑: 이성이 파악하는 대상과 감각이 파악하는 대상은 동일하다.
- ③ 을: 선은 인간이 지향하는 가치이자 사물이 갖는 가치가 될 수 있다.
- ④ 을: 모든 선한 것들을 선하게 만드는 근거는 선 자체이다.
- ⑤ 갑과 을: 선 자체는 감각으로 지각되지 않는 세계에 존재한다.

13.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3점]

서술형 평가

㉠ 문제: 동양 불교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갑: 여러 가지 인연으로 생긴 법(法)을 공(空)이라 하며, 가명(假名)이라고도 하며, 중도(中道)라고도 한다. 어떤 한 가지 법도 인연으로부터 생기지 않는 것이 없으니 모든 법이 공 아닌 것이 없다.
 을: 오직 마음만이 존재할 뿐[唯識] 그 대상은 실재하지 않는다[無境]. 세속인은 허망한 분별의 잠에 빠져서 실재하지 않는 대상을 보면서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 한, 그것이 실재하지 않음을 여실하게 알지 못한다.

㉡ 학생 답안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 모든 사물은 독자적인 고유한 성질[自性]을 가진다고 보고, ㉡ 해탈하기 위해서는 있음[有]이나 없음[無]이라는 두 극단에 치우친 견해에서 벗어나 중도의 진리를 바르게 관찰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을은 ㉢ 모든 현상은 마음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오로지 마음의 작용을 통해서만 존재한다고 보고, ㉣ 해탈하기 위해서는 자기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릇된 마음에서 벗어나, 모든 진리를 통찰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한다고 본다. 한편 갑, 을은 모두 ㉤ 모든 현상은 다양한 원인[因]과 조건[緣]의 화합에 의해 발생한다고 본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14.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의지의 자율과 양립할 수 있는 행위는 허용되지만, 그렇지 못한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의지의 준칙들이 자율의 법칙들과 필연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그 의지는 신성하고 절대적으로 선한 의지이다. 절대적으로 선하지는 않은 의지가 자율의 원리에 의존하는 것은 구속성이다. 따라서 이 구속성은 신성한 존재와 관련될 수 없다. 이 구속성에서 비롯한 행위의 객관적 필연성을 의무라 부른다.

—<보 기>—

ㄱ. 선의지를 함유하지 않은 도덕적 의무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
 ㄴ. 보편화 가능한 준칙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부정되는 경우는 없다.
 ㄷ. 도덕적 의무는 의지를 지니는 모든 존재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ㄹ. 도덕 법칙의 내적 강제에서 생긴 준칙은 자율성에 어긋나지 않는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15. (가)의 현대 사회사상이자 갑과 을, 사회사상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갑: 국가는 부분적으로 조세 정책을 통하거나 이자율을 정하는 것 또는 그 밖의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소비 성향에 대해 지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을: 경제 활동에서 경쟁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계획과 경쟁은 '경쟁에 반하는 계획'이 아니라 '경쟁을 위한 계획'이라는 형태로만 결합될 수 있다.
 병: 우리는 자본주의적 계획이나 모든 형태의 전체주의적 계획에 반대한다. 그 이유는 이 두 계획이 생산의 공적 통제와 그 결과의 공정한 분배를 배제하기 때문이다.

(나)

- ① A: 공익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투자의 사회화는 거부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 ② B, E: 경쟁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 창출될 수 없는 경우에도 정부의 규제는 부당함을 간과한다.
- ③ C: 국가는 사회주의적 계획화를 통해 완전 고용에 힘써야 함을 간과한다.
- ④ D: 시장이 통제에서 벗어나면 생산 수단의 국유화가 필요함을 간과한다.
- ⑤ F: 사적 이윤보다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정부 기능을 확대해야 함을 간과한다.

4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16. 중국 불교 사상가 갑, 한국 불교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자성(自性)에는 그림도 어리석음도 어지러움도 없으니 생각
 마다 반야로 관조하여 법상(法相)을 떠나야 한다. 스스로
 자성을 깨쳐 돈오돈수(頓悟頓修)하니 점차(漸次)가 없다.
 을: 자성을 깨달은 뒤에도 닦아서 무위(無爲)에 이르러야 궁극적
 경지라고 할 수 있다. 깨달은 뒤에 '소를 기르는 수행[牧牛行]'을
 하는 것도 이런 이유이다.

- ① 갑: 마음 밖의 부처를 단박에 직관하는 것이 돈오이다.
- ② 갑: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불성(佛性)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이다.
- ③ 을: 선정[定]과 지혜[慧]를 닦을 때 선후의 구분이 필수적이다.
- ④ 을: 오랫동안 누적된 습기(習氣)는 돈오하더라도 바로 제거되지 않는다.
- ⑤ 갑과 을: 깨달음의 완성에 도달하기 위한 수행 과정에서 경전의 가르침은 불필요하다.

17.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현존재의 참된 모습은 그의 실존에 있다. 실존하는 존재자를
 가리키는 '현존재'라는 이 명칭은 책상, 집, 나무와 같이
 어떤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존재'를 표현하고 있다.
 을: 도덕적 선과 목적은 어떤 것을 해결해야 할 때에만 존재
 한다. 악은 실제로 존재하는 특정한 악이므로, 교정해야
 하는 그 결함과 곤란함을 토대로 삼아 상황의 선을 발견
 하고 계획하고 획득해야 한다.

- ① 갑: 존재의 의미에 대해 물을 수 있는 특별한 존재자는 인간이다.
- ② 갑: 죽음에 대한 불안을 통해 현존재는 보편적 본질을 완성한다.
- ③ 을: 실험을 통해 검증된 가설은 상황이 변해도 항상 유효하다.
- ④ 을: 악을 개선하는 지식은 절대적인 목적을 위한 도구가 된다.
- ⑤ 갑과 을: 이성 중심의 객관적인 합리성의 전통을 계승해야 한다.

18. 중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치지(致知)의 치(致)는 최대의 확충함이고, 지(知)는 지식과
 같다. 따라서 치지는 나의 지식을 최대의 확충하여 그
 지식이 도달하지 않은 곳이 없도록 함이다.
 을: 치지는 다른 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식을 확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마음의 양지(良知)를 사물마다 온전하게
 실현하는 것이다.

<보 기>

ㄱ. 갑: 의념[意]이 향하는 대상[物]을 바로잡는 것이 격물이다.
 ㄴ. 을: 양지는 분리되어 있는 앎[知]과 실천[行]을 합일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다.
 ㄷ. 을: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감정인 본심(本心)을 따라야
 한다.
 ㄹ. 갑과 을: 격물은 마음 안의 이(理)의 보존을 지향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가)의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p>갑: 서양 물건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올바른 도(道)를 밝혀 백성을 교화하고 사단(四端)과 오상(五常)을 넓혀 나가야 한다. 우리 것이 흥성하면 저들 것이 사라지고 이쪽 것이 밝혀지면 저들은 달아날 것이다.</p> <p>을: 동양은 형이상에 밝아서 그 도(道)가 천하에 홀로 존귀하고, 서양은 형이하에 밝아서 그 기(器)는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다. 진실로 우리의 도를 일으킬 수 있다면 서양의 기를 행하는 것은 손바닥을 뒤집듯 쉽다.</p>
(나)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div style="margin-top: 10px;"> <p><범례> → : 비판의 방향 A, B : 비판의 내용</p> <p><예시> 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p> </div>

- ① A: 나라가 혼란할수록 유교의 인륜을 고수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② A: 살기 좋은 후천(後天) 세계가 현세에 반드시 도래함을 간과한다.
- ③ A: 모든 인간은 평등하므로 신분을 차별해서는 안 됨을 간과한다.
- ④ B: 부국강병을 실현하려면 서양의 기를 수용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⑤ B: 국제 정세를 파악하여 우리의 도를 변화시켜야 함을 간과한다.

20. 근대 사회사상가 갑, 현대 사회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국가는 비참한 전쟁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인간이 상호 신의계약을 체결하여 세운 하나의 인격이다. 이 국가는 모든 인간의 인격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의 권리를 부여받는다.
 을: 인민의 역할은 다름 아닌 정부를 탄생시키는 것이다. '인민'과 '통치'라는 용어의 의미가 무엇이건 간에, 민주주의는 인민이 실제로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또한 의미할 수도 없다.

- ① 갑: 대표자는 계약의 주체에게서 권한을 양도받은 대리인이다.
- ② 갑: 국가는 주권자와 시민들 간의 계약 체결로 인해 설립된다.
- ③ 을: 민주주의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서 추구할 이념이다.
- ④ 을: 시민이 지배하는 정부를 위해 시민의 승인은 반드시 필요하다.
- ⑤ 갑과 을: 국가의 대표자는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따라야 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 (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 제 () 선택

윤리와 사상

1. 다음 가상 대화의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스승님, 성인(聖人)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2 성스러움을 꾀고 지혜를 버려야 하며, 인(仁)을 꾀고 의(義)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네.

3 그렇군요. 그것 이외에도 해야 할 것이 더 있습니까?

4 소박함을 지향하고 질박함을 보존하며, 지식을 추구하지 말고 욕심을 버려야 한다네.

- ① 사악한 본성을 교화하여 욕심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② 인간의 도리를 중시하고 정명(正名)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
- ③ 인위적인 규범에서 벗어나 무지하고 무욕한 삶을 영위해야 한다.
- ④ 시비선악을 명확히 분별할 수 있도록 진리 탐구에 힘써야 한다.
- ⑤ 도(道)를 삶의 기준으로 삼아 물질문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2. 고대 서양 사사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정의로운 인간은 참된 의미에서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잘 조절하고 스스로 자신을 지배하고 통솔하며, 또한 자기 자신과도 화목함으로써 영혼의 세 부분인 이성, 기개, 욕망을 전체적으로 조화시킨다.

을: 행복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여러 선 중에서 최고의 선이다. 따라서 행복은 궁극적이고 자족적이며, 모든 행동의 목적이다. 무엇이 행복인지를 알려면 인간의 기능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 ① 갑: 정의로운 인간의 본질은 이상 국가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 ② 갑: 지혜는 이성의 탁월함으로 국가의 모든 계층에게 요구된다.
- ③ 을: 중용은 옳은 행위로 점차 나아가게 하는 실천적 지혜이다.
- ④ 을: 행복은 영혼의 욕구와 관련된 품성적 덕을 통해서만 실현된다.
- ⑤ 갑과 을: 인간은 이성적 능력의 발휘 없이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3. 고대 동양 사사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군자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정당함을 원칙으로 하고, 예(禮)에 따라 그것을 실행한다. 예에 어긋나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움직이지도 않는다.

을: 사람은 본래 욕구를 지니고, 욕구하는 바를 얻지 못하면 다투게 되며, 그래서 혼란스럽고 곤궁하게 된다. 이 때문에 선왕이 예의(禮義)를 제정하여 책무를 나누고 욕구를 만족시켰다.

- ① 갑: 도덕적 삶에 필수적인 예는 마땅한 기준을 따르는 것이다.
- ② 갑: 예의 실천에서는 내재된 덕성보다 형식적 절차가 중요하다.
- ③ 을: 백성은 선왕의 가르침에 따라 스스로 예법을 제정해야 한다.
- ④ 을: 타고난 도덕적 본성은 예법을 통해야만 보존되고 함양된다.
- ⑤ 갑과 을: 백성의 생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의 궁극적 목표이다.

4. 다음은 사회사사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불황은 기업의 투자 감소와 가계의 소비 감소에 따른 유휴 수요의 부족이 원인입니다. 정부는 국·공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 부족한 유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공공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불황은 기업의 과잉 투자에 따른 수익률 저하와 금리 상승에 따른 투자 감소가 원인입니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정책을 통해 시장의 자생적 질서에 개입하려는 것은 인간의 치명적 자만입니다.

갑 을

<보 기>

ㄱ. 갑: 정부는 경기 침체의 극복을 위해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

ㄴ. 을: 경쟁은 권력의 자의적 간섭 없이 경제 행위를 조정하는 방법이다.

ㄷ. 갑과 을: 정부는 계획 경제를 도입하여 시장 실패를 극복해야 한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5. 다음을 주장한 중세 서양 사사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자연적 이성의 빛은 자연법에 속하는 것인데, 이는 신의 빛이 우리에게 각인된 것이다. 따라서 자연법은 영원법에 대한 이성적인 피조물의 참여라는 것이 명백하다.

- ① 인간은 이성적 논증을 통해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 ② 신앙과 이성은 배타적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다.
- ③ 영원법에 기초한 자연법은 인간이 따라야 할 도덕 법칙이다.
- ④ 자연법의 제1원리는 인간의 자연적 성향에 의해 구체화된다.
- ⑤ 완전한 행복은 현세에서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누릴 수 있다.

2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6.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간은 처음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다. 그는 나중에야 비로소 무엇이 될 수 있고, 또 그 스스로 되고자 하는 존재를 만들어 가게 될 것이다.

을: 건강, 부, 배움과 마찬가지로 정직, 근면, 정의와 같은 도덕적 가치들도 정해진 목표를 표현하는 선이 아니다. 그것들은 움직이고 있는 방향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성장 자체가 도덕의 유일한 목적이다.

- ① 갑: 불안과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 절대자에게 의지해야 한다.
- ② 갑: 자유 그 자체를 선택해야만 자신의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
- ③ 을: 고정된 성과나 결과보다는 개선과 진보의 과정이 중요하다.
- ④ 을: 지성적 탐구 과정을 통해 불변하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 ⑤ 갑과 을: 합리적 추론으로 도출한 보편적인 윤리 규범을 따라야 한다.

7.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정념과 이성의 싸움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엄밀하지도 않고 철학적이지도 않다. 이성은 정념의 노예이고 또 노예일 뿐이어야 한다. 이성은 정념에 봉사하고 복종하는 것 외에 어떤 임무도 탐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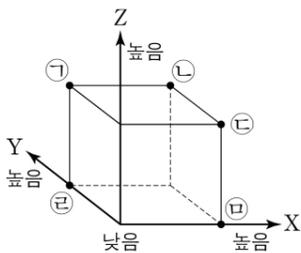
○ 우리가 생각하거나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인간의 행복이나 불행의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쾌락이나 불쾌의 공감적 움직임을 일으킨다.

- ① 이성은 도덕적 선악을 판별함으로써 정념에 봉사한다.
- ② 이성은 불쾌의 감정을 통제하여 정념의 안정에 기여한다.
- ③ 이성은 감정에 반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의욕할 수 있다.
- ④ 사적인 행복을 고려하는 경우에만 쾌락의 감정이 일어난다.
- 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하는 행위는 시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8. 갑, 을은 근대 서양 사상가들이다.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갑: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동안, 그것을 생각하는 나는 필연적으로 어떤 것이어야 한다는 것에 주목했다. 그리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진리는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임을 알아차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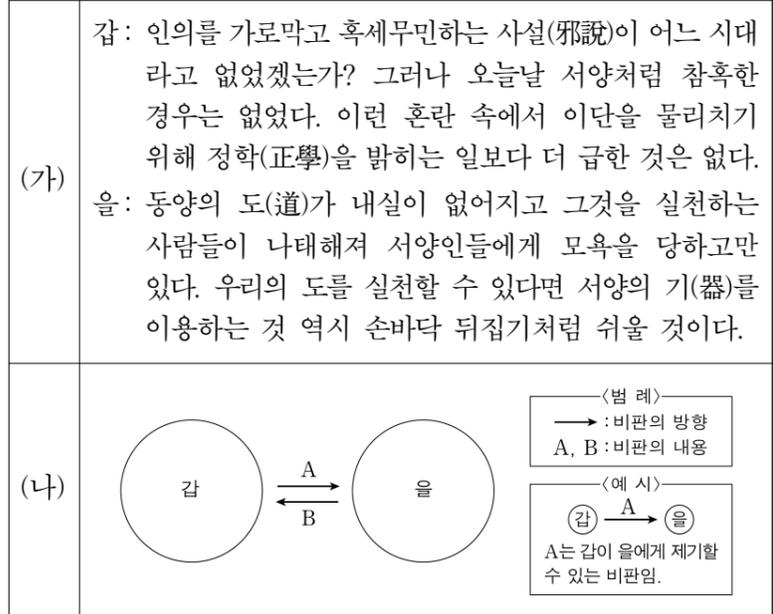
을: 인간의 지성을 사로잡는 이상에는 종족의 이상, 동굴의 이상, 시장의 이상, 극장의 이상이 있다. 이것들을 타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은 참된 귀납법으로 개념과 공리를 형성하는 것이다.



- X: 관찰과 실험을 통해 얻은 지식의 유용성을 강조하는 정도
- Y: 이성적 추론의 출발점으로 자명한 진리를 강조하는 정도
- Z: 개별 경험들로부터 일반적 원리의 도출을 강조하는 정도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9. (가)의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A: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바꿀 수 없는 도가 있음을 간과한다.
- ② A: 서양 문물이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③ B: 서양에 대항하려면 유교의 근본이념을 버려야 함을 간과한다.
- ④ B: 신분 차별을 없애고 남녀를 평등하게 여겨야 함을 간과한다.
- ⑤ B: 효제충신의 실천과 서양 기술의 활용이 공존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10.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이 공통으로 지지할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한쪽에서는 쾌락의 총량을, 다른 쪽에서는 고통의 총량을 합산해 보라. 만일 그 값이 쾌락 쪽에 기운다면, 그것을 개인들의 총수 또는 공동체와 관련지을 때 일반적으로 좋은 경향을 제시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을: ‘최대 행복 원리’를 따를 경우, 우리는 자신과 타인의 이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때 가능한 한 고통이 없고 또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최대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상태에 이르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다.

<보 기>

- ㉠. 옳은 행위는 이해 당사자들의 행복을 최대로 증진하는 것이다.
- ㉡. 공리의 원리는 개인 행위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도 적용된다.
- ㉢. 쾌락에는 그 양의 많고 적음을 사소하게 만드는 질적 차이가 있다.
- ㉣. 사회 전체의 행복은 구성원 개개인의 행복 총합을 초과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11. (가)의 고대 동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마음[心]에서 언지 못하면 기(氣)에서 추구하지 않아야 한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의 말을 정확히 파악하고 호연지기를 잘 길러야 한다.
 을: 마음으로 듣지 말고, 기로 들어야 한다. 기는 텅 비어 사물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오직 도(道)만이 텅 비어 머무니, 텅 비게 하는 것이 심재(心齋)이다.

(나)

<보 기>
 ㄱ. A: 잃었던 마음(放心)을 되찾아 도덕적 인격을 완성해야 하는가?
 ㄴ. B: 의로운 행위를 쌓아서 도덕적 기개를 키워 나가야 하는가?
 ㄷ. C: 마음을 깨끗이 비워 물아일체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ㄹ. C: 기(氣)로써 듣는다면 세속적 얽매임에서 해방될 수 있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2.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근대 서양 사상이 갑이 <문제 상황> 속 A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을 서술하시오.

갑: 선의지는 그것이 실현되거나 성취한 것 때문에 또는 그것이 제시된 어떤 목적들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선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려고 한다'는 것 때문에 선한 것이다. 즉, 선의지는 그 자체로 선하다.

<문제 상황>
 '초거대 생성형 인공지능'은 정교한 답변을 빠르게 생성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지적 재산권의 문제, 허위 정보 생산 등의 위험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특징을 잘 알고 있는 연구자 A는 이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도덕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

㉡ 학생 답안
 갑 사상은 A에게 '초거대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 그 자체로 목적적 존재인 인간을 고려하고, ㉢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도덕 법칙에 따라야 함을 조언할 것이다. 또한 ㉡ 의무 의식에 위배되더라도 다수에게 도움이 된다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해야 하고, ㉣ 이 세상 안에서나 밖에서나 무제한적으로 선한 선의지에 따라 사용하라고 조언할 것이다. 그런데 ㉤ 의무가 문제시될 때에는 이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얻게 되는 자신의 행복을 고려하지 말라고 조언할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3.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평화를 창조하는 일은 폭력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치료해야 할 폭력은 폭력의 결과를 의도한 행위자가 있는 직접적 폭력이고, 예방해야 할 폭력은 그러한 행위자가 없는 구조적 폭력이다.
 을: 영원한 평화의 실현을 위한 국제법의 이념은 독립해 있는 많은 이웃 국가의 분립을 전제로 한다. 이 상태가 그 자체로 전지 상태에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지라도, 하나의 초강대국 아래로 여러 국가들이 통합되는 것보다 낫다.

- ① 갑: 비의도적인 폭력의 제거 없이도 적극적 평화가 완성될 수 있다.
 ② 갑: 문화 속의 일부 상징은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할 위험이 있다.
 ③ 을: 영구적인 평화의 실현은 개별 국가의 정치 체제와 무관하다.
 ④ 을: 평화 실현을 위해 국가의 주권이 평화 연맹에 양도되어야 한다.
 ⑤ 갑과 을: 국가 간 전쟁 행위 중지만으로도 진정한 평화가 실현된다.

14. 중국 유교 사상가 갑, 을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뜻이 있는 곳이 사물이다. 뜻이 부모 섬김에 있으면 그것이 사물이다. 그래서 마음 외부에 사물이 없다. 『대학』에서 말하는 '명덕(明德)을 밝힘'은 단지 성의(誠意)일 뿐이다.
 을: 격물(格物)할 때나 성의, 정심(正心)할 때 모두 거경(居敬)함으로써 수행해야 한다. 모든 과정에서 각성하고 붙잡아 이 마음이 언제나 보존되어야만 비로소 경을 지킬 수 있다.

<보 기>
 ㄱ. 앎으로서의 지(知)와 실천으로서의 행(行)은 본래 하나인가?
 ㄴ. 이치에 대한 궁구 없이 치지(致知)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가?
 ㄷ. 도덕 법칙을 밝혀야 할 뿐 아니라 그에 따라 실천해야 하는가?
 ㄹ. 격물을 통해 천리를 보존하고 사된 욕구를 제거해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고대 서양 사상이 갑, 근대 서양 사상이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자연의 원리나 신의 섭리를 벗어나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필연은 질서 정연한 우주의 안녕을 위한 것이며 너 자신도 우주의 일부분이다.
 을: 자연 안에는 그 어떤 것도 우연히 주어진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은 일정한 방식으로 작용하게끔 신적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

- ① 갑: 공적인 삶과 의무를 도외시하고 소박한 삶을 살아야 한다.
 ② 갑: 모든 정념을 제거하고 자연의 본성인 이성을 따라야 한다.
 ③ 을: 지복은 인격신의 계시를 받아야만 도달할 수 있는 경지이다.
 ④ 을: 삶에서 유익한 것은 이성을 최대한 완전하게 발휘하는 것이다.
 ⑤ 갑과 을: 자연의 필연성을 인식할 때 숙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

4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16.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四聖諦]를 보지 못한 중생들은 무명(無明)에 가려지고 욕망에 묶여 내달리고 윤회하면서 어떤 때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오기도 한다. 이것은 막대기를 허공으로 던지면 어떤 때는 아랫부분부터 떨어지고 어떤 때는 윗부분부터 떨어지는 것과 같다.

<보 기>
 가. 진리에 대한 깨달음은 팔정도 수행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나. 현세와 달리 내세는 자신이 지은 업(業)의 영향을 받는다.
 다. 중생이 겪는 고통은 반드시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난다.
 르. 중생이 번뇌를 끊고 해탈하면 더 좋은 생(生)으로 윤회한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르 ⑤ 다, 르

17. 사회사상가 갑, 을의 이상 사회에 대한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여기에서는 노동 분업에 의한 개인의 노예적 종속이 사라지고,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대립도 사라진다.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하여 경제는 안정적이다. 각자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
 을: 여기에서는 성인들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노동에 종사하며 빈곤도 없고 낭비도 없다. 또한 개인의 소유라는 것이 없어 집마다 자물쇠를 채우는 일은 절대로 없다. 집은 제비를 뽑아서 10년마다 바꾼다.

- ① 갑: 노동은 삶의 창조적 활동이 아니라 생계 수단일 뿐이다.
 ② 갑: 기술적 분업의 확대를 통해 노동 소외를 극복할 수 있다.
 ③ 을: 화폐를 사용하여 필요한 재화를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④ 을: 구성원은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만 사치스러운 삶을 살지 않는다.
 ⑤ 갑과 을: 국가의 역할 확대를 통해 개인의 참된 자아가 실현된다.

18. 한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사단이 드러날 때 진실로 기(氣)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맹자가 가리키는 것은 실제로 기에서 발(發)한 곳에 있지 않다. 만일 기를 겸해서 가리켰다면 그것은 이미 사단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을: 사단은 진실로 기를 따라 드러난다. 그러나 기에 가려지지 않고 직접 나타나기에 이(理)의 발이라고 말한다. 칠정 또한 진실로 이가 탄다. 그러나 기에 의해 가려지기 때문에 기의 발이라 말한다.

- ① 갑: 공리와 거경의 수양으로 본연지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② 갑: 이는 기와 달리 형체가 없어서 기의 발에 따를 수밖에 없다.
 ③ 을: 이는 기의 근원이지만 기에서 독립하여 홀로 존재할 수 있다.
 ④ 을: 정(情)의 연원은 같으므로 일반 감정은 도덕 감정을 포함한다.
 ⑤ 갑과 을: 인(仁)은 이가 발한 것이지만 측은지심은 기가 발한 것이다.

19.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p>갑: 자연 상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이다. 그러나 이성인 인간들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평화의 규약들인 자연법을 제안한다.</p> <p>을: 주권은 일반 의지의 행사에 불과하므로 결코 양도될 수 없으며, 주권자는 집합적 존재일 뿐이므로 그 자신에 의해서만 대표될 수 있다.</p> <p>병: 통치자가 피치자의 자유, 생명, 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이행하지 않으면, 인민의 저항은 정당화될 수 있으며 인민은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p>
(나)	<p><법 레> → : 비판의 방향 A~F : 비판의 내용</p> <p><예 시> 갑 → A → 을 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p>

- ① A와 F: 자연 상태에서 자유와 권리를 지닐 수 없음을 간과한다.
 ② B: 계약 당사자에게 법을 제정하는 입법권이 있음을 간과한다.
 ③ C: 법에 대한 복종이 곧 자기 자신에 대한 복종임을 간과한다.
 ④ D: 사회 계약의 목적은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음을 간과한다.
 ⑤ E: 공통의 권력이 없는 곳에는 정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간과한다.

20. 고대 서양 사상가 갑, 현대 사회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가난이라는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도시를 위해 좋은 일을 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가난 때문에 공직에서 배제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 아테네의 정치는 소수자가 아니라 다수자의 이익을 위해 통치되는 민주정이다.
 을: 국민의 역할은 정부를 만드는 것이다. 국민은 자신들의 정치 지도자의 재선을 거부하거나 또는 그를 지지하는 의회 다수당의 과반수 확보를 저지하는 방법 이외에는 어떤 통제 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다.

- ① 갑: 시민의 투표로 선출된 대표자가 모든 정책을 직접 결정해야 한다.
 ② 갑: 민주정에서는 모든 사람이 능력에 따른 정치 참여 기회를 보장받는다.
 ③ 을: 민주주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정치적 방법이다.
 ④ 을: 시민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⑤ 갑과 을: 시민은 정치 현안에 대해 언제나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제 () 선택

윤리와 사상

1. 다음 가상 대화의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을 법칙 삼아 도(道)를 따르는 소박한 삶을 살아야 한다.
- ② 충(忠)과 서(恕)를 실천함으로써 인(仁)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
- ③ 사사로운 욕망을 이기고 예(禮)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 ④ 만물이 상호 의존한다는 사실을 깨쳐 자비(慈悲)를 실천해야 한다.
- ⑤ 의로운 일을 꾸준히 쌓아[集義] 도덕적 삶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

2.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오직 자기 이성의 지배만 받을 뿐이며, 적으로부터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을: 사람들이 비교적 평화로운 자연 상태를 떠나 사회에 들어가는 것은 그들의 재산을 평온하고 안전하게 향유하기 위함이며, 법률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한 도구와 수단으로 사회에서 확립된 것이다.

- ① 갑: 자기 보존을 위해 권리를 양도함은 정의 발생의 원천이다.
- ② 갑: 주권자는 시민들과 맺은 사회 계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③ 을: 시민은 자연법 준수의 의무로부터 벗어난 자유를 누린다.
- ④ 을: 입법부는 신탁(信託)된 권력이 아니므로 교체가 가능하다.
- ⑤ 갑과 을: 개인의 모든 권리는 사회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부여된다.

3.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이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서양의 도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선비들을 모아 정학(正學)을 연구하여 밝히며, 간사한 소인을 제거하고 도적과 통하는 자를 막아 탐욕을 용납하지 않아야 한다.

을: 서양의 학(學)은 한울님을 위한 학문이 아니다. 우리 동방의 학은 내 안의 한울님을 모시는 것이니, 항상 마음을 지키고[守心] 기운을 바르게 해야 한다.

- ① 모든 규범을 버리고 오로지 마음속 한울님을 모셔야 하는가?
- ② 사회가 변하더라도 효제(孝悌)의 정신은 지켜 나가야 하는가?
- ③ 서양의 종교를 배격하고 신분 귀천의 위계를 유지해야 하는가?
- ④ 남녀의 차별이 사라진 평등한 사회를 실현[開闢]해야 하는가?
- ⑤ 유교적 가치를 바탕으로 서양의 과학 기술을 수용해야 하는가?

4.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신은 정신적인 것으로서 그리고 물리적인 것으로서 파악될 수 있다. 자연 안의 모든 것들은 신적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 존재하도록 결정되어 있고, 또한 특정한 방식으로 작용을 산출하도록 결정되어 있다.

- ① 인간은 자연의 인과 법칙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
- ② 자연 안에서 오직 인간만이 자기 보존을 위해 노력한다.
- ③ 인간은 신 없이는 존재할 수도 스스로를 파악할 수도 없다.
- ④ 인간은 자신이 처한 감정의 지배 상태에서부터 해방될 수 없다.
- ⑤ 신에 대한 직관적 인식은 인간에게 정신적 만족을 줄 수 없다.

5.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방법을 따른다면, 우주의 수수께끼에 대한 형이상학적 해명을 마무리 짓는 그 어떤 명칭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신', '이성', '에너지' 등과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각각의 명칭으로부터 실제적인 '현금 가치'를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명칭이 여러분 경험의 흐름 안에서 작동하도록 안착시켜야 합니다. 결국 이론은 도구일 뿐 수수께끼에 대한 최종적 답변은 되지 않습니다.

- ① 이론들은 문제 해결과 무관하게 진리로 인식되어야 한다.
- ② 신학 교리는 형이상학적 해명 없이도 현금 가치를 지닐 수 있다.
- ③ 자연 과학적 개념은 활용될 때보다 이해될 때 더 가치가 있다.
- ④ 관념들은 경험적 증명을 통과하지 않아도 가치를 지닐 수 있다.
- ⑤ 도덕적 지식은 도구적 가치를 산출하지 못해도 유용성을 지닌다.

2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6. (가)를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퍼즐 속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p>사람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럽게 여기는 성(性)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 그러므로 옳지 못한 재물을 받지 않으면 마음이 떳떳하여 즐겁고, 잘못된 줄 알고도 그것을 받으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p>																								
(나)	<table border="1" style="margin: 0 auto;">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A)</td><td></td><td></td><td></td></tr> <tr><td></td><td>(B)</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p>[가로 열쇠] (A): 불교에서 말하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B): 도가 사상의 근간이 되는 경전으로 『노자』라고도 불리는 책</p> <p>[세로 열쇠] (A): ……개념</p>									(A)					(B)										
		(A)																							
	(B)																								

- ① 인간의 도덕적 본성과 감정을 통괄하는 것이다.
- ② 인간과 동물이 모두 지니고 있는 생리적 욕구이다.
- ③ 사단(四端)을 자주적으로 실천하여 형성되는 것이다.
- ④ 인의예지를 확충함으로써 생겨나는 순선한 마음이다.
- 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리(天理)로서의 도덕적 본성이다.

7. (가)의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군자는 소인과 달리 그 본래 선한 마음을 잃지 않아 생명이 죽어가는 모습을 차마 보지 못한다. 그래서 짐승들이 고통받거나 죽어가는 곳을 멀리한다.</p> <p>을: 군자는 본래 소인과 마찬가지로 영예와 이익을 좋아하고 치욕과 손해를 싫어하는 이기적 본성을 갖는다. 하지만 이 본성에 따르지 않고 도리[道]를 추구한다.</p>
(나)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범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출발 조건 ◇ : 판단 내용 → : 판단 방향 ○ : 사상가의 입장 </div> </div> <pre> graph TD Start[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 --> A{A} A -- "아니요" --> C{C} A -- "예" --> B{B} B -- "예" --> G[갑의 입장] C -- "예" --> E[을의 입장] </pre>

<보 기>

ㄱ. A: 타고난 본성에 따른 행동일지라도 악할 수 있는가?
 ㄴ. B: 백성도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는가?
 ㄷ. C: 사회적 재화의 공정한 분배는 예(禮)로써 가능한가?
 ㄹ. C: 누구나 하늘이 부여한 예를 배우면 교화될 수 있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고대 동양 사상가 갑, 현대 사회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p>갑: 다투지 않는[不爭] 덕은 하늘의 도[天道]에 부합한다. 훌륭한 무사는 무력을 앞세우지 않고, 적을 잘 이기는 사람은 맞서 싸우지 않는다. 이처럼 성인(聖人)의 도는 일은 하되 다투지 않는 것이다.</p> <p>을: 평화는 폭력을 줄이고 예방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진정한 평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직접적 폭력이 제거된 소극적 평화를 넘어 구조적·문화적 폭력까지 제거된 적극적 평화가 중요하다.</p>
--

<보 기>

ㄱ. 갑: 전쟁은 무위(無爲)와 무욕(無欲)을 거스르는 행위이다.
 ㄴ. 을: 문화적 폭력은 직접적 폭력이 지닌 부당성을 은폐한다.
 ㄷ. 갑과 을: 진정한 평화는 무력이 없는 상태만으로도 달성된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9.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p>갑: 돈과 명성만을 돌보면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돌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아테네인이 있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묻고 검토하고 논박할 것이다. 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그런 주장을 한다면,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하찮게 여기는 것이다.</p> <p>을: 쾌락은 행복의 시작이고 끝이다. 쾌락의 시작은 지혜다. 지혜는 지혜롭고 정의롭게 살지 않고서는 즐겁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또 역으로, 즐겁게 살지 않고서는 지혜롭고 정의롭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가르친다.</p>

- ① 갑: 도덕적 진리의 탐구가 도덕성 함양에 필수는 아니다.
- ② 갑: 하나의 덕은 하나의 정의(定義)만으로 규정될 수 없다.
- ③ 을: 몸의 고통이 있어도 영혼의 고통이 없다면 참된 쾌락이다.
- ④ 을: 모든 쾌락은 그 자체로 좋으므로 선택될 만한 가치를 지닌다.
- ⑤ 갑과 을: 행복해지려면 유덕해야 하고 유덕하면 행복해진다.

10.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중세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p>갑: 자연과 일치하는 삶이 곧 목적이다. 이것은 덕에 따르는 삶과 동일하다. 덕에 따르는 삶은, 우주를 주재하고 있는 자의 의지에 정신을 일치시키면서 모든 각각의 일을 행하는 삶이다.</p> <p>을: 목적은 좋음의 성격을 지닌다. 좋음은 이성을 위한 원칙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자연법의 첫째 계율은 “좋음을 행하고 나쁨을 피하라.”가 된다. 자연법의 여러 계율들의 질서는 여러 자연적 성향들의 질서와 상응한다.</p>
--

<보 기>

ㄱ. 갑: 유덕한 자일지라도 사건들의 우연적 진행을 바랄 수 있다.
 ㄴ. 갑: 유덕한 자는 자신이 아닌 타인의 행복만 바랄 뿐이다.
 ㄷ. 을: 인간의 선들 중에는 동물이 목적으로 삼는 것도 있다.
 ㄹ. 갑과 을: 이성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p>갑: 유효 수요의 창출을 통해 시장의 실패를 극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중앙 통제는 전통적인 정부 기능의 확대를 가져올 것이다.</p> <p>을: 사회주의 계획 경제는 자유가 아닌 노예의 길이다. 그러나 자유 경쟁 시스템은 큰 부를 이루려는 누군가의 시도를 아무도 금지할 수 없는 유일한 시스템이다.</p> <p>병: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는 한 계급의 다른 계급들에 대한 착취를 기반으로 하는 생산품의 제조와 획득의 최종적이고 가장 완성된 표현이다.</p>
(나)	<p>〈법 레〉 → : 비판의 방향 A~F : 비판의 내용</p> <p>〈예 시〉 갑 → A → 을 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p>

- ① A: 투자의 사회화가 정부 실패의 해법이 아닌 원인임을 간과한다.
- ② B와 E: 실업은 시장의 결함에서 파생되는 문제임을 간과한다.
- ③ C: 계급 간 대립 관계에서는 착취가 발생할 수 없음을 간과한다.
- ④ D: 재화의 이상적 분배는 경쟁의 효율적 작동에 있음을 간과한다.
- ⑤ F: 개인의 자유 실현과 사유 재산제가 양립할 수 없음을 간과한다.

12.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서술하시오.

갑: 동정심으로부터 나온 행위는 칭찬과 격려를 받을 만하지만 존중받을 만한 것은 못 된다. 왜냐하면 동정심으로부터 나온 행위는 의무로부터 행하는 윤리적 내용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을: 공감은 인간 본성의 가장 강력한 원리이고,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의 취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덕들에 대한 우리의 도덕적 소감을 산출한다. 그러므로 공감은 도덕적 구별의 주요 원천이다.

㉡ 학생 답안

갑은 동정심에 근거한 행위는 ㉠ 명예에 대한 경향성과 같은 인간의 경향성에서 비롯된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록 ㉡ 의무에 맞는 행위라 할지라도 참된 윤리적 가치가 없다고 보았다. 한편, 을은 공감에 ㉢ 타인의 행복과 불행은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며, 이러한 능력으로 인해 ㉣ 우리는 우리와 교류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유용한 것에 쾌감을 느끼게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갑과 을은 모두 ㉤ 이성이 그 자체로 도덕적 행위의 원천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3. 중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꽃을 보지 않았을 때 나의 마음[心]은 꽃과 함께 적막하지만, 꽃을 보면 그 꽃의 색깔이 마음에서 일시에 명백해지니, 꽃이 마음 밖에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을: 마음이 발(發)하지 않았을 때 본성은 오히려 형체와 그림자가 없는 듯하지만, 이미 발하면 밖으로 드러난 감정으로 인해 그 본성이 마음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① 갑: 도덕적 실천과 분리된 도덕적 앎은 참된 앎이 아니다.
- ② 갑: 양지를 발휘하여 인욕을 제거하고 천리를 실현해야 한다.
- ③ 을: 이치는 본성에 내재한 원리이지만 마음에 실재하지는 않는다.
- ④ 을: 경중(輕重)을 따질 경우 도덕적 실천이 앎보다 중요하다.
- ⑤ 갑과 을: 격물(格物) 공부를 통해 도덕적 앎을 완성해야 한다.

14. 현대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자유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을 의미하며 ‘~로부터의 자유’로 표현된다. 따라서 나의 활동에 어느 누군가가 개입하여 간섭하지 않는 만큼 나는 자유롭다.

을: 자유는 노예 상태의 반대이다. 주인의 간섭이 없다고 해도 노예가 여전히 주인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것처럼 타인의 자의적 의지에 노출되고 타인의 처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중대한 해악이다.

〈보 기〉

ㄱ. 갑: 시민의 덕성 함양을 위한 국가의 강제는 간섭에 속한다.

ㄴ. 갑: 불간섭의 영역이 축소될수록 자유의 영역은 확대된다.

ㄷ. 을: 법이 자의적 의지의 도구가 될 때 시민은 자유롭지 못하다.

ㄹ. 갑과 을: 진정한 자유는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한국 불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교(敎)는 밖의 문자에서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고, 선(禪)은 안의 마음을 밝히는 것이다. 교와 선은 서로 떠나지 않으니 참된 수행은 정(定)과 혜(慧)를 두루 갖추는 것이다.

을: 먼저 곧장 깨친다는 것[頓悟]은 마치 해가 썩하고 비추듯이 모든 법(法)을 단번에 밝게 하는 것과 같고, 이후 닦는다는 것은 마치 거울을 닦아서 차츰 빛나게 하는 것과 같다.

〈보 기〉

ㄱ. 갑: 깨달음을 위해 교와 관(觀)을 함께 닦아야 한다.

ㄴ. 을: 모든 현상은 마음 밖의 진리에 의해서 일어난다.

ㄷ. 을: 습기(習氣)를 없애기 위해 정과 혜로써 수행해야 한다.

ㄹ. 갑과 을: 자신의 깨달음과 함께 중생 구제에 힘써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4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16. 갑, 을은 한국 유교 사상가들이다. 을의 입장에서 갑의 입장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사단은 이(理)가 발하여 기(氣)가 따르니 본래 순선하여 악이 없다. 칠정은 기가 발한 것인데, 기가 발하여 치우치면 바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여 불선(不善)으로 흐른다.
 을: 사단은 칠정 중에서 선한 것만을 별도로 지칭할 뿐이다. 칠정은 사단을 이미 포함하고 있으니, 사단은 칠정이 아니라거나 칠정은 사단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 ① 사단과 칠정은 모두 성(性)이 발하여 생기는 감정임을 간과한다.
- ② 이는 무위(無爲)하므로 발할 수도 주재할 수도 없음을 간과한다.
- ③ 칠정은 기가 발할 때 이가 타서[乘] 표출된 감정임을 간과한다.
- ④ 사단은 이가 맑은 기를 타서 드러난 순선한 감정임을 간과한다.
- ⑤ 기가 발하지 않아도 선한 감정이 드러날 수 있음을 간과한다.

17.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행복이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라면, 행복은 최고의 덕에 따라야 할 것이다. 최고의 덕은 영혼의 부분들 중 최고의 부분, 즉 '지성'이라 불리는 부분이 가지는 덕이다. 이 부분은 영혼의 다른 이성적 부분과 같지 않다. 지성이 상대하는 대상은 신적이고 불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삶의 대상들 중 최고이다. 지성의 덕을 발휘하는 활동을 '관조'라고 부른다. 따라서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들 중 관조적 활동이 최고의 행복이다.

- ① 품성적 덕에 따르는 행복이 최고의 행복이다.
- ② 행복은 인간의 이성이 목표로 삼는 유일한 선이다.
- ③ 감정을 담당하는 영혼의 부분은 언제나 이성을 따른다.
- ④ 덕을 발휘하지 못해도 덕의 소유 자체가 행복일 수 있다.
- ⑤ 진리를 탐구하는 지혜는 좋음을 사유하는 지혜와 구분된다.

18.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만일 천지 본연의 올바름[正]에 올라타고서 기운의 변화를 다스려 무한한 세계에서 노니는 사람이 된다면 어떤 것에 의지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지극한 사람은 자기중심적 사유에서 벗어나고[無己], 신령스러운 사람은 공적을 내세움이 없고[無功], 성인(聖人)은 세속적 명예에 개의치 않고[無名] 살아간다.

<보 기>

ㄱ. 심재(心齋)로써 정신적 자유의 경지에서 노닐어야 한다.
 ㄴ. 어떠한 얽매임도 없이 자기 자신마저도 잊어[忘] 한다.
 ㄷ. 세속을 벗어나 천명(天命)을 도덕성의 원천으로 삼아야 한다.
 ㄹ. 참된 지혜로써 만물의 우열을 판별하고 명예를 버려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가)의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p>갑: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지배자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법으로 정한 다음, 이 법을 정의로운 것으로서 공표하고서는, 위반한 자는 정의롭지 못한 행위를 한 자로 처벌한다.</p> <p>을: 국가의 각 계층이 자신의 일만 해야 한다는 원칙은 정의의 흐릿한 윤곽일 뿐 참된 정의는 아니다. 정의는 자기 자신과 관련되며, 자신 안의 이성, 기개, 욕구가 남의 일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법 레></p> <p>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p> </d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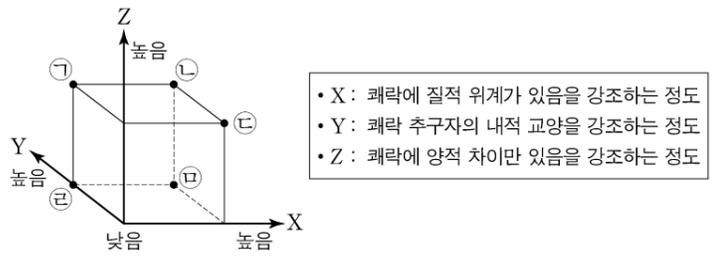
<보 기>

ㄱ. A: 국가의 정의는 누가 지배자가 되느냐에 달려 있다.
 ㄴ. A: 피지배자의 부정한 행위는 그 자신에게 이로울 수 있다.
 ㄷ. B: 처벌에 대한 두려움은 정의로운 행위의 동기가 될 수 없다.
 ㄹ. C: 개인의 정의는 외적 규범보다 영혼의 내적 상태와 관련된다.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20. 갑, 을은 근대 서양 사상가들이다.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군주의 지배하에 두었다. 쾌락과 고통의 양은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등 일곱 가지 기준에 따라 측정할 수 있다.
 을: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더 바람직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공리의 원리와 양립할 수 있다. 쾌락을 평가할 때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 (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 제 () 선택

윤리와 사상

1. 다음 가상 대화의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효제(孝悌)와 충서(忠恕)를 실천하고자 한다.
- ② 무명(無明)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르고자 한다.
- ③ 깨달음(菩提)을 추구하고 중생을 구제하고자 한다.
- ④ 문명을 배격하고 무위자연의 도(道)를 따르고자 한다.
- ⑤ 서로 차별 없이 사랑(兼愛)하고 이익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2.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국가는 소비 성향과 투자 유인의 상호 관계를 조정하는 일에 관련된 정부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광범위한 투자의 사회화가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를 확보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을: 국가는 경쟁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해야 한다. 경쟁은 권력의 간섭 없이도 우리의 행위를 조정할 수 있지만, 계획은 사람을 노예의 길로 이끄는 치명적 자판이다.

<보 기>
ㄱ. 갑: 시장 실패의 극복을 위해 경제 활동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ㄴ. 갑: 정부는 유효 수요 창출을 위해 공공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ㄷ. 을: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통해 자유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
ㄹ. 갑과 을: 완전 고용을 위해 국가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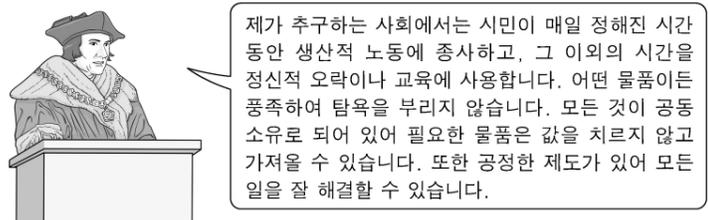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가 공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도(道)는 흘러 넘쳐 왼쪽으로든 오른쪽으로든 이르지 아니하는 곳이 없다. 만물이 도에 의지하여 생겨나지만 도는 말이 없고, 공적이 이루어져도 그 공적이 자기에게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또한 도는 만물을 생기게 하지만 자기 소유로 삼지 않고, 만물을 거느리는 주인이 되려 하지 않는다.

- ① 도는 만물의 화육에 개입하면서 세상을 주재하는가?
- ② 도는 하늘과 땅보다 먼저 존재한 자연 운행의 원리인가?
- ③ 도를 체득하기 위해서는 공적과 명예를 추구해야 하는가?
- ④ 도 자체는 사물이므로 인간의 언어로써 규정될 수 있는가?
- ⑤ 도가 인간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도를 넓히는 것인가?

4. 그림의 강연자가 추구하는 이상 사회의 모습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개인의 재산 증식을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한다.
- ② 국가에 이바지한 업적에 따라 재화를 공정하게 분배한다.
- ③ 구성원은 물질적 재화의 부족 때문에 검소하게 살아간다.
- ④ 일부 시민에게는 종사하는 일에 따라 사유 재산을 인정한다.
- ⑤ 여가 시간에 문화생활을 자유롭게 누리는 것을 허용한다.

5.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은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이들이 태어날 때는 황금을 섞고, 방위자들에게는 은을, 농부들이나 장인들에게는 철과 청동을 섞었다. 대개는 자신들을 닮은 자손들을 낳지만, 때로는 황금의 자손에서 은의 자손이, 그리고 은의 자손에서 철의 자손이, 그 밖의 모든 자손이 서로의 자손에서 태어나는 때가 있다.

- ① 누구나 타고난 소질을 잘 발휘하면 통치자가 될 수 있다.
- ② 통치자는 이데아를 인식하여 지혜의 덕을 갖춘 자들로 구성된다.
- ③ 방위자는 교육을 통해 용기의 덕을 쌓고 두려움에 대해 분별한다.
- ④ 생산자가 가진 덕을 다른 두 계층도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다.
- ⑤ 국가의 세 계층이 각자 자신의 소임을 다할 때 정의가 실현된다.

2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6. (가)의 중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학문의 길은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궁구하는 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 이치를 궁구하는 핵심에는 무엇보다 독서가 있다. 경전과 역사책에 입각하지 않는다면 이는 벽을 마주 대하고 있는 것과 같다.</p> <p>을: 학문의 길은 마음의 본체에서 공부하고 돌이켜 내 마음에서 체득하는 것이다. 경전은 마음의 본체를 대략적으로 말한 것에 불과하니, 마치 초상화를 그려 그 인물의 정신을 전달하는 것과 같다.</p>
(나)	<p style="text-align: center;"><범례></p> <p>□ : 출발 조건 ◇ : 판단 내용 → : 판단 방향 ○ : 사상가의 입장</p>

<보기>

ㄱ. A: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인간도 양지를 지니고 태어나는가?
 ㄴ. B: 내 마음의 본체인 성(性)이 곧 도덕적 행위의 근거인가?
 ㄷ. B: 경전 공부를 통한 앎(知)이 도덕적 실천(行)보다 중요한가?
 ㄹ. C: 격물(格物)은 사욕을 제거하여 내 마음을 바로잡는 것인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가)의 고대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p>갑: 쾌락은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끝이다. 우리는 우리의 느낌을 모든 좋은 것들을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하면서, 쾌락에서 모든 선택과 회피를 시작하고 쾌락으로 돌아온다.</p> <p>을: 고통과 쾌락만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령하고 무엇을 행하게 될지를 결정한다. 옳고 그름의 잣대, 원인과 결과의 사슬이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군주의 옥좌에 매여 있다.</p>
(나)	<p style="text-align: center;"><범례></p> <p>→ : 비판의 방향 A, B: 비판의 내용</p> <p style="text-align: center;"><예시></p> <p>○(갑) → A → ○(을) 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p>

- ① A: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함을 간과한다.
 ② A: 세계 시민으로서 정치적 삶의 욕구를 충족해야 함을 간과한다.
 ③ A: 사회적 쾌락이 개인의 쾌락보다 우선시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④ B: 쾌락 총량의 최대화를 낳는 행위가 도덕적 행위임을 간과한다.
 ⑤ B: 행복한 삶을 위해 인간의 자연적 본성에 주목해야 함을 간과한다.

8. 다음은 사회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p>적대 행위의 중단이 곧 평화 상태에 대한 보증은 아닙니다. 국가 간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가 확립되어야 합니다.</p>	<p>전쟁의 부재가 곧 평화에 대한 완전한 보증은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직접적 폭력 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도 없는 상태가 실현되어야 합니다.</p>

<보기>

ㄱ. 갑: 평화 연맹은 그 소속 국가의 자유를 국제법에 따라 보호한다.
 ㄴ. 을: 목표로서의 평화뿐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평화도 중요하다.
 ㄷ. 갑과 을: 폭력은 평화 실현을 위한 최후의 정치적 수단이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9.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p>갑: 하늘은 백성이 듣고 보는 것으로부터 듣고 보며, 하늘은 백성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으로부터 좋아하고 싫어한다. 따라서 통치자는 백성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왕도(王道)를 시행해야 한다.</p>	<p>을: 하늘의 운행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다. 요(堯) 임금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곽(桀) 임금 때문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인간이 도를 따라서 어기지 않는다면 하늘도 화를 입히지 못한다. 하늘의 운행과 인간의 일은 서로 별개이다.</p>
---	---

<보기>

ㄱ. 갑: 하늘은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하니 민심이 곧 천심이다.
 ㄴ. 을: 하늘은 성인(聖人)의 도를 따르는 무위(無爲)한 존재이다.
 ㄷ. 을: 하늘은 예(禮)에 따라 사는 백성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
 ㄹ. 갑과 을: 하늘이 부여한 마음을 되찾아야 성인이 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중세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p>갑: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이렇게 바라라. 즉 일어나는 일들이 네가 바라는 대로 일어나기를 바라지 말고, 일어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기를 바라라.</p>	<p>을: 행복한 삶은 최고신인 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복한 삶이란 신에 관해서, 신을 향해서, 신을 위해서 향유하는 것이다. 오직 이런 향유만이 행복이다.</p>
--	--

- ① 갑: 행복한 자는 공적인 인간관계를 가능하면 피하고자 한다.
 ② 갑: 행복한 자는 사건들의 필연적 관계를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인다.
 ③ 을: 행복은 지금 이 지상의 삶에서 완전히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④ 을: 행복은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 역시 향유하는 것이다.
 ⑤ 갑과 을: 행복은 타락한 본성을 회복하여 신과 합일하는 데 있다.

11.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3점]

서술형 평가

◎ 문제: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갑: 인간에게 정해진 본질은 없다. 인간은 실존 이후에 인간 스스로가 구성하는 무엇이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것과 다른 무엇이 아니다.
 을: 관념, 의미, 개념, 이론, 체계는 주어진 환경을 적극적으로 재조직하고, 난점과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이다. 이러한 도구들의 가치는 그런 일을 성취하느냐 못하느냐를 통해 평가될 수 있다.

◎ 학생 답안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 인간을 선택의 순간마다 주체적인 결단을 통해 스스로를 만들어 가는 존재로 보고, ㉡ 인간은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책임을 통해 불성실을 벗어나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을은 ㉢ 인간을 끊임없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면서 경험을 축적해 가는 존재로 보고, ㉣ 인간은 지성을 최대한 발휘해 사회가 성장하고 진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한편 갑, 을은 모두 ㉤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보편적인 도덕규범을 따라야 한다고 본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2.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p>갑: 국가는 다수의 사람이 상호 계약을 체결하여 세운 인격이다. 자연 상태에는 공통의 권력이 없어 각자의 각자에 대한 전쟁 상태에 빠져든다.</p> <p>을: 국가는 계급과 함께 출현한 계급 사회의 산물로 지배 계급이 그들의 공동의 이해를 관철하는 정치적 형태이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는 이 국가를 타도해야 한다.</p> <p>병: 국가는 개인의 인격이 모두 결합된 공적 인격이다. 개인은 정치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가 입법권을 가진 주권자로서 시민적 자유를 획득하게 된다.</p>
(나)	<p style="text-align: right;"> <범례> → : 비판의 방향 A~F : 비판의 내용 </p> <p style="text-align: right;"> <예시> (갑) → A → (을) 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 </p>

- ① A: 국가는 그 사회의 지배 계급의 이익을 대변함을 간과한다.
 ② B와 D: 국가는 계약 주체의 의지가 반영되어 성립된 것임을 간과한다.
 ③ C: 사유 재산제가 성립되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발생함을 간과한다.
 ④ E: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음을 간과한다.
 ⑤ F: 국가의 주권은 사회 계약에 참여한 주체에게 귀속됨을 간과한다.

13. 중세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자연법은 신의 영원한 창조 계획에 기초한다. 자연법의 질서는 자연적 성향의 질서에 따른다. 모든 각각의 실체는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려고 노력한다. 인간 역시 자기 보존을 향한 자연적 성향을 가진다.

을: 각각의 것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려고 노력한다. 그것들은 신의 힘, 즉 신의 본질을 특정하게 표현하는 양태이기 때문이다. 그 어떤 사물도 자신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을 자신 안에 가지고 있지 않다.

- ① 갑: 자기 보존은 자연적 본성의 요구일 뿐이므로 선이 될 수는 없다.
 ② 갑: 자기 보존 성향과 달리 사회적 삶의 성향은 비자연적 성향이다.
 ③ 을: 자기 보존을 위한 각자의 욕망은 신이 지닌 본성을 나타낸다.
 ④ 을: 자기 보존은 동물과 달리 인간의 경우 자유로운 선택일 수 있다.
 ⑤ 갑과 을: 자기 보존에 성공한 사례는 신의 의도적 계획에 따른 것이다.

14. 한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기(氣)가 아니면 발할 수 없고, 이(理)가 아니면 발하게 할 까닭이 없다. 사단과 칠정은 모두 기가 발하고 이가 올라탄 것이다. 기는 유위(有爲)하고 이는 무위(無爲)하다.

을: 사단은 이가 발함에 기가 따르는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함에 이가 기를 타는 것이다. 이가 동정(動靜)을 지니기에 기도 동정을 지닌다.

<보 기>

ㄱ. 갑: 칠정 가운데 선한 감정을 키우면 사덕으로 자라난다.
 ㄴ. 을: 사단은 순선한 성이고 칠정은 선악이 함께 있는 정이다.
 ㄷ. 을: 이는 기를 주재하고 명령할 뿐 기에 구속받지 않는다.
 ㄹ. 갑과 을: 이와 기는 서로 분리될 수 없고 섞일 수도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도덕적 구별은 사회의 이익을 촉진 혹은 저하시키는 자질 및 성격의 경향으로부터 발생한다. 관찰자인 우리가 이 자질 및 성격을 지닌 또는 부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사회의 이익에 대한 우리의 관심 때문이다. 우리는 공감으로부터 타인이 속한 사회의 이익에 대해 확장된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보 기>

ㄱ. 공감은 타인의 유덕한 품성에서 쾌감을 느끼게 하는 원리이다.
 ㄴ. 이성은 목적을 위한 최적의 수단을 발견하는 역할을 한다.
 ㄷ. 도덕은 어떤 행위나 사물에 내재하는 근본적인 속성이다.
 ㄹ. 이성은 행위의 동기가 아니라 도덕적 선악을 구별하는 원천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16. 다음 가상 편지를 쓴 한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들아! 네가 지난번 편지에서 질문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 답하고자 한다. 인간의 본성은 마음의 기호란다. 이것은 채소가 거름을 좋아하는 것과 같으며, 연꽃과 수초가 물을 좋아하는 것과 같다. 원래 본성이란 것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것이니, 그 본성을 잘 따르게 되면 인(仁)에 머무를 수 있고 의(義)를 따를 수 있어서 인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 ① 영지의 기호를 발휘해 자주지권을 형성해야 한다.
- ② 수양의 궁극적 목표인 형구의 기호를 완성해야 한다.
- ③ 본성은 하늘의 이치로 인간 모두가 갖춘 인의예지이다.
- ④ 타인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인을 형성하기 위한 시작이다.
- ⑤ 인간이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덕은 사단의 확충으로 완성된다.

17.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의무의 모든 명령이 이것들의 원리인 바로 그 정언 명령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면, 우리는 의무 개념이 무엇을 말하는지 제시할 수 있다. 결과들이 일어날 때, 이것들이 따르는 법칙의 보편성은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 본래적으로 '자연'이라 불리는 것을 구성하므로, 정언 명령은 "네 행위의 준칙이 네 의지에 의해 마치 자연 법칙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라."라고도 표현될 수 있다.

- ① 정언 명령은 여러 가지 정식(定式)들로 표현될 수 없다.
- ② 정언 명령의 보편화 검증을 통과해야 준칙은 도덕 법칙이 된다.
- ③ 정언 명령 형식의 도덕 법칙은 자연의 모든 사물에 적용된다.
- ④ 정언 명령은 옳은 행위만, 가언 명령은 그른 행위만 명령한다.
- ⑤ 정언 명령은 하지 말 것만 명령할 뿐 해야 할 것은 명령하지 않는다.

18. 다음을 주장한 동양 불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모든 사물이 생겨날 수 있는 여러 조건[緣]이 있다. 하지만 자성(自性)은 여러 생성 조건 가운데 어느 하나에도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성은 없다. 자성이 없기 때문에 공(空)인 것이다.
○ 어떤 사물도 인연으로부터 생기지 않는 것이 없으니 모든 사물이 공 아닌 것이 없다. 모든 사물이 공하지 않다면, 생멸(生滅)은 존재하지 않고 사성제의 진리도 존재하지 않는다.

- ① 만물의 자성은 인연의 법칙에 따라 영원히 존재한다.
- ② 만물에 대한 참된 인식을 통해 자성을 완성해야 한다.
- ③ 만물은 상호 의존적이지만 각 사물은 불변하는 실체이다.
- ④ 만물의 있음이 아니라 없음에 집착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 ⑤ 만물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난 것이므로 공 아닌 것이 없다.

19. (가)의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덕이 이롭다면 덕은 얹이어야 한다. 영혼에 관한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이롭지도 해롭지도 않지만, 얹이나 무지가 더해져 이롭거나 해롭게 되기 때문이다.</p> <p>을: 자제력 없는 사람은 좋음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유덕한 사람도 부덕한 사람도 아니다. 그리고 유덕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없다.</p>
(나)	

<보 기>

ㄱ. A: 비겁한 행위란 항상 용기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행위이다.
 ㄴ. A: 좋음에 대한 앎을 가진 자들 모두가 지혜의 덕을 갖춘 자들이다.
 ㄷ. B: 나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한 행위는 자발적인 행위이다.
 ㄹ. C: 행복을 원하는 자는 자기 영혼의 상태 개선에 힘써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0. 갑, 을은 근대 한국 사상가들이다.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갑: 강화(講和)가 이루어지면 사학(邪學)이 교역 속에 섞여 들어올 것이다. 장차 집집마다 사학을 하고 사람마다 사학을 하게 되면, 자식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신하가 임금을 임금으로 여기지 않게 되어, 사람은 짐승이 될 것이다.

을: 한울님의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인의예지의 도(道)를 실천하기 어렵다. 한울님의 마음을 지키는 법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윗사람을 공경하며, 타인에게 온화하고 공손하게 대하는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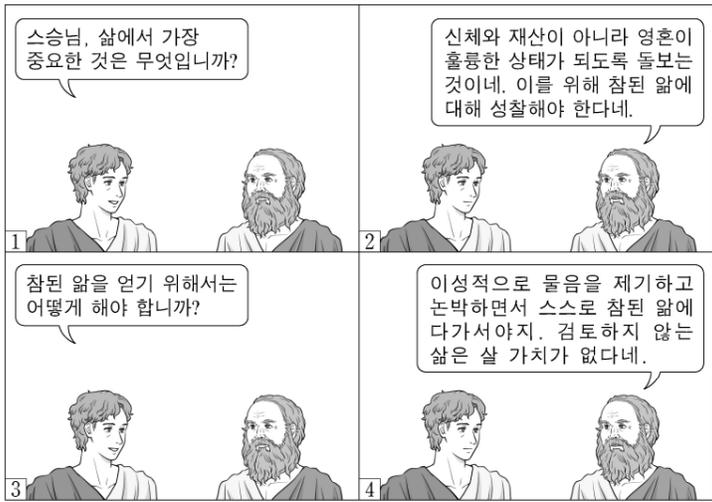
성명

수험 번호

제 [] 선택

윤리와 사상

1. 다음 가상 대화의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정치적 명예에 필요한 수사학과 대화법을 공부해야 한다.
- ② 이성적 성찰보다 감각적 경험으로 진위를 분별해야 한다.
- ③ 마음의 평온을 위해 세속을 벗어나 자연에 은둔해야 한다.
- ④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덕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⑤ 진리는 상대적임을 깨닫고 서로 다른 입장들을 존중해야 한다.

2. 고대 서양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정의란 지배하는 이들의 이익이다. 지배하는 이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려고 한다. 강한 자가 권력을 행사하므로 정의는 더 강한 자의 이익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을: 정의는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가 각자 일에 충실하며 다른 계층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각 계층에 적합한 덕들이 국가 안에 보전된다. 정의는 각자 덕을 가지고 자기 일을 잘하는 것이다.

- ① 갑: 법은 통치자와 피치자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 ② 갑: 정의는 특정 계층의 사익이 아니라 보편적 진리에 근거한다.
- ③ 을: 용기는 기개가 영혼을 지배함으로써 발휘되는 덕이다.
- ④ 을: 통치자는 지혜와 더불어 용기와 절제의 덕도 갖추어야 한다.
- ⑤ 갑과 을: 누가 통치하든 상관없이 정의로운 국가가 될 수 있다.

3. 고대 동양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성인(聖人)은 무위(無爲)하니 백성들이 저절로 감화되고 고요함을 좋아하니 백성들이 저절로 바르게 된다. 성인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 백성들이 부유해지고 무욕(無欲)하니 백성들이 저절로 순박해진다.
 을: 어진 사람은 자기가 서고자 할 때 먼저 남을 세워 주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남의 바람이 먼저 이루어지도록 해 준다.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서(恕)는 인(仁)을 행하는 방법이다.

- ① 갑: 만물의 근원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표현할 수 없다.
- ② 갑: 도의 관점에서는 인간만이 절대적 가치와 자유를 지닌다.
- ③ 을: 직분에 따른 권한과 의무의 충실한 이행은 서와 상충한다.
- ④ 을: 군주는 재화 분배의 형평보다 재화의 부족을 근심해야 한다.
- ⑤ 갑과 을: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덕을 따라야 한다.

4.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인간이든 국가든 어떤 좋음(善)을 목적으로 추구한다. 어떤 것의 좋음은 그 기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각의 기능은 자신의 고유한 덕에 따라 수행될 때 완성된다. 인간이 지닌 고유한 기능은 영혼의 이성적 활동이다. 인간의 좋음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며 최고의 좋음은 완전한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다. 인간의 덕은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으로 나눌 수 있다.

- ① 악행은 무지가 아니라 언제나 자제력 없음에서 비롯된다.
- ② 인간의 좋음 중 자족적 좋음이자 완전한 좋음은 행복뿐이다.
- ③ 모든 덕은 본성적으로 생겨나지는 않지만 습관으로 완성된다.
- ④ 품성적 덕은 중용에 맞는 감정과 행위를 판별해 주는 앎이다.
- ⑤ 개인의 최고의 좋음과 국가의 궁극적 목적은 일치하지 않는다.

5. 다음을 주장한 중국 불교 사상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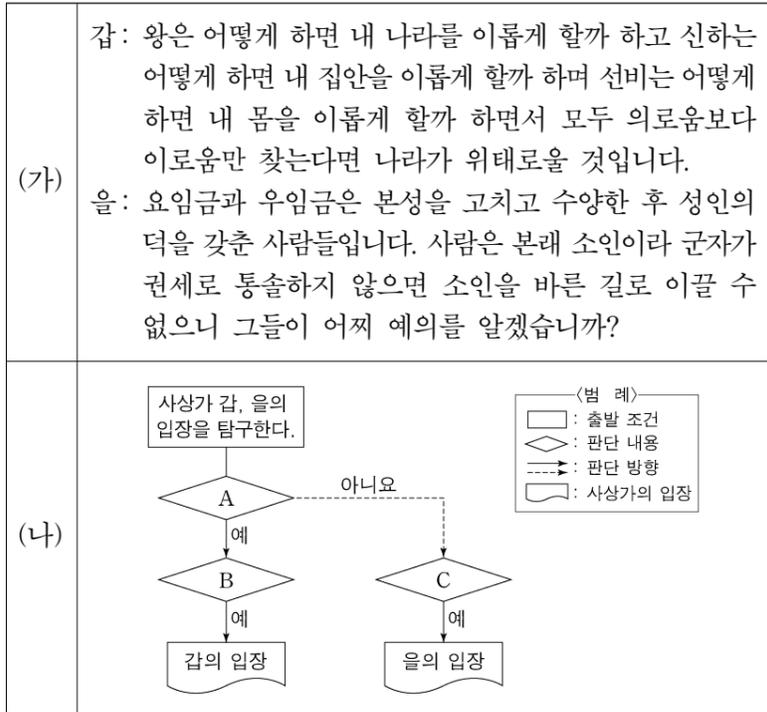
○ 사람은 본래 반야(般若)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나 마음이 미혹하여 깨닫지 못하므로 고승(高僧)의 인도로써 마음의 실상을 몸소 깨달아야 한다.
 ○ 부처는 자신의 본성 속에서 이루어지니 자신 밖에서 부처를 찾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본성을 깨닫는 것은 단박에 깨치고 단박에 닦는 것이다.

- ① 깨달은 사람이 가는 곳인 정토(淨土)는 내 마음에 있다.
- ② 완성된 부처의 참된 모습을 본래적으로 갖춘 사람은 없다.
- ③ 단박에 깨우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행도 요구되지 않는다.
- ④ 깨달음은 마음으로 전할 수 없으니 반야의 지혜가 필요하다.
- ⑤ 경전 공부를 위주로 선(禪)을 병행해야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2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6. (가)의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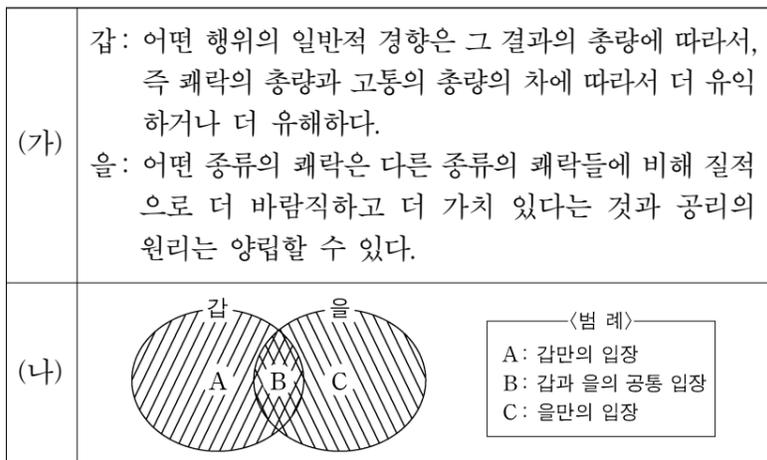


<보 기>

- ㄱ. A: 군자는 남의 고통을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을 타고나는가?
 ㄴ. B: 의로움의 추구와 이로움의 추구는 언제나 상충하는가?
 ㄷ. C: 제도적 규범에서 도덕 성립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가?
 ㄹ. C: 인(仁)을 군주의 기본적인 덕목으로 삼아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7. (가)의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 ㄱ. A: 행복은 쾌락의 양의 증가를 통하여 증진될 수 있다.
 ㄴ. B: 좋은 목적을 위해서는 나쁜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다.
 ㄷ. B: 어떤 쾌락은 다른 쾌락보다 더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ㄹ. C: 저급한 쾌락은 어떤 경우에도 바람직한 쾌락이 아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다음 가상 편지를 쓴 현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사랑하는 ○○에게

네가 지난번 편지에서 질문한 인간의 도덕성에 대해 답하고자 한다.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도덕성도 그들이 어떤 고정된 결과에 도달했는지 아니면 미치지 못했는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있는 방향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선했던 사람도 현재 타락하거나 선을 상실해 가고 있다면 악한 사람이고, 지금까지 도덕적으로 무가치했던 사람도 현재 선해지기 시작한다면 선한 사람이다.

- ① 행복의 실현 여부가 행동의 목적이자 궁극적 가치 기준이다.
 ② 유용성이 입증된 도덕 규칙도 상황에 따라 가치를 상실한다.
 ③ 문제 해결을 위한 잠정적 가설은 지식의 근간이 될 수 없다.
 ④ 행위의 도덕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지속적 성품에 근거한다.
 ⑤ 오류 가능성이 있는 견해는 의미 있는 삶에 기여하지 않는다.

9. 중세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절제란 자신을 완전히 신에게 바치는 사랑이며, 용기란 신을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사랑이며, 정의란 신에게만 헌신하는 사랑이며, 지혜란 신을 지향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사랑이다.

을: 지성적 덕과 도덕적 덕은 우리 행위에 의해 획득되며, 우리 안에 있는 특정한 자연적 원리에 의해 발생한다. 자연적 원리 외에도 신이 우리에게 주신 종교적 덕에 힘입어 우리는 초자연적 목적을 향하게 된다.

- ① 갑: 인간은 이성만으로도 자신의 유한성을 초월할 수 있다.
 ② 갑: 죄악은 불변하는 선을 인간이 외면하는 데서 발생한다.
 ③ 을: 자연법은 영원하며 모든 피조물이 준수해야 할 법칙이다.
 ④ 을: 삶의 궁극 목적은 신 존재를 철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⑤ 갑과 을: 참된 행복은 신의 은총으로 현재에서 완성될 수 있다.

10. 중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이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효도와 공경을 행했을 때에 비로소 '효도할 줄 안다, 공경할 줄 안다'고 말할 수 있다. 효도와 공경의 뜻을 이해하는 것만으로 '효도할 줄 안다, 공경할 줄 안다'고 말할 수 없으니, 앎과 행위를 어떻게 분리하겠는가?

을: 이미 알고 있는 이치를 가지고 사물을 탐구해야 한다. 사람의 마음은 영특하여 알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천하의 사물에는 모두 이치가 있으나 사람이 궁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앎이 완전하지 못한 것이다.

- ① 사람의 마음에 천리(天理)가 존재하는가?
 ②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에도 이치가 내재하는가?
 ③ 소인은 선천적 도덕 판단 능력이 결여된 사람인가?
 ④ 욕구의 절제와 본성의 보존은 격물(格物)과 무관한 것인가?
 ⑤ 치지(致知)는 사물에 깃든 이치를 궁구하고 실천하는 것인가?

11. 다음을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어머니 뱃속에 태아가 생기면, 형체가 없지만 신령스럽고 밝은 본체를 하늘이 부여해 주니, 이 때문에 사람의 성(性)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며 덕을 좋아하고 욕됨을 수치스럽게 여긴다. 사람이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것이 분명한데 이를 거슬러 악을 행한다면 어찌 그 죄를 면할 수 있겠는가?

<보 기>
 ㄱ. 영지의 기호는 선을 지향할 수 있는 실체적 이치이다.
 ㄴ. 사람은 이법적(理法的) 도덕 본성이 없으나 덕을 행할 수 있다.
 ㄷ. 인간은 선을 택해 실천할 수 있는 주체적 능력을 타고난다.
 ㄹ. 예(禮)라는 성(性)은 사양지심이 발현되는 시초가 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도덕은 행동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성에서 유래될 수 없다. 이성 홀로는 그와 같은 영향력을 전혀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덕성의 규칙은 결코 우리 이성의 결론이 아니다.
 을: 천성적으로 동정심을 잘 느끼는 이는 자신의 행위로 타인이 만족하는 것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러한 행위는 비록 의무에 맞다 하더라도 의무로부터 비롯되지 않았다면 도덕적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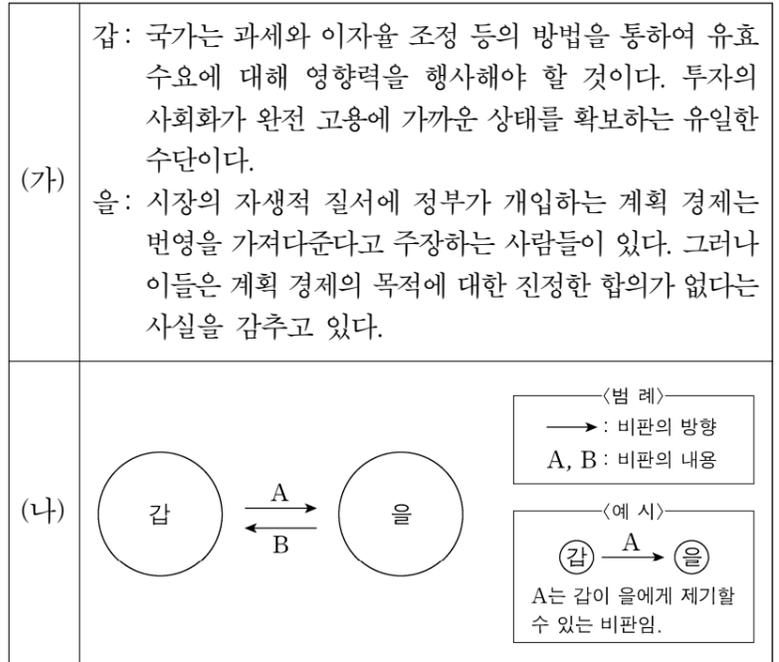
- ① 갑: 자신의 이익을 충족하는 행동은 선한 행동이 될 수 없다.
 ② 갑: 정념의 목적과 그 수단을 선정하는 데 이성은 무능력하다.
 ③ 을: 자유는 보편타당한 정언 명령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이다.
 ④ 을: 선의지는 제한 없이 선하지만 조건 없이 선한 것은 아니다.
 ⑤ 갑과 을: 보편적 인류애가 도덕 법칙을 수립하는 기초이다.

13.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야 한울님이 감응한다.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하면[守心正氣] 천지를 내 마음에 가까이 하는 것이니 참된 마음은 한울님이 반드시 좋아하고 한울님이 반드시 즐거워한다.
 을: 강화(講和)가 성립되면 사교(邪教)의 서책과 천주(天主)의 초상이 섞여 들어와 온 나라에 퍼질 것이다. 이를 내버려 두면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아 예의는 시궁창에 빠지고 사람들은 금수가 될 것이다.

- ① 갑: 천인합일 사상을 극복하고 인간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
 ② 갑: 새로운 세상이 내세(來世)에 열린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
 ③ 을: 절의(節義) 정신을 바탕으로 신분 질서를 철폐해야 한다.
 ④ 을: 서양의 종교는 배척하되 물질문명[器]은 받아들여야 한다.
 ⑤ 갑과 을: 위태로운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편안히 해야 한다.

14.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역할 확대가 필요함을 간과한다.
 ② A: 사적 소유와 시장 경제가 자본주의에 필수적임을 간과한다.
 ③ B: 자유 경쟁으로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이 저하됨을 간과한다.
 ④ B: 계획 경제가 개인의 자유 보장을 위해 불가피함을 간과한다.
 ⑤ B: 자유방임주의는 개인과 사회의 이익 증진을 저해함을 간과한다.

15.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결핍으로 인한 고통이 제거되면 육체적 쾌락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단지 형태만 바뀔 뿐이다. 정신적 쾌락의 한계는 쾌락들에 대한 계산과 쾌락과 연관된 감정들에 대한 계산을 통해 알 수 있다.
 을: 자신을 지배하는 이성과 우주를 지배하는 이성에게 신속히 달려가라. 네 이성에게 달려가는 것은 그 이성을 바르게 하기 위함이며, 우주의 이성에게 달려가는 것은 네가 무엇의 일부인지 상기하기 위함이다.

<보 기>
 ㄱ. 갑: 신과 운명에 대한 순응은 행복의 실현에 필수적이다.
 ㄴ. 갑: 정의는 상호 피해 방지를 통해 고통 제거에 기여한다.
 ㄷ. 을: 인간이 자연적 본성을 따르는 것은 이성에 어긋난다.
 ㄹ. 갑과 을: 자연에 대한 이해는 마음의 동요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16. 갑, 을은 한국 유교 사상가들이다.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하나는 기(氣)가 주가 되고 하나는 이(理)가 주가 되기 때문에 사단에도 기가 없지 않지만 이의 발(發)이라 하고, 칠정에도 이가 없지 않지만 기의 발이라 합니다.

을: 기가 유행하면서 그 본연을 잃고 치우치거나 혼탁한 것은 기의 국한됨이고, 기의 맑음과 혼탁함 가운데서도 그 본연이 손상되지 않음은 이의 통함입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7.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은 곧 자연이다. 신은 물리적인 것 혹은 정신적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우리는 신을 완전하게 이해함으로써 완벽한 마음의 평화를 갖게 된다. 즉, 신에 대한 이해는 최고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준다. 완전한 행복은 신을 인식하는 데서 성립하며, 이를 통해 덕이 요구하는 것만을 행할 수 있다. 정신의 최고의 덕은 신을 인식하는 것이다.

- ① 외적 대상에 대한 이해는 언제나 감정적 동요로 귀결된다.
- ② 신은 무한한 실체이며 신의 산물인 인간은 유한한 실체이다.
- ③ 자연에 대한 지적 사랑 없이 완전한 자유 실현은 불가능하다.
- ④ 인간은 필연성을 벗어날 수 없지만 자유 의지는 가질 수 있다.
- ⑤ 모든 사물이 본질적으로 자기 존재 보존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18. 사회사상가 갑, 을의 이상사회에 대한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농사는 모든 남녀가 예외 없이 종사하는 생업이다. 이들은 여섯 시간만을 일할 시간으로 배정한다. 일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이외의 시간은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을: 자본주의에서 노동은 사회의 번영을 불러일으키는 반면, 노동자를 점점 자본가에게 의존하게 하고 더 심한 경쟁에 몰아넣으며 과잉 생산이라는 사냥터로 밀어 넣어 무기력한 상태에 빠뜨린다.

- ① 갑: 생산이 풍족하지 못하므로 모두 검소하게 살아간다.
- ② 갑: 필요 이상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여가 활동이 허용된다.
- ③ 을: 역사의 최종 단계로서 노동자 계급이 지배하는 사회이다.
- ④ 을: 노동자와 자본가가 협력하는 점진적 개혁으로 실현된다.
- ⑤ 갑과 을: 사적 소유가 폐지되고 필요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진다.

19.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자유를 사랑하고 타인을 지배하기 좋아하는 존재인 인간이 국가 안에서 살기로 한 궁극적 목적은 자기 보존과 만족된 삶이다. 인간은 자연 상태의 비참한 전쟁 상태로부터 빠져 나오기 위해 사회 계약을 맺는다.

을: 최고 권력은 구성원들의 재산을 동의 없이 취할 수 없다. 정부의 목적은 구성원들의 재산을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구성원들은 이 목적을 위해서 사회 계약을 맺었기에 이러한 권리를 당연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보 기>

㉠. 갑: 자연 상태에서는 욕구 충족을 위한 무력 행사가 가능하다.

㉡. 갑: 구성원들은 자발적 계약을 통해 하나의 인격으로 통일된다.

㉢. 을: 재산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사회 계약 이후 발생한다.

㉣. 갑과 을: 자연 상태에서도 양도 불가능한 개인의 권리가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20.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저는 어떤 정부 형태든지 간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세 가지 기본적 자유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실천, 과학, 도덕, 신학 등 모든 주제에 대한 사상과 의견과 감정의 자유를 요구합니다. 둘째, 자신의 기호를 즐기고 추구할 자유를 지녀야 합니다. 타인들로부터 방해받지 않으면서 자기 개성에 적합한 인생 계획을 설계하고, 초래될 결과를 감수하는 조건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뜻을 같이하는 타인들과 함께 화합할 연대의 자유를 지녀야 합니다.

- ① 개인의 자유 보호를 위해 국가의 역할이 필요할 수 있다.
- ② 개인적 삶의 기호는 다수의 선호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 ③ 개인의 자유는 민주 정부 아래에서는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
- ④ 개인이 타인들과 사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행위는 없다.
- ⑤ 개인들의 화합을 위해서는 단일한 사상 체계를 추구해야 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 제 () 선택

윤리와 사상

1. 다음 가상 대화의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心齋] 만물을 평등하게 관조해야 한다.
- ② 인위적인 것을 모두 버리고 자연의 이법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
- ③ 열반에 도달하기 위해 나와 만물의 상호 의존성을 자각해야 한다.
- ④ 인의를 알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본성을 변화[化性]시켜야 한다.
- ⑤ 선한 마음을 확충하여 의로운 행위를 반복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2. (가)의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사람은 존재 이후에 스스로가 원하는 무엇이기에 때문에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것 외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실존주의의 제1원칙이다.
을: 개선론이란 특정한 상황이 어떻게든 나아질 수 있다는 견해이다. 그것은 선의 적극적인 수단을 탐구하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창조적 지성을 장려한다.

(나)

<법 레>
□ : 출발 조건
◇ : 판단 내용
→ : 판단 방향
○ : 사상가의 입장

- <보 기>
- ㄱ. A: 미리 정해진 보편적 원리에 따라 행동을 결정해야 하는가?
 - ㄴ. B: 자유에서 비롯된 불안은 실존 회복의 계기가 되는가?
 - ㄷ. B: 인간은 자유롭기에 항상 주체적 선택과 결정을 하는가?
 - ㄹ. C: 도덕적 인간은 선해지는 방향으로 성장해 가는 사람인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아침에 도(道)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천하에 도가 행해지면 예악과 정벌이 천자로부터 나오고, 도가 행해지지 않으면 예악과 정벌이 제후로부터 나온다.
을: 도는 늘 무위하지만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다. 왕이 그것을 잘 지키면 만물이 저절로 자라난다. 욕심이 일어나면 나는 장차 이름 없는 질박함[樸]으로 진정시킬 것이다.

- ① 갑: 예는 사회 제도를 제외한 개인적 행위에 국한하여 적용된다.
- ② 갑: 인자(仁者)는 타인을 사랑할 뿐 결코 미워해서는 안 된다.
- ③ 을: 통치자는 사회적으로 규정된 명분에 맞는 품성을 지녀야 한다.
- ④ 을: 덕에 따른 삶을 바탕으로 정치적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
- ⑤ 갑과 을: 현자(賢者)를 숭상해야 백성들이 서로 다투지 않는다.

4. 고대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아무도 자발적으로 악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아름다운 것과 좋은 것을 아는 사람은 결코 그 반대의 것을 택하지 않을 것이다. 아름다운 것과 좋은 것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이라면 그것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실패하게 될 것이다.
을: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군주의 지배하에 두게 하였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를 지시해 주는 것 역시 오직 고통과 쾌락일 뿐이다.

- ① 갑: 도덕적 진리는 명확하게 인식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 ② 갑: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도 그것을 의욕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을: 쾌락과 고통은 개인의 행위뿐만 아니라 사고까지 지배한다.
- ④ 을: 공리의 원리는 정부 정책이 아닌 개인의 행위에만 적용된다.
- ⑤ 갑과 을: 각자의 영혼을 가꾸는 일이 최상의 도덕적 과제이다.

5. 동양 불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인연(因緣)으로부터 발생하지 않은 존재는 단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모든 존재는 공(空) 아닌 것이 없다. 만일 모든 것이 공하지 않다고 한다면 생멸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을: 식(識)의 전변(轉變)은 모두 허망한 분별이다. 그것에 의해서 분별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오직 식일 뿐[唯識]이다.

- ① 갑: 모든 현상은 연기로 설명되므로 생성과 소멸은 실재한다.
- ② 갑: 중도는 유에 속한 극단도 아니고 무에 속한 극단도 아니다.
- ③ 을: 인식하는 나와 인식되는 세계는 모두 의식과 독립적이다.
- ④ 을: 맑고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일체의 식을 제거해야 한다.
- ⑤ 갑과 을: 구체적 사물은 고유한 성질을 지니므로 서로 구별된다.

2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6. (가)의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동굴의 비유에 따르면 죄수는 동굴 바깥으로 기어올라 가서 물속에 비친 상(像)들, 이것들의 실물들, 하늘의 별들 그리고 태양 자체를 순서대로 보게 된다.</p> <p>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좋음은 인간적인 좋음이므로 검토해야 할 덕은 인간적인 덕, 즉 신체의 덕이 아니라 영혼의 덕이다. 그렇기에 행복은 영혼의 활동이다.</p>
(나)	

<보 기>

- ㄱ. A: 본래 비이성적이지만 이성 따를 수 있는 영혼의 부분이 있다.
 ㄴ. B: 정치적 공동체 없이는 개인의 자족적 삶은 불가능하다.
 ㄷ. B: 좋음은 무엇인지 아는 덕은 철학자만이 지닌 지혜이다.
 ㄹ. C: 개별적 좋음만 있을 뿐 이것과 독립된 보편적 좋음은 없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7. 고대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내가 말하는 쾌락은 몸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왜냐하면 식탁 위에 풍성하게 차려진 맛있는 요리가 쾌락적인 삶을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을: 한 종류의 쾌락이 다른 쾌락보다 가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공리의 원리에 부합한다. 따라서 쾌락을 측정할 때 양에만 의거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은 불합리하다.

<보 기>

- ㄱ. 갑: 참된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성적 숙고가 필요하다.
 ㄴ. 을: 많은 불만족을 동반하지만 질적으로 뛰어난 쾌락이 있다.
 ㄷ. 갑과 을: 쾌락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궁극적 목적이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8. 중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마음은 몸을 주재한다. 성(性)은 마음의 본체가 되고 정(情)은 마음의 작용이 된다. 그러므로 마음은 움직임과 고요함을 관통하여 없는 곳이 없다.
 을: 마음은 몸을 주재한다. 마음이 텅 비고 신령하여 밝게 지각하는 것을 이른바 본연의 양지(良知)라고 한다. 이러한 양지가 감응하여 움직이는 것을 의념[意]이라고 한다.

- ① 갑: 성은 마음의 본체이므로 그 작용인 정을 포괄하고 통솔한다.
 ② 갑: 인욕을 제거하기 위해 본연지성의 차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③ 을: 내 마음의 양지가 내린 판단은 의식적 추론 과정의 결과이다.
 ④ 을: 치지는 양지를 각각의 사물마다 온전하게 실현하는 것이다.
 ⑤ 갑과 을: 마음을 벗어나 외부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이치는 없다.

9.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사회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가정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공동체이고, 마을은 가정들로부터 생겨난 공동체이며, 국가는 마을들로 구성된 공동체이다. 국가는 완전한 자족이라는 단계에 도달해 있다. 국가는 생존을 위해 생겨났지만 좋은 삶을 위해 존재한다.
 을: 사람들이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권리들을 사회에 양도하는 이유는 재산을 보존하는 데 있다. 입법자들이 시민의 재산을 빼앗거나 노예 상태로 만들고자 할 경우 시민은 새로운 입법부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보 기>

- ㄱ. 갑: 인간 본성은 국가보다 큰 공동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ㄴ. 을: 자연 상태에서 각자의 사건에 대해 판단할 주체는 없다.
 ㄷ. 을: 법을 제정하는 권력과 집행하는 권력은 분리되어야 한다.
 ㄹ. 갑과 을: 국가의 목적은 시민을 도덕적 삶으로 인도하는 데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신은 곧 자연이며 실체이다. 개체, 즉 유한하고 특정한 존재는 실체의 양태이다. 신적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 무한히 많은 것들이 무한히 많은 방식으로 따라 나와야만 한다.

- ① 신적 본성은 자연법칙을 매개하지 않아도 작용할 수 있다.
 ② 욕망, 사랑, 지성을 모두 가진 개체만이 실체의 양태가 된다.
 ③ 신적 본성을 표현하는 양태의 수는 셀 수 있을 정도로 유한하다.
 ④ 신의 선택과 결정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세계는 설명되지 않는다.
 ⑤ 사건 사이에는 실제적 인과 관계를 제외한 다른 방식은 불가능하다.

11. 다음 가상 편지를 쓴 한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네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점을 바로잡고자 이 편지를 보내네. 인의예지(仁義禮智)는 사람의 마음속에 덩어리로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네. 맹자께서 “생명[生]을 버리고 의를 취한다.”라고 하셨는데, 태어날 때부터 한 덩어리의 의가 마음속에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취할 수 있겠는가? 또한 『예기』에서 “봄과 가을에는 예악(禮樂)을 가르친다.”라고 하였는데, 예가 마음속에 있다면 무엇 때문에 배우겠는가? 이처럼 인의예지의 이름은 반드시 일을 행한 뒤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유념하시게.

- ① 선을 좋아하는 본성을 발휘해야 선악을 택하는 권한이 부여된다.
- ② 인간의 욕구는 도덕적 실천을 위한 삶의 추동력이 될 수 없다.
- ③ 영지(靈知)의 기호는 상황에 따라 선이나 악으로 흐를 수 있다.
- ④ 수오지심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의가 성립될 수 있다.
- ⑤ 인간의 자유 의지(自主之權)로 인해 행위의 공과(功過)가 생겨난다.

12.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선의지는, 우둔한 머리와 결단력 없음과 같은 타고난 결함으로 인해 또는 질병과 가난과 같은 불운으로 인해, 자신의 의도적 목적을 관철할 능력이 완전히 결핍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의지는 최대한 노력해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저 의지로서만 남을 수도 있다. 그렇다 해도 이 의지는 자기 안에 자신의 완전한 가치를 지닌 어떤 것이다. 이 가치에 유용성이나 무익함은 아무 것도 덧붙이거나 떨어낼 수 없다.

- ① 선의지의 선은 의욕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욕함 자체에 있다.
- ② 모든 선의지에게는 외적 강제뿐만 아니라 내적 강제도 불필요하다.
- ③ 도덕 법칙은 의무의 형식뿐만 아니라 의무의 실행 방법까지 결정한다.
- ④ 확고한 준칙을 세운 인간이라면 누구나 정언 명령을 따르고자 한다.
- ⑤ 행위자의 합리적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는 모두 정언 명령에 합치한다.

13.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자유는 내 활동에 어느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 사람이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이다. 불간섭의 영역이 넓어질수록 내 자유의 영역이 넓어진다.

을: 자유는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주종적 지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권력자의 자의적 지배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적 제약을 늘릴 수밖에 없다.

- ① 갑: 선의의 이타적 간섭이라도 자유에 대한 침해로 간주된다.
- ② 갑: 진정한 자유의 영역은 타인의 간섭이 부재한 영역에 비례한다.
- ③ 을: 시민들이 누리는 자유와 권리는 자연권에 의해 보장된다.
- ④ 을: 자유는 시민들의 참여에 의한 헌법의 제정을 필요로 한다.
- ⑤ 갑과 을: 국가는 법에 의해서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14. 한국 불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더러움과 깨끗함은 그 본래 성품이 둘이 아니고 참과 거짓 또한 서로 다르지 않으므로 하나[一]라고 한다. 이 둘이 없는 곳에서 법(法)은 진실하며 허공과 다르므로 스스로 신령스럽게 아는 성품이 있으니 이를 마음[心]이라 한다.

을: 진리에 들어가는 천 가지 문이 결국에는 선정(定)과 지혜[慧]를 떠나지 않는다. 본체[體]는 작용[用]에 의존하므로 선정은 지혜를 떠나지 않고, 작용은 본체에 의존하므로 지혜는 선정을 떠나지 않는다.

<보 기>

ㄱ. 갑: 다양한 종과 간 갈등을 화해하여 단일한 교리로 통합해야 한다.

ㄴ. 을: 사물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지혜 아닌 선정만이 요구된다.

ㄷ. 을: 부처의 마음[禪]은 마음으로 전하므로 스승[祖師]이 필요하다.

ㄹ. 갑과 을: 깨달음을 위해 언어 자체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15.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p>갑: 정부 기능의 확대는 소비 성향 및 투자 유인의 조절과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광범위한 투자의 사회화는 완전 고용의 목표에 근접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다.</p> <p>을: 정부가 시장의 자생적 질서에 직접 간섭하여 개선을 시도하는 것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 국가의 임무는 경쟁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조건을 만드는 일이다.</p> <p>병: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을 통해 지배 계급이 되어 낡은 생산 관계를 폐지하면, 그들은 이것과 함께 계급적 대립의 존재 조건과 계급 일반 또한 폐지하게 될 것이다.</p>
(나)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 style="text-align: right;"><법 레> → : 비판의 방향 A~F: 비판의 내용</p> <p style="text-align: right;"><예 시> 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 </p>

- ① A: 정부의 적극적 개입 없이는 시장 실패를 교정할 수 없음을 간과한다.
- ② B: 시장의 자율성만으로는 유효 수요 창출이 불가능함을 간과한다.
- ③ C와 E: 경제적 평등의 실현을 위해 국가가 영속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 ④ D: 대규모 실업은 고용 시장에 대한 방임에서 비롯됨을 간과한다.
- ⑤ F: 노동자의 소외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서 기인함을 간과한다.

4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16. 중세 서양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만일 신이 인간의 최고선이라고 한다면, 그 최고선을 구하는 것이 잘 사는 일이다. 지상에서 선한 생활에 따르는 평화를 누릴 때에도 행복하다고 하지만, 이런 행복은 천상에서의 행복에 비하면 불행에 불과하다.
 을: 인간의 자연적 본성을 뛰어넘는 행복은 오직 신성(神性)에 대한 참여에 의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 이러한 행복은 신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며, 이것으로 이끌어 주는 활동을 가능케 하는 원리를 종교적 덕이라 부른다.

- ① 갑: 자신의 힘만으로 참된 선을 실현하면 지복에 이를 수 있다.
- ② 갑: 선의 원천은 신이지만 자유 의지는 인간 자신에게서 유래한다.
- ③ 을: 도덕 활동과 지적 활동만으로는 초자연적 행복에 이를 수 없다.
- ④ 을: 믿음·소망·사랑의 덕은 자연적 본성만으로도 성취 가능하다.
- ⑤ 갑과 을: 신의 계시를 통하지 않고서는 신이 존재함을 알 수 없다.

17.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적의 훌륭한 품성은 우리에게 해롭지만 존경심을 유발할 수 있다. 어떤 품성이 도덕적으로 선하다거나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느낌이나 감정을 일으키는 경우는 오직 그 품성을 우리의 개별적 이익과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고려할 때뿐이다. 낯선 사람들의 행복은 공감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 ① 이성은 의지가 원하는 방향에 대해 어떤 차이도 만들지 못한다.
- ② 이성 단독으로 두려움의 정념을 통제하여 정서 안정에 기여한다.
- ③ 쾌락에 반응하는 자연적 본성은 인간의 도덕 원리가 될 수 없다.
- ④ 품성에 대한 평가는 그 품성이 관찰자의 마음에 끼친 영향의 결과다.
- ⑤ 개인의 승인 감정만으로도 공평한 도덕적 평가가 되는 데 충분하다.

18. 고대 서양 사상이자 갑, 사회사상이자 을의 이상 사회에 대한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영혼에 세 부분이 있듯이 국가에도 세 부분이 있다. 철학자는 통치하고 군인은 국가를 방위하고 생산자는 생업에 힘쓴다. 이 세 부류 모두에 절제가 있어야 정의로운 국가이다.
 을: 초승달 모양의 섬에는 54개의 도시가 있다. 사람들은 하루에 6시간만 일하지만 누구나 노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언제나 풍요로우며, 노동 이외의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한다.

<보 기>
 가. 갑: 무절제한 사람은 정의로운 국가의 시민이 될 수 없다.
 나. 갑: 국가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타고난 지혜만으로 통치자가 될 수 있다.
 다. 을: 국가는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은 필요 이상의 노동을 하지 않는다.
 라. 갑과 을: 이상 국가에서는 시민들 간에 신분의 구분이 없다.

- ① 가, 다 ② 나, 다 ③ 나, 라
- ④ 가, 나, 라 ⑤ 가, 다, 라

19. 다음은 한국 유교 사상이자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가. 갑: 사단은 이(理)가 발함에 기가 올라타고(乘) 있는 것이다.
 나. 을: 기가 반드시 발해야만 도덕 감정(四端)이 드러날 수 있다.
 다. 을: 기의 국한성(氣局)은 두루 통하는 이의 속성(理通) 때문이다.
 라. 갑과 을: 이와 기는 구체적 사물에서는 결코 서로 분리될 수 없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라
- ④ 가, 다, 라 ⑤ 나, 다, 라

20. (가), (나)는 근대 한국 사상이자 (가) 사상에 비해 (나) 사상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을 도(道)라 하고, 때에 따라 변하고 바뀌는 것을 기(器)라 한다. 그러므로 만약 시대에 합당하고 백성에게 이익이 된다면 비록 오랑캐의 법일지라도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
 (나) 내가 서양의 도를 듣고 두려워할 때, 밖으로 신령스러운 기운을 접하고 안으로 말씀이 내려왔지만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고 기를 바르게 한(守心正氣) 후 물으니,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니라.”라고 하셨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